



3

1981

문예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3호

(루계 401)



◆◆◆◆◆◆◆◆◆◆ 차 례 ◆◆◆◆◆◆◆◆◆◆

천리길에 피는 꽃 (외 1 편)	4
장자산의 별	5
조국은 새 아침을... ..	6
선생님의 붓앞에서	9
만발하라, 주체의 화원이여!	10
위대한 주체사상	12
야자수 설레이는곳에서	13
아버이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르렵니다	14
지배인의 하루	16
우리의 청춘시절은... ..	26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대한 송가	27
가슴뜨겁게 울리는 노래	29
평양의 밤	31
삶에 대한 생각	32
보통날에도 (외 1 편)	32

땅의 노래	33
산갈은 물이랑을 타고넘으며 (외 1 편)	34
백번 믿어 좋아요.....	35
청춘의 꿈을 안고.....	36
나의 노래여	37
청춘의 빛나는 모습으로	38
꽃피는 서수라	39
고향땅	42
조국을 안고 사는 사람들	51
작시법의 제요소를 잘 살리는것은 시의 산문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담보....	54
대답	61
다시 보는 평양	68
이 길을 걸어 스물다섯해	69
누구를 위한 장벽이냐.....	70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쥬아소설문학의 반동적본질	71
풍어의 기쁨은 어장에, 포구에 넘친다.....	77
정방산성가	80

천리길에 피는 꽃 외 1 편

최진용

설레이는 나무숲
걸음걸음 다가만서는
높은 산, 높은 령 굽이굽이 천리길에
날마다 새라새로운 꽃들이 피어
피어나는 꽃들을 가꾸는 마음

어제는 늦은 저녁때
동해기슭의 용해공들
백사장의 해당화 이 길에 옮겨심어
바다 먼 산속에서도
검푸른 파도소리 듣는것 같더니

오늘도 이른새벽엔
서해기슭의 비단짜는 처녀들
목란꽃 포기포기 이 길에 심어
굽이굽이 풍기는 그윽한 향기
해빛아래 밝게 웃는 아름다운 꽃

봄이면 봄마다
그리운 만경대와 한계절에
연분홍진달래가 떨어지는 길
여름이면
백두산의 정기어린 제비꽃이 피어나
싱그러운 향기를 풍겨주는 길

눈오는 겨울날에도
백포자락을 날리며
천리길 걷는 답사대원들
꽃을 안고
꽃물결치며 흘러가는 이 길은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사시절 꽃으로 피어나는 길

아침이슬 머금은 저 나리꽃은

밤새워 쇠물을 끓여낸
용해공의 그 웃음 비껴 저리 싱싱한가
백날을 하루같이 붉게 피는 백일홍
천짜는 처녀들의 그 일손 어려
저리 고운가

송이송이 아름다운 꽃 가꿔갈 때면
나도 답사대원으로 천리길을 가는듯

이 길에 류랑민이 흘러가던 세월에
아버님의 《지원》의 뜻을 새기시며
배움의 천리길 걸으신
수령님의 그 자옥우에
락원의 봄빛이 깃들었기에
그 은혜를 못잊어 찾아와 가꾸는 꽃

금강산에 피는 꽃
학사대의 조약돌
정성으로 천리길 가꿔갈 때면
온 나라의 마음과 함께 사는 이 자랑

흰구름이 흐르는 높은 령기슭
깊은 산속 림산마을에 살아도
언제나 그리운 마음인양
당의 품에 닿아있는 천리길
꽃이 되어
사시절 이 길에 피고싶은 기쁨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드는
뜨거운 마음들이 흐르는 이 길에
내 한생 충성의 꽃을 가꾸리라
혁명의 대를 이어 굽이쳐갈 이 길에-

장자산의 별

높은령 넘어 벼랑길 뚫아
뜨거운 마음 새기며
내 다달은 장자산기슭
가을밤이 좋아선가
잠못들고 숲속길 거니는데
머리위에 별이 빛나네

못잊을 그 밤처럼
이밤도 등잔불이 타오르는듯
산기슭의 불밝은 집 프락에서도
학습터의 푸르른 나무밑을 걸어도
이 마음속 깊은곳 비쳐주며
별이 빛나네

물구슬 구르는 맑은 내가
천리길 답사숙영소엔 웃음소리 높는데
굽이돌아 오르는 숲속길
어깨 스치는 머루송이 하나에도
깃든 사연 안겨와
진정할수 없는 마음

소나무 울창한 회상터에 오르면
달밝은 그 밤에
저 멀리 파도치는 산발을 넘어
백두의 수해우에 내려친
당의 뜨거운 숨결이 흘러들어
생각은 깊어만지는데

끝없이 열린 만리대공을 안고
천리길 굽이굽이 허리에 휘감고
아름다운 숲
우중충한 바위들을 거느리고
백두의 령봉처럼 성스러운
장자산마루에 솟아
너 무엇을 속삭여주느냐

아 별이여 너는 말하여주는구나
우리 걸어온 혁명의 천리길과

행복이 꽃피는 모든 길들이
어데서 시작되었는가를
이 땅에 흐르는 낮과 밤들이
어떻게 오늘로 이어져
누리에 빛나는 빛을 뿌리는가를

장자산의 별이여 너는
이밤도 아기의 요람을 지켜
하많은 초소와 일터들을 보살피며
꺼질줄 모르는
우리 당중앙의 그 빛발안고
우주에 높이 솟아 빛나는구나

너는 높이 빛나며
조국이 암담했던 그날에
백두산의 장수별을 우러르며
혁명의 폭풍을 헤친
혁명전위들의 그 숨결 안겨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내이는
우리 당중앙의 그 빛발따라
주체위업의 승리가 누리에 꽃피날
찬란한 래일을 말하여주는구나

테로의 장막이 무겁게 드리운
컴컴한 남녘땅에서
자주의 흐름이 거세게 굽이치는 대륙들에서
우리 당중앙을 그리는 마음들이
언제나 바라보는 주체의 조국하늘
당의 뜻이 어린
장자산마루에 높인 떠

태양의 빛
주체의 빛으로
언제나 빛나는
우리 당중앙의 향도의 그 빛을
온 세상에 뿌리고있구나

조국은 새 아침을...

조벽암

여울목에서

어스름이 짙어가니
생각도 짙어갑니다
여울목 물소리 높아가니
심장의 고동소리도 더 높아집니다

물새도 깃 찾아 나는 저물녘
천리하고도 또 천리
이국 먼 나그네길에서
돌아오시는 김형직선생님

건너서면 정겨운 조국땅
압록강 물소리도 반겨서나
가실 때보다 오실 때가
오실 때가 더 가슴 부푸셨답니다

말없이 떠나시는 외론 길목에
묵묵히 바래주던 조국강산이
그리도 몹시 송구스러우셨기에
다시 맞는 정은 더없이 뜨거우셨답니다

새날을 믿어 서슴없이 내딛으시는 발길앞에
막아선 총칼숲도 무색하였고

옮기시는 자욱자욱 발자욱소리도
조국은 봄우뢰로 새겨들었습니다

새벽의 초행길 가시덤불속
틔여진 지름길들은
피흔적도 섬섬피
무거운 침묵속에 이렇게 닦아져갔습니다

빠져린 피바다속에서도
지새는 새아침을
조국은, 아 나의 조국은
이렇듯 험치 않게 맞이했습니다

아, 그날의 그 밤은
아득한 세월속에 흘러갔어도
진정어린 그 물굽이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가슴에 맥맥히 흘러듭니다

어스름이 짙어가니
생각도 짙어갑니다
여울목 물소리 높아가니
거룩하신 그 심정 더욱 간절합니다

중골나루터 물소리

다시 꼭 오시라고
조르는 물소리도 달래시며
다시 꼭 돌아오마고
홀로 속다짐도 하시며
건너가신 나루터, 중골나루터

이 땅 력사의 새벽기슭에

걸음걸음 민족의 념원을 새기시며
겨레의 가슴가슴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 투쟁으로 불러주신
김형직선생님!

때로는 험한 산밭을 홀로 걸으시며
때로는 물속 깊이 발을 잠그시며

갈새도 놀래나는 한밤중
무장대에 총탄을 마련해주시려
넘나드신 나루터, 압록강나루터

암운 짙은 조국강산
묵묵히 바라보시고
사려문 겨레의 아픔 되새기시며
바빠 궁이배의 노젓는 소리
지금도 력력히 이 가슴에 파도쳐오는듯

아, 그날의 그 밤길 못잊어

차마 잊을래야 잊을수 없어
애타게 속삭여주는가
중골나루터 물소리
조국을 동티우는 가쁜 숨소리

오늘도, 래일도
전하여 길이 끝없을 그 소리
심장속 속속들이 흘러드네
압록강기슭을 지나 저 남해가
모대기는 파도소리도 따라보채며...

좌골객사에서

밤도와 험한 산발 굽이굽이 칠십리
이슬젖은 두루마기자락 무거이 날리시며
산모퉁이 에돌아
《내 여기 있노라》
금시에 김형직선생님 나서시는듯

물소리, 바람결도 모두다
그해 그날의 그 소리인가
진록색 뚝뚝 덧는 천마산막바지 좌골
그 무르익던 마여름이
우리의 가슴에도 철철 넘어나는듯

이웃에 마실오시듯 먼길 드나드시며
피끓는 청춘의 심장마다에
심어주신 애국의 넋이 숨엄히 스며배서나
무장대의 검소한 귀틀집 한채
생나무서까래 내려쫓혀 아람드리가 되었구나

등잔불티를 따고 또 따시면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조국수복의 높으신 계책 짜시며
지새우신 그 밤의
그 기백, 그 음성 지금도 력력하온듯

멀리 비치시는 영채도는 그 안광에
조국의 아픔을 가득히 담으시고
조선이 가고
겨레가 모두 가야 할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신 김형직선생님

때로는 땀 씻으시며 화전민과 함께
땀기발도 가로타 매시고
기복 많은 조발의 이랑이랑에도
이 땅의 새벽노을 비껴도 주시고
군량도 제손으로 마련케 해주신 선생님

달빛 교묘한 옛병영 좌골객사에
잠못이루는 이 한밤에도
소탈하신 그날의 그 차림새로
김형직선생님 친히 찾아오시여
우리에게도 밤새워 타일려주시는듯

아, 《지원》의 큰뜻 가슴깊이 품으시고
만경대 순화강기슭을 멀리 떠나오시여
여기 압록강기슭 심산에도 심산속에
뿌리 깊게 내려주신 애국의 넋이
가슴속 깊이깊이 스며들어라 파고들어라

통군정에 올라

의주라 통군정 루우에 올라서니
풍운을 몰아 하늘땅을 진감하던
지난날의 우람찬 말발굽소리 들리는듯

흐렸던 날씨도 번쩍 들려
트이는 저녁노을에
성루의 단정도 오늘 더욱 새로운데

왜적에게 짓밟혀 물안개서린 강산을
한번 휘-돌려보시고
긴숨 몰아쉬신 김형직선생님

지그시 입술 옥무시고
웃고 다시 오를 그날을 그리시며
첫새벽 초행길을 헤쳐가신 선생님

바람도 옷자락에 매달려 목메였던가
자옥자옥 발자욱에 피여지는 생각도
더욱 깊어 깊어만지셨던가

자신이 못다 이루시면 아들이
아들이 못다 이루시면 대를 이어
가고 가야 할 길, 꼭 가고야말 길

다락우에 한동안 묵묵히 서시였다가
천천히 북으로 옮기시는 그 발걸음은
천만근으로 무거우셨으리

아, 아버님의 그 큰뜻을 이어
기어이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다주신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사는 오늘

김형직선생님의 그날 그 심정을
가슴에 안고 조국땅 한끝을 더듬으니
검푸른 남해가 물결쳐와라

아, 상기도 짓밟히는 저 남녘을 두고
심장깊이 선생님의 《지원》의 뜻 새기며
내 해저물도록 루를 내리지 못하누나

가사

설레이는 바다여, 길이 전하라

리영백

물안개 흐르던 그 새벽
아버이수령님 오셨네
포구는 잠들어 고요한데
배머리에 오르셨네
아, 은혜론 그 품에 안기여
바다도 감격에 설레이었네

어로공 우리의 손들을
다정히 잡아주실 때
해빛은 물위에 넘쳐흐르고

갈매기도 나래쳤네
아, 행복에 목메이는 가슴에
사랑의 바다가 출렁이었네

해쫄는 부두에 서시여
손저어주시던 수령님
먼바다 어장에 우리는 가도
그 품속에 안겨사네
아, 끝없는 아버지 그 사랑
설레는 바다여, 길이 전하라

선생님의 붓앞에서

김명심

금시 놓으신듯
이제 들으실듯
여기 소박한 책상우에
조용히 놓여있는
선생님의 붓

아 그래서
방안으로 들어서서 이 마음
진하게 진하게
덕을 갈아 올리고싶구나

갈아올리고싶구나 썩-썩-
대동강 맑은 물을 부어
넘치는 먹물에 붓을 적시여
선생님께 삼가 올리고싶구나

남산의 푸른소나무
눈서리에 파묻히여
몸부림치던 밤
이 땅에 양춘을 불러
저 붓을 드시었으니

남산의 바위는 벼루가 되고
흐르는 대동강은 먹물이 되어
반만년의 력사우에 새겨가신
《지원》의 그 높으신 뜻이여

그 뜻을 노래하며
이 나라의 강물들은
그리도 세차게 굽이쳤고
그 뜻을 전하며
푸른소나무는
삼천리에 설레었나니

김형직선생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며
강토 삼천리를 깨우치신
《지원》의 그 높으신 뜻은

어버이수령님
가꾸어 꽃피워주신
주체의 화원으로
만발하였거니

아 잊으랴
잊을가부나
김형직선생님의
그 높으신 뜻이여

금시 놓으신듯
이제 들으실듯
여기 소박한 책상우에
오늘도 조용히 놓여있는
선생님의 붓

이 마음 방안으로 들어서서
진하게 진하게
먹을 갈아 올리고싶구나
붓을 들어 올리고싶구나

뜨겁게 뜨겁게
이 가슴에 일어번지는
충성의 물결에
붓을 적시여
마음을 적시여

만발하라, 주체의 화원이여!

안정기

이 땅에 꽃이 핀다. 싱싱하고 아름답고 풍만한 꽃들이 피고 또 피어 누리에 향기를 뿜는다.

강산도 사람도 그리고 이 나라에 생을 둔 모든 것이 만발하여 끝없이 설레인다, 위대한 태양의 해빛으로 우리 당이 가꾸는 주체의 화원! 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1모범의 나라》로 칭송하는 아침의 나라 조선!

정녕 자연의 해빛으로는 천년을 가꾸고 만년을 기다려도 이루지 못할 인류의 리상경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펼쳐졌으니 이보다 큰 자랑 이보다 높은 긍지가 또 어디 있겠는가.

지난날 빛을 잃고 시들어가던 산천이 생기를 띠고 행복을 노래하고 울벌레소리 구슬프던 진펄땅이 기계바다를 안고 자동차의 불빛으로 공산주의 새날을 지척에 부르거니, 어찌 사람들이 꽃피어 젊어지지 않으며 조국이 꽃피어 번영하지 않으랴!

땅도 그 땅, 사람도 그 사람이건만 참으로 그 무슨 힘이 이 땅위에 흐르는 유구한 력사의 한순간에 이렇듯 위대한 천지개벽을 이루어놓았는가!

사람들은 알고있다. 전하여 끝이 없는 이야기를 틀뜨거운 가슴에 안고산다.

해도 별도 뜨지 않던 캄캄한 그 세월, 광막한 대지위에 어둠을 불사르며 한점의 불꽃이 타올랐다. 화전땅 밤하늘에 치솟아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 민족재생의 앞길을 밝힌 《E.C》의 해불! 그것은 피에 얼룩진 이 나라 력사의 새벽길을 떠난 주체의 봉화!

짓밟힌 가슴들이 눈물로 우러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말기고 따라나선 그 대오의 진두엔 광휘로운 해불을 추켜들고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령장 김일성동지께서 걷고계시었다.

이 영광의 대오, 우리 당의 첫 대오는 인류가 한생을 걸어도 못다 걸을 멀고도 험난한 길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주체의 신념 하나로 불바다 피바다를 헤치고 넘었다. 천고밀림 행군길에 잠시 풀 깔고 누웠어도 오늘의 이 락원을 그리며 변치 않는 충성을 다지며...

그 성스러운 해불- 우리 당의 주체의 기치는 하늘땅을 진감한 해방의 그 아침에 마치고 낮과 붓을 아로새겨 민주의 새조선을 힘차게 안아올렸고 또다시 천리 전화의 불길을 넘어 락원의 강토위에 휘날리었다.

반세기 눈비에 젖고 폭풍에 부대끼고 전화에 끄슬리며 이 땅에 인민의 새세상을 수놓는 길에 순간인들 멈춤이 있었던가! 고난과 영광에 찬 혁명의 길을 씩없이 걷고걸어 오늘의 대화원을 펼쳐놓은 한없이 고마운 당!

세상의 험한 산발 다 넘고 세월의 모진 폭풍 다 헤쳐 인민을 향기 높은 꽃길우에 내세워주고 끝없는 기쁨, 귀중한 재부, 삶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 더없는 행복과 영예를 모두 안겨준 우리의 조선로동당!

그러기에 인민의 태양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당은 참으로 위대한 당, 강철의 당, 승리의 당, 그리고 한없이 따사로운 어머니당으로 우리의 심장속에 영원히 자리잡은 것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력사와 인류 앞에 세운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로동계급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영명한 손길아래 우리 조국은 활짝 꽃피어나고 우리 민족은 류레없는 대통령기를 맞이하였다. 사회도 자연도 사람도 붉게붉게 피어나 한없이 은혜로운 태양-향도의 해발을 우러러 감격에 설레인다.

보라! 내 조국은 얼마나 찬란한 화원으로 변하였는가!

광활한 백두의 고원에서 아득한 연백별 저끝까지 황금의 나락 펼쳐들고 춤을 추며 은혜로운 해빛을 향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있지 않는가! 풍년날가리우에 높이 올라 1,500만톤의 새 봉우리를 지척에 바라보는 우리 인민, 그 얼굴마다엔 얼마나 자랑찬 긍지가 물결치고있는가!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속에 꽃피난 대지를 한껏 안아보는 그 가슴가슴들엔 뜨거운것이 굵이치고있다. 깊은 산 초목들도 타버리고 지구의 표면마저 말라터지는 왕가물과 해일처럼 범람하는 홍수와 계절에 아닌 눈발이 휘날려 온 세상이 아우성치는 이때, 우리의 산과 들은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하게 무르익어가는가!

기계소리 물소리 넘치는 들판에 서서 우리의 농민들은 생각한다. 한여름 불벌아래 강냉이 한

이삭으로 끼니를 삼으시고 다락밭과 논둑길을 헤쳐가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로고! 강냉이 한이삭에 몇알이나 달렸는가 손수 세어도보시고 밭머리에 새로 판 우물도 함께 보아주시며 과학농사, 기계농사, 화학농사의 새시대를 열어주신 그 사랑 그 은정!

정녕 이 땅의 하많은 논둑길과 밭머리, 등판과 골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자욱 찍히지 않은곳 있으며 뜨거운 이야기 전설로 꽃피지 않은곳 있으랴! 그 사랑의 자욱우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빛나는 자욱이 덧놓이고 그 뜨거운 전설속에 우리 당의 못잇을 이야기 수놓아져 이 강산은 주체의 화원으로 만발하는것이 아닌가!

보라, 우리의 공업은 또 얼마나 큰걸음 내디디었는가. 한생을 찾아다녀도 야장간의 고달픈 메질소리와 황토길우에 빼격이는 달구지소리밖에 들을길 없던 이 땅에 철타들은 숲처럼 솟아 빛을 뿌리고 천만가지 기계의 음향은 내 조국의 숨결 인양 힘차고 고르롭다.

영광스러운 당의 빛나는 예지와 세련된 지도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1970년대에는 우리의 공업생산이 해마다 15.9프로의 놀라운 속도로 장성하여 공업총생산액은 3.8배로 늘어났으며 그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3.9배, 소비재생산은 3.7배로 늘어났다.

1980년대말에 가서 우리의 공업총생산액은 지금에 비하여 3.1배로, 1946년에 비하여는 무려 1,000배로 늘어나게 되며 1946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8시간동안에 생산하게 될것이다. 이것이 어찌 먼 장래의 일이며 평범한 이야기라 할수 있겠는가, 흥분하지 않고서는 들을수 없는 거창한 변혁이 눈앞에 펼쳐지고있다.

대안의 중기계는 발전소를 통채로 낳고 현대적인 공장들을 낳으며 수만톤급의 짐배들을 못기 위해 아름답리 축들을 광광 다듬어낸다. 금성의 기계바다는 밝아오는 공산주의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주의농촌에 프락포르군단을 쉬임없이 떠나 보낸다.

은불과 검덕, 무산과 덕현 그리고 안주와 순천 지구에서는 석탄과 광석들이 빛을 뿌리며 폭포처럼 쏟아지고있다. 조국의 은금보화를 산맥처럼 이끌고 우리의 전기기관차들은 세월을 당기며 자주통일의 려명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린다.

우리 당이 열어놓은 력사의 지름길이 있어 100년이 걸려도 못간다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계선을 단 14년간에 통과한 영웅적인 우리 인민! 또다시 3대혁명의 붉은기를 진두에 휘날리며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가. 사대와 교조의 망상을 짓몽개고

소극과 보수의 울타리를 짓부시며 제머리로 생각하고 제것, 제 슬기로 일떠세운 거창한 기념비들이 얼마나 많이 치솟아 빛을 뿌리는가!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이 가꾸시는 우리의 잡초 없는 화원이다. 그 화원속에 인민의 새생활이 수놓아지고 희망과 행복의 노래 누리에 울려 퍼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올바른 정책과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초가삼간 집을 짓고 부모들을 모시고 사는것이 고작 큰 꿈이었던 우리 인민이 벽돌 한장, 나사못 한개 성한것 없는 폐허에서 재가루를 털고 일어난 우리 인민이 어느덧 사회주의락원의 당당한 주인으로 세상에 없는 복리를 다 누리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의 해빛아래 무지개처럼 아롱지는 비단필도, 창밖은 문화주택도 학교와 병원, 극장과 문화회관, 공원과 유원지도... 모두가 인민의것이 되여 생활의 대화랑을 이루었다.

이 땅에 태어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찌 이 화원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며 소중히 지키지 않으랴!

사람들이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런 당이 베풀어주신 이 사랑의 화원-주체의 화원을 더 활짝 꽃피우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영예로운 진군길우에 북소리 높이 울리며 공산주의적새인간들의 꽃밭을 더 화려하게 수놓아가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다. 근로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중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그것은 오직 전체 인민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되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당과 수령님께 언제나 기쁨을 드리는것을 지상의 영광으로 간주할 때에만 이루어지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만 우리의 리상은 현실로 되고 우리의 경제와 문화는 더한층 역센 나래를 펴게 될것이다.

꽃은 피어도 불게 피어야 하며 붉게 피어도 많이 피어야 하며 많이 피어도 향기가 높아야 한다.

우리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지식인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령마루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 당과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여야 하며 자주와 창조의 화원을 아름답게 펼쳐 온 누리가 우러러 바라보게 해야 한다.

우리 당 제6차대회는 인류가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을 천리해안으로 밝히고 그 로정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우리는 그 이정표를 따라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산악이면 산악, 바다면 바다, 그 어떤 장애물도 용감히 뚫고 헤치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려야 한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번영하는 이 땅우에 새생활이 약동하고 자동화의 대교향악이 력사의 진군길에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 천년 땅속에서 잠자던 광석과 석탄을 모조리 캐내어 이 화원에 따사로운 열을 보내고 은빛금빛을 뿌리게 하고 은실금실 고운 실로 짜낸 15억 메터의 꽃천으로 수를 놓게 해야 한다. 1억2,000만톤의 석탄고지와 150만톤의 유색금속, 2,000만톤의 세멘트, 700만톤의 화학비료, 1,500만톤의 강철고지우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부르자!

온 나라 일터에, 초소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어 힘을 주고 빛을 주어 그 어데서나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게 하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이 우리의 가공공업을 힘있게 떠밀어 기계의 대군단이 춤을 추게 하고 농촌의 종합적기계화가 더 아름다운 미래를 노래부르게 하자!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워 우리의 근로자들이 사랑의 집, 행복의 요람에서 삶의 노래를 한껏 부르며 500만톤의 물고기를 푸짐히 받아안고 흐뭇하게 웃게 하자. 지리지 못살고 굶주리며 나라도 집도 없이 떠돌던 지난날 생각에 감사의 눈물을 더욱 뜨겁게 흘리게 하자.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해빛을 안고 1970년대에 찬란하게 꽃피난 우리의 문학예술을 더 풍만하고 다양한 화원으로 꾸려가자. 주체의 문학예술을 누리에 떨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지식인화의 대진군길에 박차를 가하자!

이 하늘 이 땅에 은혜로운 태양이 빛나고 향도의 해발이 천년 미래를 밝히거니, 우리가 갈길은 환하고 우리의 힘은 백배하여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이 기쁨, 이 영광을 만대에 떨쳐나갈 때는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이끄는 조국이며, 인민이며, 한없이 은혜롭고 따사로운 그 손길을 따라 더 높이 날아오르자!

그 해빛 그 손길이 있어 꽃피는 조선이며! 만발하라, 번영하라, 주체의 화원이여!

위대한 주체사상

마케레

그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라
가장 존경하는 수령님
가장 자애로우신 수령님
김일성원수님 계시여라

세계가 그이를 알고있어라
세계가 그이를 칭송하노라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그이를
세계가 우러르노라

주체사상은
국경과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진정 크낙한 힘 안겨주나니

일어나라 인민들이여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 가로막지 못하리
우리는 오직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자기의 생활을 건설하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힘 다하여 주체사상 배우렵니다
위대한 수령님 만세!
주체사상 만세!

-필자는 탄자니아 다르 에스살람종합대학
학생임-

야자수 설레이는곳에서

김윤일

검푸른 하늘아래, 야자수잎사이로
푸름히 밝아오는 아프리카 농촌의 아침
여윈 어린것을 품에 안은 어머니
창가에서 속삭이듯 속삭이듯 얘기한다
-애야, 오늘이 4월 15일이란다

까만 눈 들어 쳐다보는 어린것이야
어찌 다 알수 있으랴만
못내 기다려오던 오늘을 맞아
어머니는 창문을 연것이다

언제 한번 가본 일은 없어도
바로 이웃고장인듯 알고있어라
대양 건너 머나먼 아름다운 만경대
벼짚으로 이영 엮은 수수한 농가에서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것을-

얼마나 크나큰 힘을 지니셨기에
노예로 나고 죽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신것일가
예처럼 거칠고 황폐한 땅을
그처럼 농사가 잘되게 가꾸신것일가

꿈속에서도 눈물속에서도 디더보는 땅
먼곳인듯 바로 눈앞에서인듯
신기루처럼 일어솟는 황홀한 나라
아, 여기에도 락원이 세워진다면

농사하는 일이 고통 아닌 기쁨이 되고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이 근심없이 된다면
아껴두고 바랄것 무엇 있으랴
남편을 싸움터로 떠나보내고
우중충한 숲을 헤쳐 사막을 지나
먼고장으로 련락도 가는 어머니

어제는 미국놈 농장주의 가시돋친 채찍에
벌건 발이랑을 끌안고 말 한마디 못했어도
이제야 놈들이 흘기는 흰자위가 무어랴
순종하라 악을 쓰는 호령소리 무어랴
가슴속엔 신념이 끓고있거늘

황막한 농토에 어둠은 덮였어도
더는 외롭지 않구나
농사 지어 노는놈 배를 채우고
이삭 주어 모으느라 들길 헤매던 일
이 땅우에 다시는 있지 않으리

태양처럼 빛나시는 위대한 그분께서
침략자를 찾아 복수의 밤길을 가는
남편의 앞을 환히 밝혀주시거늘
원췌와 맞선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에서도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승리의 노래를 안겨주시거늘

아, 야자수 설레이는 하늘우에 찬란히 비쳐오는 햇빛
오늘은 바로 그 태양이 솟아오른 날
딸애를 안은 어머니 창가에 서있다
열풍의 나라에 없었던
따사로운 4월의 봄빛을 받으며

주절대는 강물소리, 설렁이는 야자잎들
불타는듯 노을이 구름떼를 가르는데
자꾸만 가슴이 더워져
그이 계시여 인류의 숨결 하나로 잇닿은
평양의 하늘 우리려 찾는다

- 경애하는 인민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이시여
주석의 안녕은
세계의 행복입니다, 영광입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버이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르렵니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를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빨치산들은 시종일관 인민을 위하여 싸웠으며 상하간에 서로 사랑하고 믿었으며 동지적의리와 혁명적우의로 굳게 뭉쳐있었습니다.》

저는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를 읽으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정녕 인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시고 인민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인민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온 세계가 전쟁속에 휘말려들어 피를 흘리며 아우성치고 사람마다 제갈 길을 잃고 남의 눈치를 살피며 갈팡질팡하는 이 동란의 때에 혁명하겠다는 인민들의 소박한 결의 하나를 믿으시고 사나운 력사의 난바다우에 억세게 노를 박여나가시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조국진군작전의 웅대한 구상을 하시면서도 《화전촌의 씨불임이며 잊지 못한 지붕이며 하는것들》을 심려하시는 인민의 아버지로 진실한 사건과 화폭속에서 훌륭히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에 진군하시어 새롭게 벌리실 정치활동과 군사작전을 짜시는 중대한 일을 보시면서도 가까운 목재관에서 도끼소리를 듣고 찾아온 로동자들을 만나보셨지만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으시어 경찰임무를 받고 국내에 갔다온 리성림을 만나십니다. 그때 리성림이 다망하신 장군님께 경찰보고만 올리면 자기의 임무가 끝난것으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성림이를 불러앉히시며 다음과 같이 다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중요치 않다고 하는것을 말하란말이요. 나한테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것이 따로 없소.》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성림으로부터 윤원구와 그 가족들의 참상에 대해서 들으시며 전체 조선 인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십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신사동마을의 강정섭의 집을 찾으시고 왜놈과 그 앞잡이들에 대한 율화

로 불도 때지 않고 령방에 그대로 누워있는 정섭이 어머니의 정상이 못내 가슴아프시여 친히 전령병을 시켜 불을 때게 하십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회양동부락을 지척에 두시고도 동네사람들에게 끼칠 폐를 생각하시어 자신께서는 물론 전부대를 산에서 숙영하도록 하십니다.

언제는 류치장에서 구원된 만호를 보시고 어혈에 두부가 좋다시며 로획물자공을 덜어주게 하시더니 언제는 울기강밀영에서 국내에 파견하는 대원에게 강정섭의 부모가 근심하겠는데 직접 아들의 편지를 받아다 전해주라고 일러주시는 아버지수령님.

인민을 생각하시고 인민을 위하시는 장군님의 사랑에는 정녕 끝이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7련대를 두지바위와 신개척방향으로 내보내시면서 인민들이 상할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민지대에서 큰 전투를 벌리지 말며 신개척 목재창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상하지 않게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립철이 있어 적의 기동무력이 쉽게 나타날수 있는 위험한 신사동지구에는 자신께서 직접 8련대와 경위중대 독립대대를 이끄시고 몸소 진출하려 하십니다. 이때 리철범이와 배정식이 한꺼번에 그이 앞에 나타나 간절히 만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넘치던 웃음을 거두시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혁명하러 나선 사람이니 호사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나는 우리 인민들에게로 가겠소. 고생속에 시들어가는 인민들의 쓰라린 마음을 두고 내 몸이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내 마음은 편할수 없소. 동무들, 부탁이요. 같이 갑시다…》

진정 우리의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십니다.

하기에 강정섭의 일가, 아니 이 땅의 모든 인민들은 꾸밈없이 말합니다. 소리높이 웨칩니다.

《…이런 화전촌에 버림받은 우리같은 불쌍한 인간들도 골고루 돌봐주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 기뻐서… 기뻐서…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살아갈수 있다는 힘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주책없이 읊니다. 장군님, 우리 장군님…》…

《장군님, 제 이제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다. 이 백발을 날리며 저 원수놈들에게 갚은 수모를 당해도 이 늙은것한테는 호소할데가 없어 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을 뵈온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다니 장군님, 부디 이 주책없는것을 용서하여주십시오.》…

《보아라. 우리 조선사람들에게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신다. 우리 조선사람들을 수모하던놈들은 다 여기 나서라! 어디 한번 맞서보자!》…

소설에서는 인민의 아들딸들인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우신 사랑의 이야기도 감명깊게 그리고있습니다.

기관총수인 한태혁은 이미 장군님의 슬하에서 어엿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으로 자랐으며 왜놈들과의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이미 곁을 떠난 전사이지만 그를 향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청봉속영지를 떠나는 지하공작조원들에게 한태혁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 한필네의 행처를 알아보도록 개별적부탁을 더 하십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대원들의 사격훈련을 지도하시면서도 한태혁을 회고하시고 스쳐지나는 노래소리를 들으시면서도 155절이나 되는 《세계혁명가》를 부르군하던 그를 회고하십니다. 뿐만아니라 그렇게 못잊으시던 필네를 만나시여서는 그에게 오빠를 내세워주지 못하심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오빠의 영웅적위훈들을 속속들이 다 알려주도록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십니다. ,

또한 리성림에 대한 장군님의 친아버이사랑은 혁명전사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서사시입니다.

리성림은 이미 좌경기회주의자인 림정호의 모해에 의해 《민생단》으로 몰렸던적이 있는 대원입니다. 그런 관계로 적지 않은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그를 색안경너머로 보군하며 특히 개별공작

임무수행에는 될수록 참가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그를 의심할것이 아니라 그에게 혁명의 담보, 혁명의 신임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나가십니다.

하기에 리성림은 지하공작중 체포되어 놈들의 악착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신임에 어긋남이 없이 《손바닥에 구멍이 뚫리는것이 아니라 심장에 구멍이 뚫려도》 두려움 없이 꾹꾹이 싸워이기는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하공작의 어려움속에서 그 누구의 부탁이 있는것도 아니건만 아버지장군님께서 몸소 쓰실 양은주전자와 네개의 잔을 구하여 밀영에 보냅니다.

바로 이렇듯 위대한 사랑은 깨끗한 충성을 낳는것입니다.

이외에도 강정섭이를 믿음직한 인민혁명군대원으로 키워내신 이야기도 울기강기습 매복진지에서 잠자는 대원들에게 돌려주신 아버지사랑, 그리고 열병으로 앓은 후남아주머니에게 베풀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친아버이사랑은 잊을수 없는것들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일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수령님께서서는 수령과 인민, 령도자와 혁명전사간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름답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를 읽으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은 수령님을 우러르는 숭고한 관계가 벌써 오래인 전통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언제나 필승불패라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민만큼 수령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안고 사는 가장 행복한 인민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만큼 아버지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인민이 이 세상에 더 없도록 자신의 일생을 바쳐가는것이 우리의 본분일것입니다.

저는 이 본분을 더욱 자각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변함없이 모시고 따를 마음을 다시금 굳게 다집니다.

청진시 경성군 김승구

지배인의 하루

김정남

1

이미 자정이 넘은 밤이었다.

기차에서 내린 홍성민지배인은 공장을 향해 걸어가고있었다. 밤교대 출선이 한창인 주물직장의 높다란 채광창에서 피어오르고있는 주황색불빛은 밤하늘을 온통 감빛으로 물들여놓았다.

어느덧 지배인은 대통로처럼 넓은 구내길에 들어섰다. 공장에 있을 때 어느 하루도 현장을 돌아보지 않는 날이 없는 지배인은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 의례히 공장을 돌아보곤한다. 이것은 지배인의 몸에 배인 관습이었다.

지배인은 조립직장에 들어섰다. 흐름선을 타고가는 제품들을 바라보는 지배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렇게 한동안 서있던 지배인은 다시 제관직장으로 발길을 옮기여놓았다.

지배인은 프레스조작공 석찬수가 창안중에 있던 프레스지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였다. 이 프레스지구가 완성되어가는것을 보고 출장을 떠났었지만 애초에 그 지구를 제작할 때부터 구구한 의견들이 많았었다. 30톤이 넘는 지구를 천정기중기로 들어올릴수 있겠는가도 문제였지만 그 지구를 받아물게 될 2천톤프레스가 제품을 찍어내는 순간의 충격과 흔들림을 이겨낼수 있겠는가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것이다.

제관직장은 고요로써 지배인을 맞이했다. 지금쯤 창안품을 놓고 사람들이 떠돌줄 알았는데...

아슬한 천정으로 쉬임없이 오가던 천정기중기도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으며 지심을 울리며 쿵쿵거리던 우람찬 프레스도 숨을 죽이고있다.

지배인은 물뿌린듯 조용한 제관직장안을 쪽 휘둘러보았다.

불시에 지배인의 뇌리에는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뒤늦게야 제관직장과 장비직장으로 통하는 문어구에 끌어다놓은 창안중이던 새 프레스지구를 발견했다.

(실래? ...)

지배인은 그쪽으로 다가갔다. 시험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구래여 지구를 프레스결에서 장비직장문어구로 끌어내가지 않았을것이다.

뒤집을 지고 지구주위를 두뼉두뼉 거닐고있는 지배인의 머리속에는 가슴을 서늘케 하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지구를 기중기로 들어올리지 못했을까)

지배인은 다시 프레스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혹시 프레스조작공들중에서 누구라도 만날수 있을가 해서였다.

그러나 조작공들은 이미 퇴근했었는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프레스결을 떠나 뒤집을 진채 흐름선이 있는곳으로 걸어가던 지배인은 천정우에서 들리는 인기척을 느끼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목을 젖히고 천정을 바라보았다.

천정기중기가름보가 가로건너간 지붕의 채광창으로는 밤노율이 비끼었는데 빨간 머리수건을 쓴 운전공처녀가 기중기전동기를 걸레로 닦고있었다.

지배인은 저 기중기운전공처녀에게라도 시험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싶었다. 그는 한자리에 서서 처녀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기대청소를 끝낸 운전공은 무엇때문인지 기중기문앞에 한참동안이나 오도카니 서있다가 사다리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리인순이었다. 땅우에 내려선 처녀는 가공흐름선이 길게 흘러간 옆으로 걸어나왔다. 그때야 지배인이 통로쪽에 뒤집을 지고 서있는것을 알아본 처녀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였다.

《동무는 왜 퇴근하지 않았소?》

《... ..》

처녀는 왜 그러는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인채 대답을 못했다. 항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줄 모르던 처녀였다.

지배인은 부채살같은 속눈썹을 아래로 내려간, 샘물처럼 정기있는 처녀의 눈에 서글픈 기색이 비껴있는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지배인은 저으기 심중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그러자 처녀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지, 전 기중기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동무가 기중기에서 내리다니?》

지배인은 놀랐다. 직장의 《하늘》을 제비처럼 날아다니면서 지구들을 프레스마다에 물어다주며 사랑을 받고있는 기중기운전공 인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어디로 가게 되었소?》

《아닙니다.》

운전공처녀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편리화를 신은 발끝으로 땅을 후벼파기만 했다. 이윽고 처녀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

《새 프레스지구를 들다가 그만…》

《그래서 기중기에서 내렸단말이요… 그래 동무는 어디서 일하게 했소?》

《소재창고원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처녀는 물기어린 눈을 천정기중기쪽으로 보냈다.

《음-》

지배인의 입에서는 신음소리 비슷한 목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다.

2

지배인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밝아오자 지배인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공장은 안개속에 묻혀있었다. 한쪽의 그림처럼 그렇듯 선명하고 아름답게 안겨오던 출하장도 시운전마당도 높다란 채광창들도 안개에 가리워 요람속에 잠들어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이 아침 안개에 묻혀있는 공장을 바라보는 지배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책상앞으로 다가간 지배인은 주련이 놓여있는 전화기들중에서 수화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뜻밖에도 그러나 가슴을 사뭇 기쁨으로 채워주는 딸애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저 지배인실… 아니 올 아버지 계시나요?》

《오! 순희냐? 내가 아버지다.》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딸애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는 이 순간 지배인은 집에는 들어가지 못할망정 출장을 마치고 밤차로 돌아왔다는것을 전화로 알려줄것을 그랬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집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딸애 순희는 인민학교 4학년생이다.

《아버지 언제 왔나요?》

《밤차로 왔다. 그동안 잘 있었니?》

《난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순희가 자는대두…》

지배인은 빙그레 웃으며 딸애의 응석을 받아주었다. 그러나 수화기의 진동판을 울리고 흘러나온 딸애의 말은 응석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어머니가 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 …》

지배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것 같았다. 수화기를 잡고 굳어진 그의 가슴은 느닷없이 두근

거리며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시교환과 련결된 수화기를 들었다.

《시병원에 대주시오.》

수화기를 귀에 댄채 한곳을 응시하고있는 지배인의 안색은 비구름처럼 흐려있었다.

시병원 교환수가 나왔다.

《어디를 찾으니까?》

이른아침 첫 가입자를 맞아주는 교환수의 목소리는 상냥스러웠다. 그런데 지배인의 입은 열여 불기라도 한듯 열리지 않았다.

어디를 찾아야 안해에 대해 알아볼수 있을것인가?

《빨리 말씀하세요.》

교환수의 재촉하는 목소리.

《됐소, 찾지 마시오.》

지배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뒤집을 지고 방안을 거닐었다.

(동통이 심했던 모양인가?)

안해는 몇해전부터 고질화된 담석증때문에 때로 발작적인 동통을 일으켜 고통을 겪고있었다. 입원까지 한것을 보면 고통이 심했던 모양이었다.

지배인은 가슴속에서 굼뜰거리는 불안과 흥분을 지그시 눌러버렸다.

…지배인은 곧장 제관직장사무실도 내려갔다.

직장장책상과 맞붙여놓은 긴책상우에는 회전그네처럼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어있는 쇠틀우에 두대의 전화기가 멍그렇게 올라앉았는데 그밑에 있는 채털이에서는 누구인가 채 비벼끄지 않은 담배꽁초가 타고있었다.

지배인은 직장장과 마주앉았다.

《직장장동무, 얼굴이 상했소. 일이 힘든게구만…》

지배인은 어딘가 수척해진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어려있는 송재역을 던지시 바라보았다.

《힘들기야 뭐 그저 그렇지요.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밤에 왔소.》

철판을 드다루는 제관작업의 소란스러운 소음속에 파묻히여 자연 성미마저 칼날처럼 예민해졌다는, 왁살스러운 송재역은 그답지 않게 탕개가 풀린 나무단처럼 맥살이 빠져있는것을 지배인은 느끼었다. 시험작업이 실패한것때문에 직장장도 어깨가 무거워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송재역이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지, 석찬수동무의 창안이 실패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했다고 애당초 승산이 보이지 않는걸 우기더니 나중엔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기중기운전공을 추동해서 시운전을 하다가 결국 실패했지요…》

《… … …》

《사실 그 창안품이야 새로 꾸린 공장에 넘겨주게 되었다니 이제야 그걸 맡아았고 씨름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배인은 자기의 생각과 너무도 판이한 송재익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된것이 놀라와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책상우에 올려놓고있던 두손을 마주잡고 툭툭 울렸다. 지배인의 붓으로 찍은듯한 눈섭꼬리가 들리면서 미간에는 주름살을 지어놓았다. 지배인은 송재익이 석찬수의 창안에 대하여 이런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서로 갈라져나가는 새 공장에 그 지표가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여 한시름을 놓은것처럼 생각하고있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송재익은 술진 눈섭 아래 어글어글한 눈을 쪼프리고 두툼한 입술을 썰그러뜨렸다.

마침내 지배인이 침묵을 깨뜨렸다.

《직장장동무, 석찬수동무의 창안품을 새 공장에 넘겨주게 된것은 사실이요. 그것때문에 이번에 부에서 회의가 있었소.

그렇다고 그 프레스지구를 중도반단해서야 되겠소. 우리가 하든 새 공장동무들이 하든 누구이든가 중당에는 해야만 하는것이 아니겠소.》

《누가 하든간에 성공만 하면 좋다는걸 모르나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송재익은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다.

《석찬수동무의 창안을 다시 추진시키면 안되겠소.》

《지배인동지, 저는 석찬수동무가 30톤이 되는 지구를 15톤천정기중기로 들수 있다고 주장한것이 사고를 친후에야 무모한 모험이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체를 프레스로 찍어낼 때 생기는 충격이 프레스기동을 꺾어놓지 않는다고 누가 기술적으로 담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거요?》

지배인의 목소리는 자연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직장장의 목소리도 어딘가 뚝뚝스러워졌다.

《석찬수동무는 휴가를 받고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를? ...》

지배인은 놀랐다.

(창안이 실패했는데 휴가라니?...)

지배인은 석찬수가 프레스지구를 완성하기 위해 애쓰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석찬수는 현장에서 침식을 하다싶이하면서 창안을 완성하기 위해 애써왔다.

(그런 동무가...)

지배인은 불시에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직장장동무, 석찬수동무가 휴가를 받게 된 리유는 뭐요?》

《별다른 사정은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눈귀를 쪼프린 지배인의 얼굴은 심각했다.

프레스지구를 2천톤프레스결에서 끌어내가고 그것을 들다가 사고를 친 기중기운전공 인순은 소재창고원으로 배치될것이라는 소문이 직장에 퍼진것은 시험작업이 실패한 그 다음날이었다.

밤이 늦었을 때 어깨가 축 처진 석찬수가 사무실에 나타났다. 둥그스름한 그의 얼굴은 눈에 뜨이게 수척해졌고 언제나 사색적이던 눈마저 피로가 실리어 정기가 없어보였다.

석찬수는 휴가신청서를 꺼내서 책상우에 놓았다.

《직장장동지, 휴가를 좀 주십시오.》

《휴가?! ...》

송재익은 석찬수에게 한마디 경고하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 일이 천만다행이요. 동무의 그 지구가 운전실 소재를 깔아뭉개놔오니망정이지 2천톤프레스를 받아놓았다면 어쩔번했소.》

《...》

책임을 묻는 시선으로 석찬수를 쳐다보는 송재익의 얼굴에는 야릇한 미소가 떠돌았다. 석찬수에게는 직장장의 그 미소가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을 뜨겁게 했다.

송재익은 그동안 창안으로 무리한 석찬수에게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것을 생각하고 휴가신청서에 수표를 해주었던것이다...

송재익은 지배인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할수 없었다. 휴가신청서에 수표를 해준후 그가 어떻게 지내고있는가를 알아보지 않았던것이다.

지배인이 화제를 돌리었다.

《인순동무를 소재창고원으로 배치한건 사고때문이지요?》

《다른 운전공들에게 주는 영향도 있고 해서 ...》

송재익은 말을 이을수 없었다. 전화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던것이다.

분공장에 나갔다가 방금 차를 타고 돌아온 기사장이 지배인에게 걸어온 전화였다. 지배인은 전화를 받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직장장동무, 그 프레스지구를 동무네 직장에서 성공하여 새 공장에 넘겨주면 얼마나 좋겠소.》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고 까닭없이 《회전전화기》를 돌려놓았다. 그는 빙그르 돌아가는 전화기를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다가

《직장장동무 창안품이라면서? 괜찮아!》 하고 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3

불별이 쟁글쟁글 내리쪼이는 거리로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리고있었다. 흥성민지배인은 승용차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에 눈길을 주고있었다. 지배인은 부에서 열렸던 회의정신에 립각하여 시급히 진척시켜야 할 일거리들을 처리하느라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시간을 낼수 있었다.

승용차가 네거리를 지났을 때였다.

지배인은 불시에 차를 멈춰세웠다.

《지배인동지, 시병원으로 곧바로 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전사가 얼굴을 돌리고 물었다. 운전사는 시병원으로 급히 가자고 재촉하던 지배인이 갑자기 차를 멈춰세우게 한것이 못내 의아스러웠던것이다.

《제관직장 석찬수동무네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가겠소.》

《그럼 차를 타고 가십시오.》

운전사는 지배인이 사택마을에 들어설 때에는 절대로 승용차를 타고 가는 일이 없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는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던것이다.

《아니요. 걸어가겠소. 동무는 공장으로 돌아 가요.》

지배인은 승용차 디딤판을 딛고 내려섰다...

석찬수네 집은 꽃벽돌로 울타리가 둘러있고 마당안에 수도가 놓여있었다.

마침 수도가에서 쑥갓을 씻고있던 석찬수의 어머니는 마당으로 들어서는 지배인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어이구 지배인동지가 우리 집엘...》

지배인은 어머니의 인사를 정중히 받고나서 퇴마루에 걸터앉았다.

《쑥갓을 어머니가 가꾸셨습니까?》

《우리 애가 쑥갓을 좋아하길래 터밭에 씨를 뿌렸더니... 어이구 이 정신 좀 보지요. 손님을 마루에 앉혀놓고...》

하더니 어머니는 방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지배인은 시원한 퇴마루가 좋다고 사양하며 방안으로 눈길을 던졌다.

장판바닥은 닭알노란자위처럼 알른알른했다. 한쪽벽에는 꽃바구니를 수놓은 눈같이 흰 해보가 걸렸다. 어머니는 방석을 내오고 부들부채까지 내왔다. 지배인은 어머니가 내온 방석을 한옆으로 밀어놓고 부들부채로 부채질을 하며 물었다.

《찬수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글쎄말입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바쁜때에 휴가를 받더니 노상 강가에만 나가있지를

않겠수다. 천상 낚시질이란걸 모르던 앤데 잔치를 할 때 휴가를 받았으면 좋으련만...》

《그래요. 잔치날은 받았습니까?》

《웬걸요. 아직 약혼식도 안했지요. 저희들간엔 약속이 있는 눈치가 보입디다만... 기술혁신을 성사하고 잔치를 하겠다던 애가 휴가를 받았으니 그 속을 알수가 있어야지요.》

《색시감은 어디에 있는 처녀입니까?》

《우리 애랑 한직장에서 일하는 기증기운전공인데 리인순이라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구만!》

지배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다.

《어머니는 좋은 며느리를 맞게 됐습니다. 그 처녀는 온 공장이 다 칭찬하는 좋은 처녀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여났다. 어머니의 미소어린 얼굴을 쳐다보는 지배인의 눈앞에는 불시에 물기어린 눈으로 기증기를 쳐다보던 인순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러한 불안감은 석찬수를 만나려고 집으로 찾아오기전부터 그의 가슴속을 지배하고있던 감정이였는지도 모른다.

석찬수가 인순이를 기증기에서 내리게 한것때문에 휴가를 받은것이 아닐가? 아니면 새 창안을 달가와하지 않는 직장장을 고깝게 생각하고 결김에 휴가를 받은것이 아닐가.

지배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혹시 그들의 사랑에 금이 가지 않았을가.

이런 위구심이 지배인의 마음속에서 머리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 불안감과 위구심을 애써 누르며 소탈한 음성으로 어머니와 마을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잔치날에 꼭 오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마당을 나섰다.

정오의 해빛은 더욱 따가운 불비를 퍼붓는다. 지배인은 거리로 걸어나왔다. 싱싱하던 수삼나무 잎마저 생기를 잃은듯 휘줄근해진 거리에는 바람한점 불지 않는데 젊은 녀인들이 꽃양산을 받고 걸어가고있었다.

지배인의 목덜미로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마치 초행길을 걷는 길손이 갈림길에 이르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망설일 때처럼 머뭇거리며 저 멀리 시병원이 있는 거리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동안이었을 뿐 지배인의 발걸음은 강변 유포도가 내다보이는 길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지배인은 뜨거운 모래불에 발자국을 찍으며 강상류쪽으로 올라갔다. 깎아세운듯한 벼랑밑을 감돌아흐른다고 하여 벼랑소라 부르는 소의 물이 여울을 이룬곳에는 몸뚱이가 거뭇하게 탄 아이들이 미역을 감고있었고 그 옷쪽에서는 바지가랭이

를 걷어올린 낚시꾼들이 물가에 들어서서 흘림낚시대를 물속에 후려던지고있었다. 깊이를 알수 없는 검푸른 물속으로 직사광이 굴절되어 령롱한 빛을 발산하고있는 벼랑소옆으로 발이랑처럼 누워있는 모래불에는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있고 그 모래불 옷쪽으로는 장마에 씻겨 떠내려온 조약돌과 돌맹이들이 깔려있는 버덩이 펼쳐졌다.

지배인은 푸른 소의 물가에 박혀있는 방울낚시대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고기가 물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지배인은 버덩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자갈밭우에 모로 누워서 강저편을 바라보고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석찬수였다. 지배인은 석찬수가 있는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때 물녘에서 방울소리가 울렸다.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어있던 벼랑소의 수면우로 울려 퍼지고있는 방울소리는 지배인의 가슴에 흥분의 파도를 일으켰다.

그는 물녘을 향해 돌아섰다.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는데 벌써 낚시대는 물위에 떠서 깊은곳으로 끌려가고있지 않는가.

지배인은 구울듯이 자갈밭을 달려 물속으로 침범침범 뛰어들어갔다.

낚시대를 잡자 목직한 느낌이 심장으로 마쳐온다. 마침내 물녘으로 끌려나온 고기는 비늘이 번쩍거리는 팔뚝처럼 통체가 실한 누치였다. 누치는 뜨거운 모래불우에서 아가미를 벌리고 뒤흔다.

지배인은 누치를 쳐들고 석찬수를 불렀다. 석찬수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시답지 않게 걸어왔다

《찬수동무, 낚시질을 나왔으면 낚시대를 지켜야지 외판데다 정신을 팔고있으면 고기를 잡나.》

석찬수는 두손을 마주잡고 어줍게 서있었다.

《데미가 어디 있소?》

《없습니다.》

《잘하오. 낚시꾼이 재미도 없다. 아주 훌륭한 낚시꾼이군...》

지배인은 능청스러운 눈길로 석찬수를 바라보고나서 버들가지를 꺾어 고기를 꿰놓았다. 그러고난 지배인은 젖은 옷을 짜서 돌맹이우에 널어놓고 석찬수가 누워있던곳으로 걸어갔다. 지배인은 자갈밭에 퍼져버리고 앉았다.

《찬수동무 담배가 있소? 내 담배는 죽탕이 똥소.》

《저도 담배는 다 피웠습니다.》

《낚시꾼은 고기가 안물리면 담배질로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지. 할수 없구만. 젖은 담배라도 말리워 피우는수밖에.》

석찬수가 모래불에 던져버린 담배를 가지러 물녘으로 달려내려갔다. 지배인은 아까부터 시선을 끝던 돌맹이우에 놓여있는 책을 들고 보았다. 《기계제작편람》 밑에는 접어놓은 도면도 있었다. 지배인은 그 도면을 펼쳐들고 훑어보았다.

(음 그렇겠지, 아무렴 기가 꺾일라구.)

석찬수가 젖은 담배를 찾아들고 올라왔다. 담배는 그야말로 죽탕이나 다름이 없었다. 지배인은 납작한 돌맹이우에 젖은 담배를 고르롭게 널어놓았다.

《잠간새 마를거요. 가치담배보다야 못하겠지. 그러나 〈차렷〉 담배보다 〈헤쳐갓〉 담배가 더 구수할 때가 있소. 지난 전쟁때 전호숙에서 뽕뽕초를 두툼하게 말아서 한모금씩 나누어 피우는 맛이란 참 기가 막히었지... 그런데 동무는 낚시질을 나오지 않고 생똥같은 일을 하러 나온것 같아.》

지배인은 실눈으로 석찬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자갈밭우에 모재비로 누우며 꺾어세운 한팔로 머리를 받쳤다.

《고기두 물리지 않구 해서...》

《고기가 안물릴수밖에, 낚시꾼이 낚시대를 지키지 않고 판전을 퍼놓고있으니까 고기란놈이 동무를 업수이 보고 낚시대를 끌고 도망질을 쳤지.》

능청스러운, 그러나 마음속을 환히 꿰뚫어보고 던지는 지배인의 말은 찬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석찬수는 무엇인가 모르게 가슴속을 헤쳐놓고싶은 생각이 불쑥 치솟아올랐다.

부지불식간에 석찬수의 입에서는 가슴에 맺혔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별수 있습니까. 그 프레스지구를 새 공장으로 이관하는거니까 모두 이북아들 취급을 하니까말입니다.》

《그렇다구 동무는 그 프레스지구를 걷어치우겠나?》

《지배인동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씨근거리며 내뱉는 석찬수의 어글어글한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남한테 넘겨주는것 가지구 씨름했댔자 제가 얻을건 무어 있습니까. 공연히 미움이나 받구...》

석찬수가 내뱉는 말은 지배인의 가슴을 아프게했다. 언제부터 이 청년에게 네것이나 내것이나 하는 리기적인 감정이 침습해들어왔는가. 바로 우리의 혁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그 《독해물》이 ...

지배인의 눈앞에는 직장장 송재억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 일군들의 태도가 순진하고 깨끗하던 이 청년을 어떻게 만들어놓았는가.

지배인은 석찬수의 눈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바로 새 프레스지구 창안문제는 성공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기술문제가 아니라 석찬수와 인순이의 문제 그리고 송재억이의 관점문제라는것을 지배인은 절절히 느끼고있다.

이윽고 지배인은 침통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래 동무는 프레스지구창안을 무엇때문에 하게 됐소… 나라에 리익을 주자는 립장이었소? 아니면 창안을 해서 표창이나 타자는 립장이었소?》

석찬수는 항변이라도 하듯 통명스럽게 한마디 내뱉었다

《나라에 리익을 주자는거지요.》

《아니요, 동무는 그게 아니었소. 표창이나 타자는 립장에 더 가까왔을게요. 그러니까 창안이 실패했지. 또 고난이 앞에 나서자 다른 공장에 넘겨줄 창안인데 뭐 힘들게 하겠는가고 쉽게 췌버리고 말았던게요…》

《……》

석찬수는 대답이 없다.

《이런 석찬수를 그렇게 똑똑한 인순이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의심스럽소. 용기도 없이 빈민이나 할줄 아는 동무같이 나약한 사람을 말ियो.》

어째선지 석찬수는 지배인의 말이 하나도 가슴 아프게 들리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뜨거웠다. 석찬수는 지배인에게 모든것을 실토했다.

그는 휴가를 받고 직장장 모르게 밤마다 장비직장에 나가서 프레스충격을 방지할 완충기부속을 가공하했는데 그제부터 장비직장에도 부하가 걸리어 기대를 빌려줄수 없게 되었다는것을 말했다.

찬수의 말을 듣고난 지배인이 돌맹이우에 놓여있는 도면에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저 도면이 완충기도면이요?》

《그 도면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4시에 장비직장에서 기술자들을 불러다놓고 도면합평회도 하고 아예 거기서 완충기생산을 물리도록 하잔말ियो.》

지배인의 말은 석찬수에게 큰힘을 안겨주었다. 가슴속에 신념의 기둥이 억세게 솟구쳐오르는 것이었다.

4

지배인은 병원마당으로 들어섰다. 병원까지 오는동안 지배인은 줄곧 미간으로 모아붙인 주름살이 한시도 가만있지 않고 굴뚝거렸다.

지배인이 입원실 접수과를 걸쳐 간호원이 내어주는 위생복을 걸치고 수술장문앞에 당도한것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 때 한초가 그렇듯 가슴을 태우며 안타깝게 흘러가는것을 일찌기 체험해보지 못했다는것을 후날에 가서야 회상하였다.

수술장문앞에는 위생복을 입은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가름한 녀의사가 서있었다. 그 녀의사는 지배인을 알아보았다.

《지배인동지, 수술을 방금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지배인동지가 오신 다음에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더 끌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위급했소?》

《발작적인 동통을 여러시간 겪었습니다, 의사협의회에서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들어가면 안되오?》

《이젠 안됩니다. 잠전에만 오셨더라도…》

녀의사는 지배인을 수술장안으로 들여놓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운 모양 애라는 시선을 떨구었다.

지배인은 말없이 수술장문앞에 섰다가 돌아섰다. 그는 여럿이 앉게 된 안락의자가 놓여있는 저쪽 창가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안락의자앞에는 흰보를 씌워놓은 원탁이 놓여있었다. 그 원탁우에는 어항이 놓여있었는데 꼬리가 부채살처럼 퍼진 세마리의 금붕어가 헤엄을 치고있었다. 지배인은 뒤집을 지고 방안을 거닐다가 원탁을 짚고 굳어졌다.

녀의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지배인동지, 수술은 오래 걸려야 끝날것 같습니다. 기술부원장선생이 수술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녀의사의 조언이라는것을 지배인은 알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환자가 견디어낼것 같소?》

《글쎄요. 부인은 의지가…》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지배인은 말을 중동무이하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는 두손으로 이마를 받쳐쥐고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녀의사도 문앞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는데 그린듯이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정숙이 깃들어있는 방안에서 움직이고있는것은 어항안의 금붕어뿐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이느뚱 창가로 흘러드는 햇빛도 저쪽으로 살그머니 옮겨앉았다. 그러나 수술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지배인은 손목시계를 내려다 보았다. 3시가 조금 지났다. 녀의사가 아까처럼 조용히 다가왔다.

《지배인동지, 수술은 잘될겁니다…》

《의사선생, 선생은 들어가볼수 있지 않소.》
녀의사는 눈을 깜박이며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결심한듯 수술장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갔다. 지배인의 시선은 녀의사가 열고 들어간 문에 못박혔다.

얼마후 문이 살며시 열리고 녀의사가 사뿐히 걸어나왔다.

《지배인동지, 안심하십시오. 혈압도 맥박도 모두 정상입니다.》

《의사선생 고맙소.》

또다시 녀의사는 수술실문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았고 지배인은 녀의사 모르게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석찬수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공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지배인은 선뜻 결심을 내릴수 없었다. 수술을 받고있는 안해를 수술장에 그대로 두고 차마 발걸음을 돌려세울수 없었다.

지배인은 생각에 잠겨 뒤짐을 지고 거닐었다.

안해의 생명을 소생시켜주고 보호해줄 인간생명의 기사인 의사들을 믿고 석찬수와 약속한 시간에 공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석찬수동무의 창안을 성공하는것은 그들의 사랑을 꽃피워주는것이고 조국의 재부를 창조하는 일이다. 프레스지구를 성공하여 새 공장에 넘겨주어야 한다.

안해는 수술장문앞에까지 왔다가 공장으로 돌아간 내 마음을 리해할것이다. 내가 견제 되는 이 하루의 발걸음이 조국의 재부를 창조하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나는 주저없이 공장으로 가야 한다.)

녀의사는 지배인의 마음을 읽은 모양 말없이 다가왔다.

《의사선생, 수술이 끝나면 공장에 전화를 걸어 주시오.》

지배인은 돌아서서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녀의사는 복도에서 지배인을 눈길로만 바라왔다.

지배인은 머리를 숙이고 병원마당으로 걸어나왔다.

《아버지!》

어디선가 문득 날아온 딸애의 기쁨에 넘쳐나는 정찬 목소리, 순희가 책가방을 들고 아버지의 품으로 안길듯이 쿵쿵 뛰어오고있다. 딸애를 지켜보는 지배인은 느닷없이 가슴이 뭉클하였다.

신통히도 어머니를 닮은 막내딸이다.

지배인은 집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순희를 무척 사랑했다. 안해는 그때문에 중학생이 될 아이가 아직도 웅석등이로 어리광을 부린다고 지청구를 하지만 지배인은 그 말을 귀가로 흘려보내

는것이였다. 딸은 대학에, 아들은 인민군대에서 복무하고있다.

《학교에서 바로 오는길이나?》

발을 동동 구르며 매달리던 순희는 머리를 까닥거렸다. 순희의 동그스름한 얼굴은 사과알처럼 빨갭게 익었는데 땀방울이 송알송알 맺혔다. 지배인은 손수건을 꺼내 땀방울을 씻어주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없어요?》

《오, 그럼 일없잖구.》

《어머니가 아버지 오신 담에 입원하시겠다고 했었어요.》

지배인은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오르며 눈앞에 안개가 끼는것 같았다.

《아버지, 난 어머니한테 가겠어요.》

《순희야, 애들은 입원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입원실 면회는 일요일에만 하게 되어있단다. 아버지랑 일요일에 어머니 면회하러 오자.》

순희의 얼굴은 서운한 기색이 어리더니 머루알처럼 반짝이던 눈은 금방 이슬로 젖었다.

병원문앞에까지 왔다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가다니.

순희는 사람들이 나들고있는 병원문앞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길을 돌리었다. 지배인은 딸애의 손을 잡고 큰길로 나왔다.

《순희야, 집으로 가거라. 아버지는 공장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 차 안타구 가시나요?》

《응, 지배인이라고 차만 타고 다니겠니.》

《아버지, 저녁에 오시겠어요?》

《오, 가마.》

《숙제를 해놓고 기다리겠어요. 혼자 있으면 밤에 무서워요.》

《무섭긴 중학생이 되겠는데.》

마침 정류소에 빠스가 와서 멎었다.

빠스문이 살롱 열리었다. 순희는 아버지와 헤어지는것이 못내 서운한듯 머뭇거리다가 빠스에 올랐다.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떠나가는 빠스의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소리치는 순희의 목소리가 지배인의 가슴을 파고드는것 같았다. 지배인은 손을 흔들어주고 공장을 향해 터벅터벅 발걸을 옮겨놓았다...

사무실로 들어선 지배인은 땀을 씻고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기술과에 대시오.》

수화기를 귀에 갖다댄 지배인은 책상우에 놓여있는 결재문건들을 훑어보고 원주필로 수표를 해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어떤 생각속에 파고들기도 했다.

이때 손기척소리가 울리더니 머리가 벗어지고 도수높은 안경을 낀 경리과장이 들어섰다. 지배인은 그에게 눈짓으로 앉으라는 말을 보내고 아직도 응답이 없는 전화기를 눌렀다놓았다. 전화가 이어졌다.

《기술과장동무요?… 4시에 프레스담당기사동무들을 데리고 장비직장으로 나와주시오… 제관직장 석찬수동무가 프레스충격을 방지할 도면을 내놓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지배인은 의자를 당겨놓고 앉은 다음 아직 엉거주춤하게 서있는 경리과장의 얼굴을 묻는듯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지배인동지, 쪽데기가 백립방쯤 필요한데 건설부지배인이 영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쪽데기? 후방과에서 쪽데기를 내갈 때에야 로동자동무들의 생활에 필요한거겠는데 그까짓 쪽데기가 뭐길래 안준단말이요. 쪽데기는 어디다 쓰자는거요?》

《승리산과수원에 울타리를 치자구…》

《사과가 벌써 먹게 되었소?》

《며칠후에 올라와를 따겠습니다. 그런데 청송 마을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아이들이라…》

지배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왔다갔다하였다. 그러다가 경리과장을 넋지시 쳐다보며 말했다.

《과장동무, 내 생각엔 부지배인동무가 쪽데기를 안준것이 잘한것 같소. 우리가 사과밭을 조성한건 다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였소… 난 지금 있는 울타리도 좀 더 낮았으면 하오.》

지배인의 일개움을 받은 경리과장은 더수기에 손을 가져다댔다. 지배인은 옷걸개에서 작업모를 벗겨 머리에 눌러썼다. 경리과장을 앞세우고 복도로 나온 지배인은 구내길로 나왔다. 구내길로는 제품들을 싣고 자동차들이 부지런히 오가고있었다.

지배인은 제관직장으로 들어섰다.

아슬한 채광창으로 해살이 비쳐들고있는 《하늘》로 천정기중기들이 소재를 물고 날아가고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높은 주행로를 날고있는 천정기중기가 2천톤프레스쪽으로 달려가고있다.

지배인은 문득 인순의 얼굴이 떠올랐다. 운전실 창문으로 얼굴을 빠금히 내밀고 프레스조작공들의 손짓과 눈짓에 따라 육중한 지구를 프레스본체우에 살그머니 놓아주던 모범운전공으로 사랑받던 인순이.

(그렇게 훌륭한 운전공을 소재창고원으로 돌려놓다니, 그 인순이가 저 기중기우에서 석찬수를 내려다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은 행복해할것인가.)

지배인은 이 순간에 석찬수가 프레스충격을 방지할 창안을 내놓았다는것을 인순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석찬수가 프레스충격을 방지할 창안을 내놓았다면 인순이가 얼마나 기뻐하랴.

지배인은 쇠그물로 울타리를 두른 소재창고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침 소재운반차가 지배인 앞으로 달려오고있었다.

소재운반차우에는 단발머리끝을 지진 머리우에 빨간 수건을 쓴 두 처녀가 나란히 앉아있었다. 운전대를 잡고있는 처녀옆에 앉은것이 인순이였다. 견습을 받고있는 모양이였다. 지배인걸을 지나가려던 운반차가 서서히 멎기 시작하더니 인순이가 사뿐히 뛰어내리며 머리를 다소곳이 숙여 인사를 했다.

《인순동무 힘들지 않소?》

《일없습니다.》

《일없다. 〈하늘〉을 날던 〈제비〉가 땅에 떨어졌는데 일없다. 〈제비〉는 〈하늘〉을 날아야지.》

《아이참 제가 어떻게 다시 〈하늘〉을 날아요.》

상그레 미소를 그리는 인순의 눈은 별처럼 빛을 뿌린다.

《인순동무, 찬수동무가 프레스충격을 방지할 완충기를 연구했소. 그런데도 〈하늘〉을 못날겠소.》

《네?!》

하고 반문하는 처녀의 눈은 이슬로 젖었다. 지배인은 가슴이 뭉클해오르며 눈굽이 뜨거워졌다.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지배인이 있는것이 아닌가!

《지배인동지, 저도 기중기로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해낼수 있구말구, 새 프레스지구를 다시 들어볼 용기가 있소?》

《지배인동지, 들겠습니다. 저는 그걸 타게할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5톤기중기옆에 있는 5톤 기중기가 동시에 힘을 쓰도록 해주십시오.》

《5톤기중기와 힘을 합친다. 그럴듯한 방안인것 같소. 기사동무들을 불러다놓고 토론해보지요.》

인순은 지배인의 정어린 눈길을 받으며 운반차에 올라탔다. 지배인은 소재운반차가 덜컥거리며 사라진후 가공흐름선이 길다랗게 뻗어있는곳으로 다가갔다. 흐름선에서 조금 떨어진곳에 송재역이가 두팔을 쳐들고 기묘한 손동작으로 기중기 운전공이 물어온 제품을 흐름선우에 놓아주고있었다.

송재역은 지배인을 보자 신호를 보내던 손을 내려우고 다가왔다.

《지배인동지, 병원에 가셨습니까? 지배인동지가 우리 직장에 와있는가고 전화가 여러번 왔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다가 잠깐 불일이 있어 지체했는데 그만 늦어졌댔소.》

《우린 지배인동지가 아주머니 입원했다는것을 모르고 어디에 가있는줄로만 생각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일없습니까?》

《별일 없을것 같소.》

지배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묵묵히 섰다가 천정기중기운전공을 쳐다보았다.

창문으로 얼굴을 가웃이 내밀고 신호를 기다리는 기중기운전공은 단발을 한 머리에 빨간 머리수건을 썼는데 애어려보였다.

《견습을 마치고 오늘 기대를 인계받은 동무입니다.》

《그렇소. 그래서 직장장동무가 신호를 하댔소.》

《뭐 그렇기야... 조립직장에서 조립품을 내라고 독촉을 불같이 해대니 어디 앉아있을수 있습니까.》

《직장장동무, 아침에 이야기가 있는 프레스지구에 대해 생각해보았소?》

송재억은 지배인의 묻는 말뜻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인차 대답을 할수 없었다. 오늘 그는 오전 내내 마음이 무거워 현장에 붙어있었다.

실패한 프레스지구시험을 다시 한다는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그런데다 그 지구를 새 공장으로 넘겨주게 된것이 확정되었는데 승산이 보이지도 않는 그 기술혁신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런때 창안자인 석찬수가 휴가를 받고 나오지 않는것이 다행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배인이 또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그것을 상기시키니 어떻게 립장을 밝혀야 할지 딱하기만 하였다.

송재억은 침묵을 지키었다. 지배인도 말없이 뒤짐을 지고 기중기운전실을 쳐다보고만 있다가 천정기중기가 쇠바줄고리를 달고 잉그르 달려간후 침묵을 깨뜨렸다.

《저 운전공동무가 인순동무를 대신한 셈이군.》

《인순동무한테서 견습을 받았습니까.》

《직장장동무, 인순동무와 석찬수동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소문은 났지만 아직 약혼식도 한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는 심각한 교혼을 찾았습니다. 인순동무는 다른 운전공들이 지구를 들 업두도 내지 못하는것을 자진해서 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석찬수의 요구를 접수하였던것입니다. 저는 사고를 친후에야 인순동무가

그 지구를 들겠다고 나서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인순동무가 석찬수동무를 사랑하기때문에 그 지구를 들겠다고 나섰다는거요? 그래서 결국 인순동무는 기중기에서 내려게 되고 석찬수동무는 휴가를 받고...》

지배인의 무거운 목소리는 직장장의 가슴을 두드리는데 같았다. 송재억은 할말이 없었다. 지배인이 어찌하여 창안을 실패한 석찬수에 대하여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가를 아직은 뜨거운 가슴으로 느낄수 없는 그였지만 자신이 무엇인가 생활의 궤도우에서 탈선되었다는 막연한 생각을 좇게 되었다.

지배인이 말을 이었다.

《직장장동무, 인순동무는 모범운전공이 아니요. 인순동무는 석찬수동무의 창안이 성공해야 가공품생산을 높일수 있다는것을 자각했기때문에 누구도 선뜻 들려고 하지 않는 그 지구를 들려고 한것이 아니겠소. 그 프레스지구를 새 공장에 넘겨주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동무들도 시험을 포기했을거요. 그러나 그 동무들은 비록 작은 창안이지만 그것이 가공품생산을 늘이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각했기때문에 기어이 성공하려 했던것이요. 인순동무는 기중기를 떠나게 된것이 가슴아파 지난밤에도 남이 보지 않는데서 기중기를 닦았소. 이런 동무가 사랑때문에 사고를 쳤다는것은 모를 일이요. 그 동무들이 서로 사랑하는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요. 로동속에서 혁신자로 사랑을 맺고 행복을 꽃피우는 그들의 기쁨속에 우리 일군들의 보람이 있는것이 아니겠소.》

지배인의 말은 송재억의 폐부를 찌르는것 같았다. 지배인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시침은 4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지배인은 묵묵히 서있는 직장장을 남겨놓고 기사들과 석찬수가 기다리고있는 장비직장으로 걸음을 옮겨놓았다.

5

지령총화가 방금 끝난 사무실안은 담배연기가 뽕얇게 떠돌았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날아들어온 하루살이들이 전등알밑에서 그물에 든 곤쟁이새끼들처럼 바글바글 끓는다.

송재억은 의자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책표지로 부채질을 하며 땀을 들이고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요란스럽게 울었다. 잠시도 조용히 앉아 사색할 여유를 주지 않는 사무실이였다.

송재억은 팔을 뻗쳐 회전그네우에서 수화기를 집어들고 귀에 가져다댔다.

기요원처녀가 지배인이 제관직장에 나와있지 않는가고 문의해온 전화였다.

수화기의 진동판을 울리는 기요원처녀의 덩벼치는듯한 목소리는 낮에 지배인을 찾을 때처럼 어딘가 모르게 떨려였는데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을 감촉하게 하였다.

《…지배인동지는 4시쯤해서 우리 직장에 왔다가 후로는 오지 않았소… 혹시 병원에서 전화가 온게 아니요?》

《병원에서 수술을 끝냈다고 지배인동지에게 알려드리라고 전화가 왔어요.》

《뭐요? 지배인동지가 낮에 병원에 갔었다고 했는데 …》

송재억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문가로 다가섰다. 그는 도저히 흥분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수술이 끝나지 않았는데 공장으로 되돌아왔단 말인가!)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여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시운전차들이 쏜살같이 내달리고있는 구내길 인도로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두 청년남녀가 무엇인가를 속삭이며 나란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따라 움직이였다.

문득 오늘날 지배인이 현장에서 인순이에 대하여 말하던것이 떠올랐다.

(지배인동지가 그들때문에… 석찬수동무와 인순동무도 이 밤을 저들처럼 혁신을 창조한 보람속에 어떻게 다정히 보내고있을가? 그런데 나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이기때문에 사고를 쳤다고 속단하지 않았는가.)

송재억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새겨졌다. 지배인이 직장으로 내려와 일깨워주던 말이 되살아났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자책에 잠겨여 창밖을 바라보는 송재억은 지배인이 석찬수를 위해 아직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는것도 모르고 현장에 있을것만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송재억은 책상앞으로 다가와 수화기를 들고 기요원실을 찾았다. 그사이에 혹시 지배인을 찾아 알렸는가고 물어보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아직도 알리지 못했다는 기요원처녀의 애라는 목소리가 가슴을 저미며 파고드는것 같았다.

그는 현장으로 나왔다. 송재억은 그 어떤 힘에 이끌리듯 프레스가 제품을 쿵쿵 찍어내고있는쪽으로 걸어갔다. 시험작업이 실패한 날 밤 송재억의 지시로 끌어다놓은 지구였다. 지구를 내려다보는 송재억은 석찬수가 휴가신청서를 들고와서 기중기운전공이 실수할수도 있지 않는가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깊은 굽으로 홀려들던 송재억의 생각은 뜻밖에 나타난 기술지도원으로 하여 중단되고말았다.

《직장장동무, 석찬수동무가 프레스충격을 방지할수 있는 완충기를 창안했습니다.》

《그 동무야 휴가를 받지 않았소.》

《글쎄말입니다. 지배인동지가 참가한 가운데 장비직장에서 석찬수동무의 도면합평이 있었는데 좋은 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지배인동지가 장비생산까지 물려주고 로동자동무들과 그걸 완성하고있습니다.》

송재억은 쇠뿔치로 한데 얻어맞은듯 어리뻑뻑하였다. 그는 장비직장으로 부리나케 달려들어갔다. 송재억은 작업대들이 주련이 놓여있는 한곳에 이르러 못박힌듯 굳어졌다. 지배인은 바이스에 물려있는 제품을 줄칼로 끌고있지 않는가. 석찬수도 지배인처럼 줄칼질을 하고있었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고있었다.

송재억의 가슴에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눈굽을 불로 지지는것 같았다.

송재억은 출장길에서 돌아온 지배인이 이 하루 무엇때문에 석찬수의 창안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저리도 애쓰고있는가를 비로소 느끼였다.

자신이 석찬수의 창안을 성공하여 새 공장에 넘겨주겠다는 립장에 서있었다면 지배인이 저렇듯 애쓰지 않아도 될것이였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건 남이 해야 할 일이건 그것이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일이라면 헌신성을 발휘하여 일하는 일군의 품모양에 머리가 숙어지는 송재억이였다.

《직장장동무, 마침 잘 왔소. 내 그렇지 않아도 동무를 부르려던 참이요. 석찬수동무가 어떤 일을 해놓았는가를 보요.》

줄칼질을 하고있던 지배인이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지배인동지, 다 알고 왔습니다.》

지배인은 송재억의 얼굴표정에서 그가 어떤 충동속에 이곳으로 달려왔으리라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지배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비끼였다.

《그럼소! 기쁜소식이란 원래 바람처럼 퍼져가는데 우리의 생활이지.》

《지배인동지, 병원해서 수술을 끝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송재억은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지배인동지, 어서 가십시오.》

지배인은 일순간 놀라는것 같더니 일손을 멈추고 눈이 둥그래서 바라보는 장비공들에게 수고하겠다는 말을 하고 문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지배인을 따라 나오던 송재억은 차를 부르겠다는 말을 던지고 장비직장사무실로 달음쳐갔다.

송재억이가 차고에 전화를 걸고 밖으로 나왔을 때 지배인은 가로등밑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지배인동지, 운전사가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큰길로 나가야겠구만.》

하고 지배인은 송재억을 쳐다보았는데 송재억은 그 눈길에 담긴 지배인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었다.

차가 올 때까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려는 지배인의 마음은 얼마나 웅심깊은 사랑으로 넘치는것이라!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직장장동무, 우리 집 사람은 가끔 직장장동무가 제대되어 운반공처녀를 사랑하던 일을 잊지 않고 나한테 말하군하오. 동무가 그 처녀와 약혼을 하고 혁신자가 되던 그때가 지금도 눈앞에 선하오. 그랬던 동무가 석찬수동무와 인순동무의

마음을 몰라주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소. 나는 동무가 석찬수동무의 기술혁신을 믿지 못하고 시험작업을 중도반단했어도 그닥 놀라지 않았을거요. 문제는 새 공장에 그 프레스지구를 넘겨주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시험작업을 중도반단한 직장장동무의 관점과 립장이 조국의 재부를 창조하는 일에 아주 유해롭기때문에 가슴이 아팠던것이요.》

《지배인동지, 제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들어가서 일하지 못하다나니까... 인순동무를 다시 기증기운전공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인순동무는 그 지구를 꼭 들거요.》

이윽고 지배인과 직장장이 걸어가는 앞으로 승용차가 전조등불빛을 휘저으며 달려왔다. 송재억은 지배인을 태운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진후에도 길거리에 서있었다.

우리의 청춘시절은...

리일복

산새 우짖는 깊은 산골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
언제 셋을 쌓는 사이에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소
낯선곳에 자리를 잡고 낯선곳을 찾아가며-

산악같은 언제에 출렁이며
바다같이 펼쳐지는 호수
내려쫓는 물살에 발전기의 동음이 울릴 때면
다시 떠났소
새 일터, 새 강물을 찾아...

찾아간곳마다 일떠세우는 언제들
거기 한알의 자갈
한줌의 세멘트를
우리의 마음으로 다져놓으며
수많은것을 남겨놓고 떠났소

아쉬움 없이 떠났소
쌓아올린 그 한치한치에
힘을
나이를
청춘을 새겨넣고-

멀리 떠나서도
마음속엔 언제나
그 언제들이 가까이 있는것 아니겠소
마치도 낱아키운 친혈육같아서
어쩌면 내 몸의 한부분같아서...

그렇소
우리는 자기 청춘의 하루하루를
그 언제들에 묻어두었소
귀중한 젊은시절의 해와 해들을
그 언제들속에 콩크리트로 굳혀놓았소

떠나온곳, 찾아온곳
일떠세웠고 쌓아올리는 그 언제들에
우리의 청춘시절은
끝고루 나누어져
세월이 가도 변치 않고 빛나고있소

그렇게 빛나고있소
위대한 수령님 위해
심장이 가장 불탄 청춘시절은
이 땅에 빛과 힘을 보태주며
조국을 받드는 기둥으로 솟아 빛나고있소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대한 송가

김응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이 류레없이 간고한 투쟁이었으나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동지애의 공산주의 적미풍을 높이 발양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새로 나온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 《동지애의 노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람들속에서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혁명적동지애에 대한 절절한 세계가 안겨오며 동지의 의리와 단결의 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는 노래이다. 그것은 곡과 함께 이 노래의 가사에 담겨진 깊은 세계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기때문이다.

그러면 이 가사가 이처럼 커다란 감동력을 가지고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이 가사가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모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사상감정을 통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무엇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높은 시적형상으로 밝혀준데 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심각한 극적체험을 거쳐 안겨오는 가사의 시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를 따라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 나선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향하였는가 하는것을 정서적으로 느끼게 된다.

열혈의 심장은 뛰고 불굴의 투지는 온몸에 넘치었으나 갈길을 몰라 곡절 많은 시련의 가시밭을 헤매며 헛되이 피를 흘린 이 나라 뜻있는 젊은이들, 그들은 민족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혁명의 진리, 진정한 삶의 길을 찾게 되었으며 어버이 그 품에서 참다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숭고한 세계를 알게 되었다.

혁명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다. 때문에 혁명가의 사랑은 무엇보다 동지애, 혁명적의리에서 가장 뜨겁게 나타나는것이다.

이러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동지애와 혁명적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며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가장 뜨겁게 받아안은 사람들은 우리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였다.

때문에 그들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으로 모시고 따르는것을 생활의 신조로, 삶의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것이다.

사랑과 충성으로 맺어진 수령과 전사의 관계,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마련하실수 있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발현이다. 이러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뭉쳐진 단결의 힘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수 있으며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그 빛을 뿌리며 우리들을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준다. 바로 이것이 가사에 관통하고있는 기본사상이다.

가사에서는 이러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 감정을 직설적으로가 아니라 높은 시적형상으로 잘 표현하고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아무런 설명없이 처음부터 축적된 감정을 내뿜는 첫구절, 특히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와 같은 표현의 반복은 1920년대말, 1930년대초의 첨예한 사회계급적관계와 절박한 혁명정세를 긴박한 정서속에서 느끼게 하면서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여도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따르겠다는 청년전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절절하게 안겨오게 하고있다. 또한 그것은 가사를 지배하고있는 장중하고 숭엄한 흠모의 정서적색깔을 규정하고있다.

가사에서 울려나오는 이 감정은 다음 구절에서 절절한 흠모의 감정과 융합되면서 가사의 기본사상을 더욱 강하게 부각하고있다.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리러보네

여기서 가사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그 신념, 그 의지, 그 념원이 어데 기초하고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기초하고있으며 거기서 생겨났음을 형상적으로 해명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동지의 사랑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체현하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가지고있는 높이와 뜨거움을 형상적으로 안겨오게 했을뿐아니라 거기에 기초한 청년전위들의 충성심의 열도를 또한 강조하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 다지는 그들의 맹세에 진실감을 더욱 부여해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현하신 혁명적 의리와 동지에 그리고 청년전위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은 2절에서 더욱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높이 승화시키고있다.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돌려주신 숭고한 사랑의 수많은 이야기를 상기하게 된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설로 전해지고 력사에 새겨진 그 많은 이야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과 혁명적의리를 가사에서는 돌우에 꽃을 피우는 정성, 죽어도 잃지 않는 생명을 준 사랑으로 노래하고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시적일반화이며 시적형상이다.

간결하고 함축된 형상을 생명으로 하는 가사문학에서 이러한 형상의 창조는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이러한 간결하고 함축된 형상은 가사의 정서를 더욱 높여주며 사상을 더욱 강조할수 있게 하는 전제를 지어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다음구절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리러보네

라고 노래하였을 때 우리는 심장으로 따라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리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이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혁명적 의리의 동지애의 세계, 단결의 힘을 높은 시적형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충실성교양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이 가사에 울리는 충성과 혁명적의리의 숭고한 사상감정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신념과 의지, 념원이었을뿐아니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따라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오늘 우리 인민의 주도적사상감정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사상감정을 통해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의 이 주도적감정을 소리높이 노래한 거기에 이 가사의 생명력이 있다.

이 노래는 당중앙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을 크게 고무할것이다.

가슴뜨겁게 울리는 노래

한찬보

예술영화 《조선의 별》에서 나오는 《동지애의 노래》 가사는 작품에 담겨진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사랑의 품에서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이를 단결의 유일중심으로 우러러모시고 그이를 따라 생사고락을 같이할 굳은 맹세가 절절한 생활감정으로 뜨겁게 울리고 있다.

그것은 이 가사의 사상주제가 높은 시적형상으로 노래된것으로 하여 주제적문학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가르치심을 훌륭하게 구현함으로써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작품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서는 가사문학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면서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고 가르쳐주었다.

아름답고 세련된 시형식에 사상적내용을 풍부히 담는것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가사를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바로 이 요구를 훌륭하게 구현한 작품이라고 본다.

이 가사에 반영된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이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베풀어주신 한없는 사랑과 혁명적의리로 이루어진 동지애에 대한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할 혁명동지들에 대한 사랑은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지니신 높으신 덕성에 의한것이며, 것처럼 귀중한 혁명적동지애는 누구를 위하여 바쳐져야 하는가를 밝혀주고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기서는 단순하고 무원칙한 결합과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 확고한 중심을 두고 단합된 사상의지적결정체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초기혁명활동시기혁명동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한별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갖은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용감히 싸웠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뭉친 힘 이것이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변치 않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낳게 하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볼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가사 네번째행에서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라고 한 표현이 이것을 잘 실증하고있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상을 형상적으로 잘 노래함으로써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안겨주신 혁명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식없이 진실하게 노래한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투쟁의 첫걸음에서부터 받아안은 그이의 뜨거운 동지애로 하여 변함이 없었다는 사상감정을 매질의 마지막행으로 승화시켜 그 감정을 집중시켜놓았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것은 또한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적형상으로 잘 안반침했기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고 해도 가사에서 형상의 옷을 입히지 못하면 색깔이 없고 따라서 빛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세련된 시적형상으로 그것을 잘 밝혀냈다.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이렇듯 가사의 사상이 우리 가슴에 절절히 안겨오는것은 철학적인 여운이 있게 고도로 세련된 시적형상의 노래를 펼쳐놓은데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 말은 새로 듣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가사에서는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쓰는 이 말을 그 위치와 시적

구도를 바꾸어 감정조직을 달리함으로써 평면적 감정을 입체적감정으로 승화시켰다.

이 가사의 형상적이채감은 또한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라고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흠모하며 그이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얼마나 귀중히 간직하고 있는가를 진실하게 노래한 집중적표현으로 된다. 사람에게 있어 정치적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들이였기에 혁명동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고 그것을 자기들의 첫째가는 임무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으로 보았고 조국의 운명이 그이께 달려있었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바쳐 받들어지키는것을 웅당한 일로 삼았던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변심 없는 확고한 신조였다.

이렇듯 가장 의의있는 크나큰 감정을 길지 않은 시행에 담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이 주도적 감정을 함축된 시행속에서 폭넓게 그리고 웅심깊게 노래하였다.

가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것이지만 이 노래에서 이 평범한 시어가 얼마나 새롭게 울려오고 뜻있게 안겨오는가!

그것은 시어가 이 가사의 사상정서적내용에 가장 알맞는 자리에 놓여있어 시적형상을 부각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통속적인 말을 정서적조명등으로 재치있게 비치여주었기때문에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집약된 감정으로 잘 보여줄수 있었다. 더우기 그 다음구절에 《가야 할 혁명의 길에》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인상을 아주 강하게 할수 있었다.

이렇듯 시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것이다.

이 가사는 1절에서 끌고오던 사상감정을 2절에서보다 고조시켰고 1절4행에서 쓴 구절을 2절4행에서도 반복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강조할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이 가사가 가슴뜨겁게 울려오는 또 다른 측면의 하나는 새로운 가사체의 문장이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종전의 가사체가 가지고있는 7.5조나 4.4조의 도식적틀을 떠나서 자유분방하게 노래하였다.

감정의 구속이 없이 큰 감정을 느낀바 그대로 심장으로 노래할 때에는 고루한 도식적틀은 스스로 물러서게 되는것이다. 이 가사는 내용이 숭엄하고 깊이있는것만큼 시형식에서도 시행들이 비교적 깊이있게 구사되었다.

이 가사에서는 음절수에 대한 개념과 묘사수법에서만 격식적틀을 마스것이 아니라 절구성에서나 절구성묘사방법에서도 혁신적면모를 보이고 있다.

종전의 가사를 보면 대체 첫 두줄에 정황묘사를 한 다음 3, 4행에서 기본내용이 서서히 시작되고 2절에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3절에서 결의를 표명하고 끝나는것과 같은 감정의 인위적조립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보는바와 같이 음절수의 구애나 감정의 인위적조립과 같은 흔적은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이 가사에서는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 1절 첫행에서부터 벌써 결의를 표명하면서 자기의 감정세계에 곧장 육박해 들어간다. 이 가사에서는 정황을 펼쳐놓고 긴 설명을 늘어놓을 자리를 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사에서 정황이 없이 긴박한 감정이 반영되는 경우의 문제는 호소적이며 친취적성격을 띄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동지애의 노래》에서는 종전에 흔히 쓰던 수법과는 달리 정서적시어로 폭넓은 감정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선율도 매우 숭엄하고 류창하게 흘러가며 그러면서도 전투적기백을 잘 살려주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사상적내용에 충실한 높은 형상의 가사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술영화 《조선의 별》에서 나오는 《동지애의 노래》의 가사는 내용과 형식을 잘 결합하고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은 경지에 올려세웠기때문에 명가사로 될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당이 제시해준 가사창작방법대로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적형상으로 잘 노래했기때문이다. 이 가사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그때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으나 그 사상, 그 신념은 곧 오늘 우리들의 사상감정이며 우리도 그들처럼 한마음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할 굳은 맹세를 안고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는것이다.

평양의 밤

홍창원

수도의 밤은

열정과 랑만

위훈과 혁신으로 잠못들어라

눈부신 장식등 불빛에 물든

보통강기슭 창광원 못가에 서니

물안개를 피워올리는 분수앞에

령롱한 무지개 비껴있다

신기하고 황홀하다, 밤무지개

분명 물방울과 빛의 조화인가

아니여라 그것은

인간의 위대한 힘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서사시가 펼친

아름다운 화폭...

무지개를 보니 생각이 깊어진다

너를 두고 조상들은

그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던가

무지와 몽매, 착취와 빈궁

그 모든것이 가셔질 애오라지 꿈을

그 아름다운 빛갈에 담아보며

때로 네 뿌리내린 박우물

한모금 마시면 100 년은 살고

그 한끝이 지붕에 와닿으면

밝은 세상 온다는 소망도 있어

아, 그것은 허황한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절절한 인민의 소원이었거니

하나

세월을 두고 이룰수 없던

가슴타는 숙망을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만

꿈아닌 현실로 받아안았고

하늘의 선녀들이 타고내린다는

그 무지개의 창조자로

세계를 변혁해가거니

만수대에술극장과 평양산원...

그 어디에 간들 이런 무지개가 없으랴

아, 평양이여

낮과 밤의 한계를 넘어

네 품에 밤에도 무지개 설 때

이다지도 가슴뜨거워웁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해빛이

그토록 은혜롭고 따사롭기때문!

진정 빛 없이는 무지개도 없듯이-

그때문에 내 지금

밤무지개에 넋을 잃고 온 세상에 웨친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 만경봉에서 잡으시던 칠색무지개를

이 땅우에 수천수만으로 펼쳐놓으시고

영광스런 당중앙은 벌써 그 한끝을

공산주의미래에로 잇대주고있어라!

삶에 대한 생각

송명근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어린 아들이
가슴에 혼장을 달고
렬사증을 받아안고
한자육, 한자육 연단앞으로 나선다

한목숨 용광로의 숨결을 지키고
영생의 길을 간 아버지
아, 영광의 이 시각만이라도
여기에 다시 불러보고싶어서나
온 장내에 울려퍼지는 맑은 목소리

-내 말을 들으시나요, 아버지!
원수님께서, 아버지원수님께서
만경대학원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장내엔 파도쳐가는 흐느낌소리
참고참았던 걱정이 일시에 터지는데
세차게 세차게 내 가슴벽을 두드린다
뜨거운 감격의 이슬에 젖어
저 어린 자식이 부르는 소리
-아버지! ...

아버지가 없으면
배움길도 웃음도 끝나던 몸부림이 아니다
저 목소리

가장 넓고 자애로운 수령님의 품을
친아버지로 부르며 더 가까이 안기는 저
목소리...

나도 자식을 둔 아버지인탓인가
이 세상엔
결을 떠난 아버지를 두고 슬픔을 잊은
자식들의 맑은 눈물이 있다는것을
저렇듯 자랑스레 울리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있다는것을
처음으로 느끼는 뜨거움이여

철부지 나의 어린것들도
감격의 맑은 이슬로
나를 부를수 있게 될것인가
속으로 외워본다, 아버지란 말
빛나는 생으로 자식들의 가슴에 새겨져야 할
그 말!

아, 혁명의 길에 한생이 다할 때
자식들을 더 가까이 말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 품에 안겨사는것은 얼마나 큰
우리의 행복인가
그 행복속에 눈을 감을수 있음은...
하나 혁명에 바친 값높은 삶 없이
내 어찌 수령님 가까이에 자식을 맡길수 있으랴

보통날에도 외 1편

윤좌근

저것 보오
해빛밝은 공장탁아소안에서
포동포동 젖살 오른
수많은 아기를 꽃포단우에 잠재우고

한 보모가 커다란 늪가마에
우유통을 기울이고있소
저 사람이

그전날
 앙상한 쑥대처럼 여윈
 내 가슴 허비며
 젖이 아닌 짙은물 흘리던
 나의 외동딸
 《부엌너》라고
 희한도 하지
 저기 추녀높은 공장대학 큰 방에선
 학교문전도 못가본
 그전날의 《외양쇠》
 나의 사위가
 지금 우렁우렁 교사를 흔들며
 온 세상 들어보라는듯
 학생들앞에서 연설을 한다오

뿐이겠소
 이제는 열도 넘는 우리 가정
 탁아소
 학교

공장...
 높은 추녀를 이어대며
 나라의 기둥감으로 우썅우썅 자라고있소

번성하는 대가정에서
 주름살을 펴며
 허리를 다시 세우며
 장수하는 이 칠손로친
 눈물 헤프다 나무람 마오

이 크나큰 행복
 산처럼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보통날에도
 줄창 눈물만 쏟는다오

짙은물은 끝이 있어도
 단눈물은 끝이 없는가보오!

땅의 노래

사람들은 나를 어머니라 하였다
 수수만년
 나의 품에서 솟아나는 단물을 마시며
 나의 품에서 낱알을 가꾸고 열매를 익혔기에...

하나 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물과 열매를 안겨주지 못했다
 나를 틀어쥐고 짓밟은 압제자들의 룡락으로
 사람들에게 한숨과 눈물만을 짜내게 하였다

내 아무리 가슴 밑바닥을 다 기울여
 달디단 젖물을 짜내도
 뼈마디마디에서
 진하디진한 기름을 짜내도
 사람들은 굶주리며 여미여만 잤다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사람들 팡팡 두드리는 원한의 주먹에
 내 가슴 열두갈래로 갈라지고
 피를 토하는 한탄속에
 나의 가슴 천갈래로 찢어졌다

아 그날이 아니었던들
 나도 사람들과 함께
 영영 한몸이 그대로
 원한의 무덤이 되고말았으리

인류의 구성,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1912년 4월 15일
 나도 인류와 함께
 비로소 새 목숨 받아안았던 날이여!

나의 가슴 한복판 만경대에서
그이께서 찍어가신 거룩하신 발자욱
삼가 품어안은 그날부터
영광의 날은 시작되었다

그이께서 만경봉에 오르내리시며
썰매바위, 군함바위, 씨름터에 찍어가신
그 어리신 발자욱은
암운에 휘말리는 누리에
혁명의 큰 길 닦아나가는
승고한 첫걸음으로 내 가슴에 소중히 놓여지고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에 남기신
그이의 뜻깊으신 자욱은
암운을 밀어내시며 새벽을 향하여
담차게 걸어가신 거룩한 로정으로
나의 가슴에 귀중히 간직했다

항일의 기치 날리시며
그이께서 수만리 고난의 행군길
장설우에 깊이 남기신 군화자욱은

압제자들을 쳐눕히시는 영광의 길로
나의 가슴 깊이깊이에 새기고

주체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공장 구내길에 포전길우에
수십만리로 이어지며 찍어가신 위대한 발자욱은
온 인류 행복의 상상봉
공산주의령마루에 잇닿아
나의 몸에 금빛으로 새겨졌다

아 사람들 나의 품 넓다 하여 대지라 부르고
나의 품 깊다 하여 지심천리라 하건만
날마다 순간의 휴식도 머무르심도 없이
그이께서 찍어가는 그 숭엄한 발자욱
이 한몸에 받아안기에는
내 가슴 너무나도 좁고 체소하거니

바라노라
해도 달도 못별들도
그이의 숭엄한 발자욱
나와 함께 영원히 받들어 빛내이고싶구나.

산같은 물이랑을 타고넘으며 외 1 편

허성훈

꽃피는 봄날, 살진 발이랑에
씨앗이 뿌려질 때
에헤라 우리는 바람에 밀려오는
산같은 물이랑을 타고넘으며
검푸른 바다물에 그물을 친다

형광등 환한 깊은 땅속에서
움쉴움쉴 암벽이 밀려갈 때
에헤라 우리는 천길물속을
박우물의 밑바닥처럼 내려다보며
바다의 보물을 배우에 쌓아올린다

소나기도 장마비도
사람들은 지붕밑에서 그을 때
에헤라 우리는 넓다란 갑판우에서
파도의 물갈기를 맞받아 맞으며
천리만리 배길을 가기가 좋더라

풍랑속에 봄겨울 수만리
달려온 배길이 멀고 사나와도
섬같은 모선과 불밝은 작업선에
노래는 즐겁고
웃음은 더 높거니

하늘에 치닿는 파도가
 하늘위에 들어올리는 배우에서
 가없는 대양을 한눈에 굽어보니
 물결이 제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바다는 우리가 밟고가는 사시절의 일터

그래서 좋더라, 바다가 좋더라
 땅위에선 한해농사 가을에 걸어들어도
 땅속에선 굴길을 열어 쇠돌을 캐어도
 봄이라 여름이라 한겨울이라
 바다에선 하루하루가 언제나 가을
 어데서나 멈춰서면 보화를 끌어올리거니

걸어도 흔들리는 물위에
 잠을 자도 흔들리는 물위에

생활의 모두를 물위에 두었기에
 파도는 우리 가슴에 넘치는 랑만의 노래
 바다는 우리 생활의 즐거운 무대

꽃피는 봄날 살진 발이랑에
 씨앗이 뿌려질 때
 에헤라 우리는 바람에 밀려오는
 산같은 물이랑을 타고넘으며
 물속에서 보화를 거둬들인다

형광등 환한 깊은 막장에서
 쇠돌을 캐며 굴길을 열어가다
 에헤라 우리는 망망한 배길을
 푸르른 물길과 구내길처럼 오가며
 바다에서 땅위에 재부를 쌓아간다

백번 믿어 좋아요

용케도 왔어요 중앙의 기자동무
 파도치고 안개끼는 외진 기슭에
 꾸려놓은 가공공장 이렇게 큰줄
 와보기전에야 뉘라서 믿겠나요

이것 좀 보세요 방금 온 소식
 도일보 신문에도 뚜렷이 찍혔어요
 우리 공장 식료품이 진미가 돈다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떠들썩 한대요

이런 때엔 참말이지 보람이 커요
 생물이 낚기전에 서둘러 열구자고
 왓작 끓으며 돌아치며 흘린 땀이
 보세요, 사람들의 웃음으로 퍼나요

한마리 두마리 너무도 소중해서
 한아름씩 두아름씩 정성을 쏟으며
 사람들의 웃는 얼굴 그려보아요
 그들마다 장수힘 솟아나게요

우리 일터 좋지만 더 좋게 해주자고
 연구사선생들도 왔다갔어요
 쏘아지는 얼곰고기, 가루고기, 통줄임...
 촬영소동무들도 찍어갔어요

밤낮으로 달려와 먼길이건만
 온 나라 곳곳이 이웃같이
 맛좋은 가공품 빨리 실어보내줘요
 손질하며 기차를 맞아들여요

그 누가 우리를 불러준적 없어도
 스스로가 큰살림의 머느리된 우리
 내 어머니 내 동생에게 차려주는 식상인데
 정성에야 아무렴 빈틈이 있겠나요

좋아요, 백번 믿어도 좋아요
 끼니마다 둘러앉을 나라의 큰상에
 수산물 식찬만은 그 언제나 푸짐하게
 여기에서 우리들이 차려보내는걸요.

청춘의 꿈을 안고

안근배

넓은 가슴

젊음에 끓는다

파도를 맞받아 뚝을 쌓으며

우리는 멀리도 왔다

어머니당의 부름을 안고

저 멀리 어선들의 배고동소리

사나운 물결우의 흰갈매기들

지금은 하늘도 바다도 아득한 이곳에

개척자의 첫걸음을 우리가 걷는다

뻗어가는 뚝우에 청춘의 자욱을 남기며

희망찬 청춘 우리 서로

아침노을 비껴오는 대학의 창가에서

첫인사를 나누며 만날수도 있었다

해빛밝은 조용한 방안

붉고푸른 신호등이 깜빡이는

자동화계기앞에 앉을수도 있었다

저마다 안고있던 학창시절의 그 꿈을

우리는 여기 하나로 안고 왔다

아 휘황하게 펼쳐진 설계도

당 제 6 차대회의 결정을 받아안을 때

조국의 한구간 여기 바다기슭으로

우리 마음 하나처럼 달려왔기에

정다웍다

아침마다 방글거리며 따라나서던

귀여운 동생들의 손길인양

물결우에 날아에는 갈매기여

좋아라

시원한 바다바람 들이마시며

걸어가는 뚝길이어

얼마나 크나큰 자부심이 차오르는것인가

검푸른 파도가 설레이는 여기

가없는 들판의 금나락이 설레일 때

뚝우에 우리의 발자욱은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부르는 새 농장지구의 이름을

우리는 나서자란 고향의 이름처럼 들으리

그렇구나 넓게 열린 길을 가는

꽃신 신은 아이들의 노래를 생각하며

우리 즐거이 감탕물을 밟아간다

바위를 까내는 섬들에 피여날

꽃들이 우리 가슴에 있다

랑만을 안고 사는 일터여

바다처럼 물결치는 가슴이어

당 6 차대회 높은 연단에서

수령님 가리키신 조국땅 새 한구간을

천년 물속에서 잠을 깨워 일떠세운다

아 이 땅에 태어난 청춘들

가슴에 품고있는 푸른 꿈을

태어나는 조국의 새땅으로 펼치며

우리 옮겨가는 발자욱

우리 쌓아가는 아득한 뚝이

사람들의 행복속엔 영원한 노래로 새겨지리라

나의 노래여

석광희

나의 노래여
와야 할 그곳에
우리는 왔구나
이 땅의 번영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창조와 로동으로 뚫는 채굴전선으로

참으로 용감하고 지혜롭고 강의한
로동의 대군단이 전진해가는
로천채굴장의 한복판에 서니
가슴은 왜 소년처럼 울렁이는가
주먹은 왜 저절로 쥐여지는가

아 마친령 즐기즐기에
장엄한 메아리를 일으키며
환영곡처럼 울리는 대발파소리도
산정길에 감도는 발파연기도
격전의 그날에 몸과 마음에 배인
포성과 초연처럼 여겨지나니

우리의 첫걸음을 땀곳이
다름아닌 격렬한 싸움터였기에
전화의 날에 청춘시절을 보낸
그곳과 방불한 바로 여기가
어찌 우리의 성미에 맞지 않으랴

오, 그 화선에서 인연을 맺은
나의 노래여 나의 노래여
너는 적의 화점 향해 달려간
이름 모를 전사의 넋이 되어 울렸고
랑만에 부푸는 꿈이 되어
청춘의 가슴에서 떠날줄 몰랐나니

이제 내 어떻게 하면
저 젊은 착압공의 뜨거운 숨결을
노래의 구절속에 부어줄것이나
진정 어떻게 하면
굴착기의 저 억척스러운 동음을

노래의 넋으로 옮겨담을것이나
하지만 이제나 그제나 노래짓기란
참으로 수월치가 앓구나
힘겨우면서도
희열에 넘치고
기쁨에 겨우면서도
단 한번도 가볍게 뗄수 없는
노래란 바로 이러한것이니

기쁨도 어려움도 우리함께
머나먼 길 걸어온 서른해는
길었던가 짧았던가
보람찬 그 길우에서 너와 나
다하지 못했던 그 목청 가다듬어
여기 채굴전선에서 높이리라

높이리라
조국의 고지에선
백만대오를 결전으로 부르던 노래
더 높이 울리리라
로동의 천만근위대를 불러
사회주의대전설전투를 힘차게 떠밀며

날개를 펴라
더 높은 한봉우리 넘어야 하거니
달려온 서른해 그 길에 이어
다시 서른해가 흐르고
또 흘러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샘솟는
나의 노래여

너와 나
고마운 당이 안겨준
영원한 청춘의 심장으로
언제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혁명을 노래하며
충성을 노래하며

청춘의 빛나는 모습으로

량덕모

달궂길 없이 뛴는
심장으로 부른다
서해벌 천리
동해벌 천리
그 어디서나 청춘의 이름으로
땅을 다루는 새 주인들아!

나는 열두삼천벌의 청년분조원
아직 한마을 이웃들도
다는 불러본 일 없지만
아버이수령님 가리키신
천오백만톤 풍년메부리를 내다보며
하늘처럼 담이 커져
소리쳐 부른다, 온 나라 벗들아!

우리는 오백만톤 황금날가리 솟아오르던
그해 봄에 가을에
이 땅에 태어난 동갑들
륙백만톤 칠백만톤 구백만톤...
높아가는 쌀더미에 받들리워
마음도 키도 부쩍 자란 새세대

수령님 삼복더위 두렁길 걸으실 때
푸른 파도 철썩이는 백사장에 덩굴며
수령님 눈바람에 옷자락 날리실 때
따스한 교실 너선생이 배워주는
벼알의 특성을 익혀온 우리

아, 아버지수령님 걸으시는 자옥우에
해마다 높아가는 난알산처럼
커가는 기쁨과 행복만을 받아안으며
꽃길을 걸어 맞이한 청춘시절
이제 두해째 땀 뿌린 대지우에
얼마나 황홀한 꿈이 펼쳐지느냐

만풍년의 금나락을 덧없으며 달려갈 십년

이 길에서 꽃피리라 우리의 희망, 우리의 행복
재령나무리 동갑들아
함주백리벌 벗들아
양덕이라 백두고원이라
온 나라 청년분조원들아

수령님 걸으시는 길옆의 이슬을
우리 앞서 털어 못드린다면
수령님 어깨우에 내리는 흰눈을
우리 먼저 막아서지 못한다면
청년분조원, 그 이름 누가 부르랴

깊은 통성은 하지 않아도 좋다
풍년장훈 알리는 신문과 방송보도로
그 어느 큰 모임의 연단에서 나누는 악수로
서로서로 알고남으리
땅에 바친 땀의 무게도
남모르는 위훈의 높이도
마음속의 불붙는 아름다움도

자, 어서 달려나가자!
하늘땅가득 기계소리 울리며
주체농법 이랑이랑 꽃피우며
흐르는 세월이 주는 나이가 아니라
해마다 더 큰 풍년기쁨
위대한 수령님께 함께 올리는 자랑으로
동갑이라 부를 때 참된 벗이 되리

오, 아버지 어머니 쌓아올린
오백만톤 쌀산우에서
삶의 첫자옥 땀 동갑세대들아
높이 받들어올리자, 천오백만톤 알곡고지를
대지에 뿌리박고 시대앞에 나선
청년분조원의 의무로
청춘의 빛나는 그 모습으로!

꽃피는 서수라

권래여

서수라

차 가고 배 가다 길이 끝난곳
서수라는 동해의 한끝
고개 넘어 파도 넘어
먼먼 조국의 한끝

인적이 드물어
눈덮인 고개길도 봄에야 열리고
철따라 피는 꽃들도
길손의 애무를 그리다가
저홀로 스러지곤했다는 바다가 외진고장

자식들 부모들 먼길 찾아오다
한숨짓고 돌아갔다는 진펄은 어데냐
사나운 파도 닳줄을 끊어갔다는
벼랑끝이 포구는 어디메냐

가는이는 있어도
오는이는 없었다는곳
읍에서도 칠십리 길쭉구 뚫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예까지 오실줄이야
꿈에나 생각했으랴

아 그날의 감격
못잊어 소리치며 솟았는가
네 가슴에 새겨진 비문을 읽으며
위대한 사랑의 자욱을 더듬나니

우리가 농촌에 나와
좋은 길로만 다니겠는가 하고 하시며

차를 타고 가다가 빠지면 걸어서라도
서수라 인민들에게 인사를 하고가자고
험한 길에 찾아오신 수령님 영상이여

바다 바다도
진주구슬 뿌리며 환호에 목메이고
아득한 초원도 소리치며 설레이며
그이의 품으로 달려왔나니

서수라 서수라
바다와 물을 한아름에 안겨주시고
아득한 초원 한대의 풀포기에서도
구름같은 양떼의 흐름을 보신 수령님
천지개벽의 새력사를 펼쳐주셨더라

그때 벌써
조국의 백년래일을 내다보시며
종합농장의 초행길에
그대를 세워주신 은혜로운 지점이어

그 지점에서
길과 마을은 끝났어도
공산주의에로 내려쳐가는
위대한 사랑의 길은 끝개 뻗었나니

조국의 북변 멀고멀어도
아버이품에서 꽃피는 서수라
그대의 꽃은 온 조국에 퍼져가고있어라
그대의 향기 온 강산에 불어오고있어라

계수원처녀

조잡지 구멍뚫리 입에 불던 어린시절
너도 갈매기 되어
한가슴에 껴안고싶던 바다
바다는 네 동심의 보금자리

새벽잠 깨워주는 갈매기소리에
엄마 찾으며 부엌으로 나가면
적최우에 생선굽던 냄새
손가락 감빨게 하던 그 부뚜막은
네 어린시절의 신비롭던 바다의 세계

하기에 너는
열손가락 셈세기는 못다채우던 그 시절에도
새우, 조개, 문어, 고래...
크고작은 그 이름 스스로 외우더니

철따라 오는 고기
물목따라 뭉친 고기
왕그물 터지도록 건져올 때면
작년 이때 끊이라고 적어넣으며
깎깎거리는 계수원처녀야

바다와 더불어 설레는 포구
포구의 달밤-
창창한 달빛에 웃음어린 얼굴들
그 얼굴에 눈이슬이 방울방울...

한뼘 손목이 시도록 고기푸던 손이건만
배아닌 비행기에서
과일상자를 내리우며
그리도 팔팔하던 북변아낙네들
이리도 말이 없단말이나
아직은 초여름

온 바다 온 포구가 너에게 쏘리누나
잡아온 고기 어서 퍼달라고
실어갈 고기 어서 실어달라고
바쁜통에 악수까지 청할 땐
손이 모자라하는 계수원처녀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젖어도
긋으나 맑으나 기쁨에 사는 보람
온 나라 아이들 생선구이 마주하고
손뼉치는 그 얼굴 안겨와
열두살 어릴적 제모습 그려보는 처녀야

살뜰한 그 마음이
수령님 다녀가신 포구를 지켜
조국에 바치는 바다의 재부를 늘어가거니

갈매기 갈매기 멀리 날아도
바다를 못떠나듯
참된 삶의 닻을 내린 고향의 포구에서
온 바다 온 조국을 껴안은 모습이어
배사장에 해당화는 한철 피어도
너 사철 웃는 서수라의 꽃이어!

잠 못드는 밤

북변의 바다가 덧저고리 입는 때건만
때아닌 과일향기에 취했는가
포구마을의 잠 못드는 밤이여

철따라 첫물과일 익을 때면
철늦은 어촌마을
어부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비행기까지 띄워주시는 어버이사랑이여

밤마다 돛부러진 고기배 기다리며
설움에 목메여 울던 바다가
간 세월 그 원한 어이 잊으랴

이 밤의 소리없는 그 눈이슬엔
너무도 큰 행복이 어리였구나

에서 평양은 멀어도
같은 시간에 해와 달을 맞듯이
오고가는 절기도 하나로 맞추시며
설레이는 과원의 향기를 그대로 부어주시는가

아 바다가 뒤집혀도 못잇을 사랑
수령님의 그 품에 우리 살기에

꽃피고 새가 우는 계절은 서로 달라도
위대한 사랑의 계절에
온 조국이 함께 누리는 행복이어

먼먼 북변의 외진 포구
서수라 서수라
멀어도 가까운 사랑
멀어도 가장 빨리
세상 만복을 받아 꽃피는것이구나

공산주의어로

여기서는 모든것이
《우리》와 《전체》로 불리운다
너와 내가 아니
하나 둘이 아니
우리와 전체 속에 모든 숨결이 합쳐진곳

가도가도 계선이 없는 푸른 초원은
풍요한 삶을 펼친 우리의 트랙
온 바다를 우리의 재부로 퍼올리는
천리어장은 우리의 갑판

끝없이 어울린 바다와 땅
초원과 호수, 공장과 마을
모든것을 하나의 지붕밑에 꽃피워가는
서수라

네가 지닌 그 높은 뜻을
무엇으로 다 재이라
진달래꽃그늘에 노래실고 흘러내리는
두만강 물소리에도
유격대원들의 발자욱 스며있는
저 벼랑바위 물소리에도
잊지 못할 사랑의 력사 깃들어있거니

서수라 너는
조국해방을 위한 작전도우에
수령님께서 그려넣으신 첫지점
이 나라 농장벌에
공산주의어로의 새싹을 키워주신 사랑의 땅

그 사랑속에 뿌리내려 얼마더냐
무성한 아지를 펼친 천지개벽의 강산이어
진보와 변영의 새길을 넓히며
인류의 청춘인 미래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친 서수라 서수라

네 품에서 올려가는
기계소리 배고동소리
환희의 웃음소리
그것은 온 나라에 퍼져가는
신념의 노래 확신의 메아리거니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행복한 이 땅
너 서수라와 함께
조국은 공산주의어로 가까이 가고있어라

고향땅

윤원삼

낮이면 작업반장 리윤복의 집은 늘 비어있었다. 토방우에 널어놓은 햇당콩마저 참새들이 헤집어 놓았으며 앞마당 고추밭에서는 빨강게 익은 고추가 주인의 손을 기다리다못해 저절로 떨어졌다.

그러나 요즘은 해저물도록 문들이 열려져있었다. 트랙에서는 땅파는 삽질소리가 그칠줄 모르더니 닭들이 드나들던 터밭에 싸리나무 울바자가 둘러쳐졌다.

군대에 나갔던 아들 리경호가 돌아온것이다. 지붕보다 낮을사한 텔레비존안테나도 그래서 더 높이 세워졌으며 부엌문앞에 있는 장작더미도 곱으로 커졌다.

한낮이었다. 문앞의 대돌까지 넓다란것으로 바뀌었으니 이제는 정말 일감이 없었다. 경호는 그래도 더 할일이 없을가싶어서 집주변을 돌아보았다. 기둥에는 마늘집들이 그전처럼 걸려있고 오래된 제비둥지도 그대로이다.

뒤울안 장독옆에는 참나무떡메가 세워져있었다. 아들이 군대에 나갈 때 어머니가 밥새껏 떡을 친 그 떡메는 바로 아버지가 해방후 첫해농사를 짓고 만든것이라 하였다.

어느덧 그 떡메가 아버지를 생각해 하었는데 마침 저 건너 구봉산숲속에서 어린시절을 더듬게 하는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철없던 그 시절...나이가 들어 뒤늦게 본 아들이어서 아버지는 경호를 무척도 사랑했다. 아버지는 짬만 있으면 아들의 말이 되어 온 방안을 돌아가곤했다. 경호는 그런 아버지를 더 좋아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농업협동조합이 갖 조직되었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경호는 밤밭갈이하는 아버지의 뒤를 쫓아다녔다. 갈아엎은 이랑우로 날아다니는 개똥벌레를 잡기도 하고 흙밭에 채 묻히지 않은 새초모가지를 뽑기도 하며...

《부엉 부엉...》

구봉산숲속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아버지, 저것두 참새가 우는거냐?》

경호는 아직 참새밖에 모르고있었다.

《허허... 그녀석, 저렇게 숲속에서 우는건 부엉새란다.》

《부엉새? 부엉새는 왜 우냐?》

《왜 우는가구? 응 그건말이다. 우리 마을에 농업협동조합이 생겼으니깐 좋아서 그러는거지... 이랴! 찌찌...》

아버지의 회초리는 밤을 휘저었고 황소는 네굽을 놓으며 보습을 끌었다.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이러던 아버지는 전쟁때 미국놈들의 폭탄 파편에 입은 상처가 갑자기 도지며 종시 세상을 떠나고야말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때묻은 보탑을 잡아야 했고 방울 달린 황소도 길들여야 했다.

저녁노을이 감빔으로 물든 어느날이었다. 마당에서 보탑을 수리하던 어머니는 자귀질이 생소해서인지 잠시 맥을 놓고 앉아있었다. 이때 구봉산 숲속에서 소쩍새가 울어댔다.

《소쩍 소쩍...》

《어머니, 오늘은 부엉새가 별나게 울지?》

어머니곁에서 땅바닥에 못질하며 장난쓰던 경호가 물었다.

《저건 소쩍새가 우는거란다.》

《소쩍새? 안야, 아버지는 저게서 우는걸 부엉새라 했어. 그리구 우리 마을에 협동조합이 생겨서 좋아하는거라 했어. 정말이야.》

경호는 아버지의 말이 더 옳다고 고집했다. 그러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는 갑자기 경호를 와락 끌어안으며 《경호야!》 하고 목메여 부르짖었다.

《그래 그래, 아버지 말이 맞는단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마구 쓰다듬었다.

오래동안 신고하며 어머니는 보탑을 수리하였다. 경호는 자귀질에 손을 다친 어머니가 어째서 그날밤에도 발으로 나갔는지 아직은 몰랐다.

이 세상에 슬픔이란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던 경호는 아버지가 보살펴주던 일을 어머니에게 줄라댔다.

《어머니, 나 뽕이 깎아줘, 영남이한테도 있어, 응 응...》

...경호는 철없던 그때를 잊으려고 소쩍새 우는 구봉산을 등지고 뚜벅뚜벅 앞마당으로 나왔다. 땀나뭇을 패려고 도끼를 찾아들었으나 철없이 조른 아들에게 장난감을 쥐여주던 어머니의 그 부은 손등이 또다시 눈앞에 매달린다. 불룩하게 형겼을 감은 어머니의 손등이 뽕이를 깎아서 아물던 상처가 더 도진듯...

그때 팥이를 받아쥐고 어머니앞에서 것처럼 좋아 팥이놀이를 하지 않았어도 경호의 마음이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것이었다.

점심참의 피약별에 땅바닥도 화독같이 달았다. 포전에 나간 어머니는 오늘따라 별로 늦어진다. 바람 한점 없는 신작로를 바라볼수록 지금도 어디선가 땀을 흘리며 일하고있을 어머니의 수고가 헤아려진다, 진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농사일로 늙어온 어머니였다...

경호는 돌이켜볼수록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싶었다. 도시에 배치받았으니 나서자란 농촌마을밖에 모르는 어머니를 그리로 모셔갈수 있는것이다. 휴가를 마치고 가면 다층주택 두칸짜리 집도 배정받는다. 아니, 어머니는 오히려 고추밭이 달린 단층집을 바랄지도 모른다. 어쨌든 소일거리삼아 공기가 신선한 공원관리원으로 일하게 하고 저녁이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극장에도 모셔가리라. 동물원이나 배놀이터에는 주로 일요일에 찾아가고... 아, 어머니는 얼마나 좋아하랴! 푸드득, 지붕을 덮은 밤나무에서 새무리가 날았다. 하늘로 먼 하늘로...

펼쳐진 도시생활의 아름다운 공상에 들떠서서 경호는 장작을 켰다.

머리우 허공중에서 도끼날이 번뜩이더니 방치같은 장작이 튀어오르며 제비들이 앉아있는 빨래줄을 넘어갔다.

《넌 또 쉬지 않는구나. 원 애두.》

어느새 프락에 들어선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으며 나무람했다. 평생 몸을 아끼지 않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변함없이 아들만 아껴주는 어머니였다.

《내 신발을 사왔는데 어디 좀 맞나 신어보렴.》

어머니는 방금 상점에서 사온 의혁구두를 내놓았다. 그리고 무릎꿇음새로 앉아서 새 구두를 신은 아들의 발을 여기저기 짚어보았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 마지막으로 신발을 사주었던 어머니는 다년간 군대에 복무한 아들의 발에 맞지 않으면 어쩌랴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몇년만에 처음으로 사온 그 신발은 군대에서 몰라보게 커진 경호의 발에 신통히도 꼭 맞았다.

《어머닌 정말 어쩌면 이렇게 꼭 맞는걸 사왔습니까?!》

《글쎄, 어디 좀 걸어보려무나.》

경호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토방앞을 왔다갔다했다. 락수물에 움푹움푹 패인 처마밑을 밟아서 이따금 발이 뒤쪽거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애 발이 아프겠구나?》

《일없어요. 이런데서 걸으니 그렇지 아마 시내에서 신고다니면 정말 편안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머니?》

경호는 다심한 어머니의 마음을 위안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시내에서?... 그래 그렇구말구.》

하머 일어나는 어머니의 얼굴은 갑자기 흐려졌다. 전쟁시기 적들의 기총탄에 관통상을 입었던 왼쪽어깨가 도지는줄로 알고 경호는 힘겨웁게 일어난 어머니를 다급히 부축해주었다.

《어머니 상처가 도지는게 아닙니까?》

《원, 상처는 무슨 상처? 아무렇지도 않으니 내 근심 말어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부엌쪽으로 걸어갔다. 경호는 무겁게 움직이는 어머니를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앞산너머에서 자동차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부엌문턱을 넘어서다 말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가만, 군에서 시추차를 보내준다더니 벌써 온 모양이다. 내 얼른 나갔다올게 먼저 점심을 먹어라. 그리고 좀 쉬려무나.》

어머니가 너무나 급히 돌아서서 경호는 물을 담은 버치에 띄워놓은 늪그릇의 랭국을 건하지도 못했다.

시간도 퍼그나 지났지만 어머니는 돌아올줄 모른다. 경호는 분명 무슨 일인가 하고있을 어머니를 돕지 못하는것이 마음에 켤기였다. 문을 열어놓고 책상앞에 마주앉은 경호는 새로 구한 《기계제작공학》을 펼치였으나 도무지 읽혀지지 않았다.

책상밑으로 닭이 기여들었다.

《후여, 이놈의 닭새끼...》

경호는 다리를 한번 들었다놓았다. 화닥닥 놀란 닭은 기겁해서 《꼬꼬댁》거리며 밖으로 달아났다.

한낮의 피약별에 참기 괴로왔던지 방금 쫓겨나갔던 닭은 그늘진 방안을 찾아 또다시 문턱우에 올라섰다. 닭은 대가리를 옆으로 돌리고 어머니가 안들어오는데 집안에만 앉아있겠느냐는듯 팔알같은 눈알을 굴리며 경호를 뵈히 올려다보았다. (허참, 그놈도 못마땅한게로군.)

경호는 밖으로 나갔다.

《골-골골...》

닭은 반기는듯 곱지도 못한 목청을 돋구며 뒤따라왔다.

경호가 마을을 가로질러 어머니가 넘어간 나지막한 앞산마루에 오른것은 얼마후였다.

시추차는 벌써 노루골로 올라가서 지하수를 찾아 땅속을 뚫고있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경호는 해빛이 재글거리는 논벌을 두루 살펴보았다. 어머니는 산아래 신작로 저쪽 두번째 논둑에서 혼자 삽질하고있었다. 논고가 있겠는데 왜 논

뚝을 자를가싶었지만 땀으로 물범벅이 되었을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저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 전쟁시기 입은 상처가 도질수 있다. 때로는 상처입은 어깨가 쭈서나서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하는 어머니이다. 지난 밤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작업복을 입던 어머니는 팔이 결려서 조심스레 팔놀림부터 했다. 경호는 그때 한참 주물러드렸던 일이 떠올라 아까 집에서 쉬지 않고 나가는것을 말리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경호가 길길이 자란 풀대들을 차며 산아래로 거의 내려가는데 갑자기 신작로결에서 땡이 날아났다.

《아이, 짹짜이야?》

문득 빨간 머리수건을 쓴 배나무집 신옥이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편지할 때마다 류다르게 자랑하던 고향처녀는 다섯살 우인 경호를 보자 조금전의 놀란 기색을 어느새 감추고 해반주그레 미소하며 부끄럼을 탔다.

《언제 가나요?》

처녀는 햇빛에 눈이 부셨는지 이마에 손그림자를 만들고 경호를 쳐다보았다.

《인차 떠나겠소.》

《어머니도 가시겠군요.》

《글쎄, 동무를 두고 먼저 가겠다 할는지?》

《아이참.》

처녀는 귀뿌리가 빨개져서 달아나려고 했다.

《어디로 가오?》

선옥은 우물에 설치한 소형양수기가 발동이 걸리지 않아 어머니를 찾아가는중이라 했다. 어머니는 한때 양수기운전공으로 일한적이 있었다.

《어머니에게?》

경호는 자기의 얼굴에 그늘을 짓는것으로서 어머니를 수고시키려는 선옥에게 불만을 보이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는걸.》

《내가 가보지, 자 가지요.》

군대에서 땅크를 몰았고 농촌지원때마다 농기계 다루는 일을 해서 양수기도 잘 아는 경호였다. 선옥은 기뻐서 방싯 웃었는데 순간의 그 예쁜 모습도 경호에게 어머니가 바라는대로 마음이 끌리게 했다. 뒤따라 얼마쯤 걸어가던 경호는 어머니를 빨리 들여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뚝 멈춰섰다.

《선옥동무, 내 이제 어머니를 들여보내고 가겠으니 좀 기다리요.》

경호는 두렁콩이 무성한 논쪽에 올라섰다. 메뚜기들이 투닥투닥 놀라서 달아났다.

어머니는 아래논물에 손을 잠그고있었는데 마치 이마를 짚고 어린 아들의 병을 걱정하던 그때처럼 수심에 잠겨있었다. 묻지 않아도 어머니가 논물의 온도를 가늠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리

고 어머니가 다급히 논두렁을 째며 물을 갈아주려고 하는것도 논물이 지나치게 따가워서 벼가 상하지 않게 하자는것이리라. 순간 경호는 시추차를 길안내하고 돌아가던참에 논물온도를 버릇처럼 짚어보고 가슴이 철렁했을 어머니의 심정이 헤아려졌다.

어머니는 물속의 벼가 더위에 잘못될가보아 짧은 점심참의 한때마저 잇고 곡식을 다루고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진 경호는 저도모르게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늙지 말아야겠는데...》

사실 그렇듯 성실하고 근면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일하여 한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어머니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경호는 몇해전 물난동뚝을 몸으로 막던 그때의 젊은 어머니가 그리워졌고 그럴수록 어머니를 아끼고싶어졌다.

경호는 그대로 선채 어머니의 얼굴에서 시선을 땔줄 몰랐다.

《아니, 너 무슨 일이 있었니? ...》

우두커니 서있는 아들을 뒤미처 발견한 어머니는 놀랍게 두눈을 치떴다.

그바람에 경호는 어머니걱정으로 자기의 얼굴이 흐려있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사랑깊은 어머니의 섬세한 눈길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조금도 감출수가 없다.

경호는 인차 밝은 기색을 띠우며 그러나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이 담긴 절절한 음성으로 말했다.

《삼을 주십시오.》

어머니의 의아해하던 표정은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원 참, 그래서 나왔니? 애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들어가거라, 더위 먹겠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에 돌친 땀을 걱정하며 수건을 내밀었다.

경호는 수건보다 어머니가 잡고있는 삽자루를 쥐였다.

《애두 다 됐다는데두 그러는구나.》

삽은 서로 들어가라고 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손에 잡혀 왔다갔다했다.

이럴때 강냉이밭머리에서 선옥이가 나타났다. 경호를 기다리다못해 다시 찾아온 그는 어머니를 보자 무뚝 멈춰섰다. 선옥은 경호를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돌아서는것이였다.

선옥이가 사라지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지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뭐 그저...》

경호는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또 그리로 올라갈것 같아서 이렇게 얼버무렸다.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혹시 양수기가 고장나서 그러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하며 어머니는 손을 씻었다. 선옥이한테 찾아가보려고 서두는것이였다.

《어머니, 사실은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올라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여기로 왔니?》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삽자루를 쥐고 서있는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논둑에서 나가려고 했다. 양수기 있는대로 가서 손에 기름을 묻힐것이며 또 일에 파묻힐 어머니였다.

《어머니, 농장일도 중요하지만 몸도 좀 돌봐야 할게 아닙니까?》

경호가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막아나섰다. 좁은 논둑우에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섰다. 서로 말이 없었다.

이윽하여 어머니의 입이 무겁게 열려지면서 혼자소리같은 매우 실망어린 음성이 띠엹띠엹 흘러나왔다.

《넌 군대복무를 헛바쳤구나.》

어머니는 아들 먼저 골짜기를 따라 양수기 있는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끌려가듯 말없이 따라서는 경호의 마음은 안타까웠다. 아들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는 어머니여서...

터벅터벅 따라갈수록 아들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것만싶었다. 경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늘따라 더 늙어보이는 어머니의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기나긴 여러해동안 먼저 간 아버지의 몫까지 다하여 사랑을 부어준 어머니였다. 아들의 얼굴색을 살펴보며 구미를 걱정해주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어서 비구름이 가실줄 모르는 장마철에는 허리를 치는 수성천 흙탕물을 건너 학교까지 업어주곤하였다. 오금이 결리도록 밭이랑을 탔으나 해저물어 집에 들어와서도 짧은 여름밤을 지새우며 장난에 치여 어지럽힌 아들의 옷을 빨아주곤했었다...

《어머니, 제가 할테니 내려가십시오.》

어느새 뒤따라선 경호는 진정에 넘쳐 말했다.

이전같으면 더위를 걱정해서도 일하겠다는 아들을 엄하게 굴어서 돌려보냈을 어머니였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원 녀석두, 아들이 제 에미속을 그렇게 몰라주다니?》

분명 바람결에 들려온 그 소리에 경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머니를 아끼는 아들의 심정

을 모를리 없건만 저렇듯 노엽게 말할줄은 몰랐다.

그래서 제 마음을 터놓고싶었는데 어머니는 묵묵히 개울을 건너가고있었다.

절버덕 절버덕... 또 언덕으로 올라가며 풀대를 찬다. 좌르륵 좌르륵... 어머니의 무거워진 발걸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은 별로 뒤숭숭해진다.

어머니는 혹시 이 아들이 알곡생산과 관련되는 작업반일을 중히 여기지 못한다고, 나라일에 전심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그런 아들로 준비되지 못하게라고 노여워하는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나온 긴긴 세월 아들에게 바쳐온 사랑이 버림을 받은것처럼 생각하는것이냐 아닌지... 순간 경호는 장작을 뿔다거나 올라자를 친 여려가지 집안일을 자리내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자기가 뉘우쳐지기도 했다.

문득 어머니는 지나칠수 없었는지 노루골더기 강냉이밭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분화장을 한듯 누르스레 피어난 개피리들이 가득찬 강냉이밭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이럴 때면 틀림없이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는것이다.

살아서 더 가꾸지 못해 애를 쓴 아버지를 잊지 못해하며 언제인가 어머니가 들려주었다. 년년이 쑥대가 무성했던 이곳에 밭을 일군것은 할아버지 때부터였다고.

해방전,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폐장감을 마련하려고 돌부리를 들춰내어 조를 심었다. 뜻이 이루어질것처럼 조이삭이 무르익은 가을이 다가왔다.

굶주리는 살림에도 한가닥 희망이 기쁨으로 피어나던 어느날, 불행은 너무나 뜻밖에 들이닥쳤다. 빗값으로 지주놈에게 난알과 함께 땅을 통채로 빼앗겼다.

하소할곳 없어서 할아버지는 여물어가는 조밭에 불을 질렀고 밭머리 저 돌배나무에 목을 매달고 세상을 하직했다.

노루골더기는 다시 묵어갔다. 누구도 소작을 부치지 않은것은 밭이 사람을 죽였다고, 세상을 하직한 할아버지를 가엾게 생각해서만 아니었다. 악독한 지주놈에게 항거해서였다.

해방이 되었다. 제땅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목매여죽고 제땅이 없어서 지주놈의 머슴살이로 늙어가던 아버지에게도 땅이 분여되었다.

땅, 그것을 소원의 전부로 여기고 농사, 그것을 기쁨과 슬픔의 전부로 여긴 아버지여서 그는 생의 목적인듯 땅과 농사일에 전심했고 그것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에 대를 두고 갚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분여받은 땅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알곡을 내기 위해 원한이 서렸던 이 밭에 소방울소리 울리며 보습날을 박았다. 땅을

주시고 농사일을 맡겨주시는 고마우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목이 메어 아버지는 애국미 헌납에 앞장섰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원한 스민 이 조밭을 일구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비발치듯 쏘아지는 폭탄속을 뚫고 전선원호미를 생산했고 이 마을에서 제일 선참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들어간 아버지였다. 전쟁도 승리했으니 고향땅을 잘 가꾸어보자고 어머니에게 늘 말하던 아버지...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여 밭에 나선 어머니, 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알곡생산으로 보답하려는 일념안고 살며 일하여왔다. 어머니가 농장원으로 부터 분조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자기 한몫의 고달픔이나 가정일같은것은 다 뒤로 미루더라도 전날의 남편이 그러했던것처럼 한알의 알곡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려고 여기에 강냉이를 심은것은 천리마운동이 일어나던 때였다.

고향땅은 이렇듯 부모들의 뜻을 담고 쏙대밭이 조밭으로 되고 강냉이밭이 풍년밭으로 바뀌었다. 어머니의 기쁨은 그래서 커졌다.

부모들의 뒤를 이을 아들이 있어서 그의 희망은 더 부풀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경호는 도시에 가게 되었다. 그 말을 하였을 때 어머니는 섭섭함을 금하지 못해하였으나 배치받은 일이고 또 거기에 가서도 얼마든지 나라에 이바지하는 일을 잘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굳이 탓하지 않았었다.

비록 농사를 짓지 못하지만 어디 가나 아버지처럼 일 잘하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경호는 그래서 시내에 있는 기계공장에 가서 일할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모서거리라 마음먹었다. 머리에서는 벌써 도시생활만 떠올랐으며 어머니마저 여기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사실 그래서 농장일보다 어머니를 더 걱정하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아마 이것이 불만했던 모양이다. 부모들이 그렇듯 심혈을 기울인 농사일에 어쩌면 그렇게 빨리 무관심해지는가고...

어머니를 노엽힌것이 피로와서 경호는 어머니앞서 골짜기를 따라올라갔다. 그리고 먼저 양수기에 손을 댔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기계소리는 지심을 울리며 골짜기에 가득찼다. 문득 나비 한마리가 날아왔다. 기계소리에 놀라서 날아왔겠지만 어쨌든 춤추며 지나가는듯했다.

어머니는 소리없이 웃고있었다. 기름한 얼굴에 기쁨이 한껏 어렸는데 이때의 어머니 모습은 더욱 젊어보였다.

경호는 고만일에 그렇듯 기뻐하는 어머니를 놀랍게 바라보았다. 했으나 어머니는 아들을 더욱 대견하게 여기며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우리 마을에 너같은 청년이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리고 어머니는 좁은 수로에 흘러가는 물을 따라 또 논으로 갔다.

골짜기우에 트랙토르가 서있었다. 어머니의 말이 자꾸 곱씹어진 경호는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걸음을 옮겼다.

트랙토르가 서있는 산기슭 밤나무밑에서는 선옥이네 아버지가 농민모로 부채질하며 앉아있었다. 아바이는 구멍이 송송한 런닝그드 거치장스려웠던지 가슴앞을 들춰놓고 건들건들 바람을 일구었다.

《임잔 덩지도 앓나? 그렇게 소매까지 꼭꼭 채워놓고도 참는게 용근!》

《뭐, 군대에서 버릇돼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바이는 모자채양아래에 이슬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한 경호의 얼굴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음, 군대물을 먹은 사람이 다르긴 다르군!》

아바이가 머리를 주억거리며 감탄했다. 경호는 그러는것이 먼구스러워서 아바이가 권하는 바위돌우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았는데 운전수가 나타났다.

방금 점심을 먹고 나왔는지 운전수는 지금도 입술이 젖어있었다.

《아, 이거 아직도 부리우지 않으면 어떻게 우?》

운전수는 불만스럽게 툄툴거렸다.

《이사람아, 전쟁때에도 밥먹는 시간은 있었다구.》

《아바이두, 또 옛날 소리우?》

《좌우간 좀 기다리라구. 오후에는 반장까지 나오니 잘될거네.》

반장이 나온다는바람에 운전수는 언제 불만을 가졌던가싶게 제법 빙글거리기까지 했다.

《사람두, 반장이 오면 일이 잘되는줄은 어떻게 아누? 자, 군대것도 맛보는점 담배나 한대 태우라구.》

아바이는 방금 경호가 준 담배를 껍채로 내밀었다. 운전수가 담배를 끄집어내며 《동무는 안 피우겠소?》했지만 경호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하고있었다.

이제 어머니가 와서 무슨 일을 할가싶어 경호는 개울 저쪽 다락밭에다 파는 우물에만 정신을 쏟고있었다. 막돌은 거기에 쓰는것이 틀림없었다.

다시 트랙토르적재함에 시선을 보낸 경호의 눈앞에는 사람들의 앞장에 서서 막돌을 드다루는

어머니가 보이는상싶었다. 경호는 앉아있을수 없었다.

《아바이, 막돌을 저쪽으로 가져가면 됩니까?》

돌을 쌓기 시작한 다락밭의 우물을 가리키며 경호가 일어났다.

놀란것은 아바이만은 아니였다. 담배불을 붙이려던 운전수의 손에서도 성냥가치가 그대로 타들어가고있었다.

《아, 이거 어찌자구 그러나? 반장이 알면 공수를 삭감하겠소.》

《그러지 마오. 누가 해도 마찬가지 아니요? 자어서 지워만 주오.》

경호가 운전수의 우스개말에 이렇게 대꾸하였으나 아바이는 더 놀랐다.

《허허? 혼자서 어떻게 나른다구 그러나? 엉?》

커다랗게 벌려진 아바이의 입에서 뽀겨져나오던 담배연기가 김빠진 입김처럼 나며말며 했지만 운전수는 벌써 적재함우에 올라가있었다.

어머니가 오기전에 해치우자고 마음먹으니 힘이 더 용솟았다. 닝큼, 어느새 막돌 하나를 옮겨놓았다.

막돌 다루는것쯤은 여반장같이 보이였다. 결불에 힘이 돌은 아바이도 손바닥에 마른침을 뱉었다.

《옛날 애국미를 바칠적에는 쌀가마니 두개도 목마래웠겠다, 젠장 나도 하나 집세.》

적재함결에서 등뼈가 도드라진 로인이 새우등을 하고 반을 준비를 하고있었다. 벌써부터 너무 힘주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있었다.

《아바이, 가마가 뚫으니 뚜껑이 뚫다고 일깨나치르겠소다?》

운전수가 말했다.

《암 여부가 있나. 어서 지우라구.》

《자, 이거 혁신이 단단히 일어난다. 어디 봅시다, 지겠는가?》

특별히 큰 돌맹이를 굴려와서 아바이의 잔등에 올려놓는척하며 운전수는 자기가 힘을 써 돌을 들고있었다. 했으나 아바이는 뽀돌은 돌맹이에 눌러워 아주 깔리울것처럼 오금을 꺾이우고있었다.

《합격되기는 틀렸으니 비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꽁, 허리부러지듯 경호가 둘러뚫다.

《저, 저, 저 사람이?!》

금시 놀리워서 일어나지 못하고있던 아바이가 그래도 기가 살아서 샷대질하며 뒤쫓아갔다.

갑자기 뒤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경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농장원들과 함께 돌아온 어머니는 이미 전부터 모든것을 바라보았는지 결사람이 다 후련해지게 즐거워했다.

아바이는 그것을 의아해하였다. 마치 손끝에 가시박힌다고 밤나무밑에도 가지 못하게 단속하던 아들이 무거운 돌맹이를 지고 휘청휘청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가 좋아서 떠드는가싶게 놀라와했다.

《선옥이 아버지가 불합격되다니요? 차라리 적재함에 올라가서 지워주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군요.》

어머니는 또다시 소리내여 웃었다. 그리고 적재함우에 올라갔다. 뒤이어 농장원들이 서로 앞을 다투며 잔등을 들이댔다.

《이런, 쌍둥이 에미도 지겠슴메?》

어머니는 나이가 그중 많아보이는 녀인에게 말했다.

《아무렴 반장과 같겠수? 자그만치 두개씩은 문제없수다.》

《저런, 쌍둥이 키우더니 막돌까지 쌍둥이를 찾슴메?》

일판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모두가 흥에 겨워 뛰다싶이 했다. 어머니는 연신 지워주었다. 젊음을 되찾은듯한 어머니의 일바람은 지어 경쾌하게까지 보이였다.

실로 저렇듯 흥겹게 일하는 어머니를 무슨 말로 만류하랴. 막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쇠붙이를 다루어도 떼여낼수 없겠다고 경호는 생각하였다.

하루일은 끝났다, 경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도시에 모셔가려던 자기의 꿈이 쉽게 이루어질수 없을것 같은 우려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은 그래서 복잡해졌다. 걸음도 무겁게 옮기는데 어스름이 깃들며 바람이 건들건들 불어왔다. 낮동안 불벌에 노그라졌던 강냉이들도 경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는듯 서느러이 와슬렁대였다. 그리고 유아등이 불야성을 이룬 논판에서는 개구리들의 여문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데 마치 무거운 생각에서 어서 뛰쳐나오라고 재촉하는듯만싶었다.

저 멀리 구봉산숲속에서 밤을 불러오는듯 부엉새가 목청을 돋구기 시작하자 구봉산마루에 둥근 달이 떠올랐다.

경호는 마을이 흰히 바라보이는 맞은편 고개마루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푸릿한 달빛이 흘러내리는 마을에서 구수스레한 밥짓는 냄새가 풍기는데 장난에 지친 아이들을 찾는 녀인들의 음성이 여기까지 들려온다. 주인을 찾는 염소들의 성급한 울음소리며 벌에서 들어오는 황소들의 빠른 걸음소리들로 마을은 더 활기를 띠는데 벌써 두

리반을 치운 집들에선 텔레비존화면들이 밝아졌다. 멧들어지게 목청을 뽑는 너가수의 아름다운 선율이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풀어주며 가슴에 흘러들었다.

그대로 락원이고 행복인 고향풍경은 볼수록 정다왔다.

어디선가 프락포르의 동음이 밤공기를 흔드는 데 축포의 꽃불인양 반디불이 포물선을 그었다. 캄캄한 밤 보초소에서 저 불씨를 보고 고향을 그리던 일이 떠오르자 경호는 이렇듯 삶이 약동하는 고향마을에서 떠나고싶은 마음이 없어지기도 했다.

하저늘 여기에 태를 묻고 여기서 기나긴 50여년간 기쁨과 슬픔의 전 일생을 바쳐오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랴. 이고장을 떠나게 될 어머니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경호는 산아래 개울물 맑은 빨래터며 겨우내 가마니를 짜던 선옥이네 집들을 애뜻하게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있니?》

문득 다정한 음성이 뒤를 돌아보게 하였다.

《어머니입니까? 어머니, 집집에 있는 저 복숭아나무들은 언제 심었습니까?》

경호는 마을이 과수원속에 있는것이 황홀해서 물었다.

《네가 군대 나간 그해부터였다. 그때 우리는 밤을 지새웠지.》

《정말 수고했습니다. 저 탁아소도 그때 지은것입니까?》

《원 애두, 넌 그저 해놓은것만 묻는구나. 참 경호야, 저 잔술발 이쪽 기슭에 유치원을 옮기면 어떨까? 분수도 만들고 곰이 씨름하는것 같은...》

《조각품도말입니까?》

《왜, 거짓말갈니?》

《아 아닙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그네도 만들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것구나!》

마주보는 어머니의 눈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생각깊게 실눈을 짓는 어머니의 꿈이 이렇듯 황홀할줄은 몰랐다. 도시 부럽지 않게,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여기서 보람을 창조하게...

《경호야, 아마 그렇게 하자면 오래 걸리겠지?》

한동안 혼자 생각하던 어머니가 물었다. 미처 타산해보지 못한 경호는 대답할수 없었다.

《내가 더 힘들어지기전에 해놓아야겠는데 다 꾸리지 못한 마을을 넘겨줄것 같아 걱정스럽구나.》

《어머니두 참, 그까짓것 모아붙어 하면 힘들게 됩니까?》

《그래두 쇠붙이를 다루는 사람이 더 많아야겠지?》

《수리반 사람들의 힘도 좀 빌어야지요 뭐.》

《글쎄, 다 바쁜 손들이 돼서 어떨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묵묵히 걸어갔다. 경호는 도와드릴수 없는것이 가슴아팠다.

어느새 며칠이 지나갔다. 경호가 떠날 때가 왔다. 저녁을 치른 경호는 옷방에서 손집을 꾸리었다. 이럴 때 선옥이가 렬차간에서 맛보라고 수박을 가져왔다.

《아침차로 간다지요?》

《역에 나올수 있겠소?》

처녀는 대답하기를 망설이다가 리해해달라는 듯 음성을 낮추어 말했다.

《양수기를 어떻게 하고요?》

경호는 얼굴이 뜨끈해졌다. 어색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다른 말을 찾을 때 마침 선옥의 아버지가 왔다. 그는 모기불이 피어오르는 토방에서 《작업반영농일지》를 정리하고있는 어머니곁에 와앉았다.

《경호가 래일 떠난다지?》

《그런가봐요.》

그리고 둘은 묵묵히 앉아있었다. 기둥에 내건 전등불밑에서 아바이는 부엉이 울어대는 먼산만 바라보고있었고 어머니는 모기불이 피는 화로안에 그림이나 그리는듯 부저가락질만 하고있었다.

《음, 경호가 래일 떠난단말이지?》

《... ..》

또다시 조용해지는데 아바이는 화로를 곁에 두고 성냥을 그어댔다. 이어 불을 부는듯 푸푸 담배연기만 쏘아댔다.

마을 웃쪽 우물집근처에서 개짖는 소리가 났다. 누구인가 몸을 씻는듯 물을 끼얹고있었다.

《옛날 애국미 바칠적에 경호 아버지 개잡던 생각이 나나?》

《.....》

《라두천(경호 아버지)이 그때 노루굴더기를 일구느라고 소한테 개마리깨나 맥였지!》

침묵, 고요... 이윽고 선옥 아버지가 다시 입을 뻗었다.

《별수 없지. 밤도 깊었는데 이젠 쉬라구.》

아바이의 발걸음소리가 대문밖으로 사라져갈 때 어머니는 옷방 사이문을 열었다. 다 꾸러진 아들의 트렁크를 바라보며 문설주에 의지해 서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전에없이 서운해보이였다. 흡사 눈물이 어린듯 어머니의 눈은 불빛에 이슬방울처럼 반짝이였다. 경호가 쳐다보자 어머니는 흐린 낮색을 감추려 함인지 인차 물러가버렸다.

경호는 짐을 꾸린 아들에게 밝은 빛을 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가슴에 맺혀들었다. 군대 나갈 때

도 어머니는 저러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갔을 때보다 더 서러워하는것만 같았다. 막상 이렇게 떠나갈 무렵이 다가오니 혼자 남는것이 외로와져서인가?

경호는 기뻐질 이 순간이 서운해져서 온밤 뜬 눈을 한채 캄캄한 천정만 바라보았다.

귀퉁귀퉁... 찌르륵찌르륵... 자정이 넘은 밤이라고 누가 정적만 깃들었다고 하랴. 밤의 장막속에서 이름모를 벌레들이 끝없이 들끓고있는데 어찌보면 그것은 한밤 지새이며 모대기는 자기의 마음속갈기도 했다.

아직도 잠들지 못하였는지 아래방에서 어머니도 궁싹거리고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면 그를 두고 품은 어제날의 자기 꿈이 다 허사로 되고말게라는 아쉬운 생각이 고개를 쳐서 또 자리를 고쳐누웠다. 어둠속에서 어머니는 맞은켄 사이벽에 세워놓은 밥상을 바라보았다.

거뭇한 룡판만 보이는 저 목란꽃무늬밥상은 아들이 제대되었다는 전보를 받은 다음 사온것이였다. 아들이 돌아오면 적적하던 이 집안에도 식구가 많아질것이어서 리운복은 우선 큰 밥상부터 장만했었다. 옛날 남편과 마주하던 밥상을 치우게 되는것이 마음 한구석을 서운하게 만들었지만 아들 머느리들이 있어 새 밥상을 쓰게 될 그날이 무척 기다려졌다.

어찌다가 집에 일찍 들어오면 자리에 누워서도 저 밥상에 그릇가지가 몇개 오를가 헤아려보기도 하였다. 아들 머느리가 좋아하는 각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놓아도 좁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흐뭇해하였지만 자기 국사발의 닭고기를 술갈로 떠서 머느리에게 넘겨주자면 팔이 모자랄게라고 은근히 걱정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들 몰래 많이 담아준 머느리 국사발의것도 되돌아오지 못할터이니 밥상이 큰것이 이런 때는 좋을것이다.

옛날처럼 부엌시중을 들 때가 다가올수록 리운복은 선옥이네 집을 불일없이 더 자주 찾아갔다. 끼니때면 다 모여앉은 그 집이 부러워서 우정 선옥이네 두리반에 끼여앉아 밥술을 들어보기도 했다. 두리반에 모여앉은 조무래기들을 볼수록 달덩이같은 선옥이가 탐나서 아들 자랑한적도 있었다.

어느날 윤복은 호박국을 좋아하는 선옥이를 생각해서 늪밥통을 사왔다. 셋이서 먹어도 비우지 못할 거기에 꾸집한 닭알호박국을 담고 노루풀더기에서 일하는 아들 머느리를 찾아가는 자기를 즐겨 상상해보았다. 그 옛날 애국미를 생산하던 남편에게 밥을 나른 그때처럼 새들이 우짖는 소나무밑에서 점심을 나누면 선밭도 저절로 넘어갈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의 기쁨을 새삼스레 느끼는 리운복이였다.

문득 옷방에서 성냥을 굶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담배를 피우고있는 아들을 감촉하니 마음은 더 허전해진다. 윤복은 그렇듯 아늑한 꿈을 불러일으킨 그러나 아들과 마주앉지 못할 그 밥상에서 눈길을 떨구고 바람벽쪽으로 돌아누웠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적막함이 견딜수 없이 엄습해왔다. 참으로 이 방 안에서 젊음을 불러오는 갓난애기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것일가. 그래도 윤복은 어린것을 위해 문턱을 높여야겠다고 판자를 마련할 생각까지 했었다.

하나 그것은 아들이 도시로 떠나가서 쓸데없는 몽상이 되고말것이다. 윤복은 또다시 지난날처럼 밤이면 울어대는 귀뚜라미를 동무해서 지낼수밖에...

문득 자신도모르게 옷방에 있는 아들도 들을수 있게 한숨소리를 낸 그는 흠칫 놀랐다.

원,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담? 령감이 있다면 욕을 하겠어. 윤복은 수령님의 은덕에 꼭 보답해달라고 부탁하며 자기의 손을 짹 그러쥐고 숨을 거둔 남편의 손길이 그때처럼 닿는것만 같았다. 그러자 고적하게 보이던 방안에서 그 옛날 남편과 함께 애국미를 넣을 가마니를 짜던 바디질소리가 들리는것 같기도 했고 전선원호미를 보낸 날 저녁이면 경호의 말이 되어 네발걸음으로 온 방안을 돌아가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남편의 그 심정이 헤아려져서 윤복은 이제 자기도 집을 떠난 아들앞에 떳떳하도록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리라 마음먹었고 아들 또한 제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주기를 바랬다. 아들이 비록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해도 도시에 가서 일할하면 이 윤복이로서는 더 바랄것이 없었다. 실로 제아버지가 그랬던것처럼 일을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기쁜소식이 들려온다면 늙지 않을것 같았고 힘든줄 모르며 일할것이다. 윤복이 이렇게 생각할 때 방안에서 아들이 번민하는듯 뒤흠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원 녀석두, 제 예미의 흐린 낯색을 언제 눈치챘누?)

윤복이 이러는데 옷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분명 자는게 틀림없다고 인정한 어머니는 혼자 느슨히 웃음지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만시름 다 가신듯 윤복이 웃는 얼굴을 한채 편히 잠들었으나 경호는 모르고있었다.

옷방에서 경호는 벌써 담배를 석대째 연거퍼 태우고있었다. 들이킬 때마다 담배불이 풍구질하는 숯불처럼 밝아졌다. 방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짧은 그 순간에도 돌아올 아들을 맞으려고 정성

들어 장판을 한 어머니의 손길이 땀겨와서 경호는 분명 잠들지 못하고있을 어머니의 마음이 더해져왔다. 양수장에서와 우물공사장, 마을이 바라보이는 고개마루에서의 어머니모습이 눈앞에 밝혀온다. 고향땅에 넋을 둔 어머니여서 그는 분명 아들이 떠나는것이 피로와서 모태기고있는 것이다.

귀퉁귀퉁...찌르륵찌르륵... 자연의 소요는 그칠줄 모르는데 아래방문이 살며시 열리었다. 아래방문이 닫기는 소리에 경호가 토방에 나섰을 때 어머니는 쪽대문을 열고있었다.

아들의 부름소리에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불일이 있어서 내 얼른 갔다오겠다. 어서 들어가 자거라.》

어머니의 음성이 명랑하게 들리어서 경호는 얼마간 마음을 놓았다.

시간이 흘렀으나 어머니는 들어오지 않았다. 어디로 나갔을가싶었는데 문득 《날이 별로 차지는구나.》하면서 노루골더기를 바라보던 초저녁의 어머니모습이 떠올랐다. 경호는 조용히 일어나서 필시 그리로 갔으리라 믿어지는 노루골더기 강냉이밭으로 나갔다.

달은 휘영청 밝았다.

마을을 지나 어느새 산마루에 올라선 경호는 숲을 이론듯 총총히 들어찬 노루골더기 강냉이밭 속에서 전지불을 발견하였다. 걸음을 다우쳐 그리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자리를 옮기고있었다. 다른 발머리에 이르러 또다시 전지불을 밝히었다. 순간 경호는 강냉이대에 걸려있는 습도계를 보았다. 그다음 《작업반영농일지》를 펼치고 습도계의 수자를 기록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언제인가, 자정이 넘는 한밤중에 경호는 《어머니, 오늘 노루골더기 강냉이를 몇개 발가보니 언청이가 더러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때 돈보기를 걸고 책을 보던 어머니는 그늘지는 경사면이고 습한 지대여서 그런다고 했다. 경호는 재차 물었다. 거기에 적응된 품종을 심지 않았는가하고... 어머니는 자책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대적특성에 맞는 품종을 심어야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지만 우리는 아직 노루골더기에 맞는 품종을 얻지 못했구나.》

어머니는 자책스민 목소리로 다음말을 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농사일에 대해서 그토록 심려하시는데 난 아직 그이께 기쁨 한번 드리지 못했구나...》

...지금 그때가 돌이켜진 경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소쩍새 우는 이 밤, 모든 농장원들이 다 깊은 잠에 취했을 이 시각에도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이슬을 차는 어머니였다!

아들에게 얹혀서 여생을 편안히 살려는 그런 세속적인 어머니가 아니었다.

경호는 뜨거웠던 것이 치밀어 눈을 습벅이는데 어머니는 생각깊게 땅을 짚어보고있었다. 걱정되어서인지 어머니는 슬며시 흙을 긁어 줌에 넣고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자기를 안아키운 어머니의 그 부드럽고 따스한 손에서 밤새 축축해진 흙을 바라보는 경호는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어머니는 벌써 고개너머로 사라져가고있다. 그러나 경호는 떠날수 없었다. 그 옛날 아버지가 충성다했고 뒤를 이어 어머니가 애써 가꿔온 이 땅과 헤어질수 없었다. 걸음도 조심스레, 경호는 미풍에 머리카락을 나뭇기며 살진 땅을 의미깊게 밟아본다.

문득 달이 구름속으로 들어갔다. 앞이 어두워지면서 노루골더기가 사라지는듯했다. 멀리 읍쪽에서 기적소리가 들려온다.

경호를 싣고 어디론가 멀리 사라지는것 같은 기적소리 ...

어느덧 마을에서 닳이 해를 친다. 경호는 시내물이 돌돌 흐르는 개울가를 천천히 걸어갔다. 늘실늘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거울같은 수면에 시선을 준 경호의 눈앞에는 어머니를 노엽히기도 했고 기쁘게도 만들었던 고향마을에서 있던 지난간 일들이 더듬어졌다.

아버이수령님께 기쁨 한번 드리지 못했다던 어머니의 말이 다시금 경호의 가슴을 두드렸다.

아! 과연 어머니가 일생을 다하여 줄곧 바라마지않는 행복은 무엇인가.

어머니의 행복은 고향땅을 잘 가꾸어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경호는 드디어 어머니를 가정에 들어앉히고 편안하게 잘 살피주는 그것이 아들의 의무가 아니라는것을 알아차렸다.

《소쩍 소쩍 ...》

달빛 밝은 숲속에서 소쩍새가 울었다.

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듯...

경호는 어째서인지 그것이 부엉새가 우는것처럼 들렸다.

조국을 안고 사는 사람들

-평양화력발전소를 찾아서-

조승찬

류달리 맑고 정가로운 날씨였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차갑다. 눈은 어디나 하얗게 덮여있고 봄은 아직 저 멀리에 있었다. 했어도 조국은 어디서나 들끓고있었다. 황철과 강선, 김책의 용해공들은 새해벽두부터 용광로, 해탄로, 용해로에 만부하를 걸었고 전기기관차는 무사고 주행의 자랑찬 기적소리를 높이고있다. 공장들에선 기계소리 드높고 전야마다에는 트랙트르들이 950만톤알곡고지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며 평방과 신의주, 함흥과 강계의 방직기들에서 문양 고운 천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린다.

높뛰는 숨결, 거세찬 맥박...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접한 조국은 이해에도 첫자국을 힘있게 떼고있었다.

우리가 평양화력발전소를 찾은것은 이무렵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력은 생산의 기본동력입니다. 전력생산을 빨리 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제대로 할수 있으며 새 전망기간의 높은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굴뚝에선 연기가 무럭무럭 솟구치고 웅장한 보이라와 타빈직장의 높은 벽체에는 전력생산을 높일데 대한 당의 힘찬 구호들이 나붙어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우리를 안내한 이곳 생산과지도원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력전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접한 크나큰 감격을 안고 새해벽두부터 기대마다 만부하를 걸고있습니다. 올해 1월달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나 높아진 전력생산계획을 훨씬 넘쳐하고있습니다.》

그의 적동색얼굴엔 끝없는 자부와 긍지가 넘쳐 흐르고있었다.

공장부지는 넓었다. 그 넓은 부지를 짝 채우며 일떠선 화력발전소의 구내에 들어서니 그 어떤 벽차고도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듯싶었다. 그것

이 저 하늘에 높이 솟은 굴뚝에서 뭉게뭉게 피어 오르는 창조의 연기때문이었던지 아니면 우람차게 솟아오른 발전소건물의 웅장함때문이었던지...

화력발전소가 평천벌에 일떠선것은 벌써 60년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나라의 전력공업실태를 통찰하신편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 자원과 함께 계절적제한을 받지 않는 화력을 옮겨 배합하여 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이곳에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그후 여러차례의 현지교시와 수백차례의 전화교시 및 중요회의들에서 가르치심을 주시여 화력발전소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서 평양화력발전소는 오늘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동력기지로 자라났다.

공장은 흐름식으로 맞물려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있었다. 운탄직장에서 석탄이 공급되면 보이라직장에서 증기를 생산하고 거기서 생산된 증기는 타빈직장으로 넘어가 전기를 일으킨다고 한다. 이외에도 화학직장, 자동화직장, 재처리직장 등 그 많은 직장들과 요소마다가 치차처럼 하나같이 움직여야지 그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생기면 전반적인 생산공정이 멎는다고 한다. 그때문에 모든 초소에 선 동력전사들의 임무는 크고도 중요하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그가 안내하는대로 먼저 보이라직장을 찾았다. 여기서 미분탄이 발화되며 수백도의 온도와 높은 기압으로 된 증기를 생산하는데 시간당 증기생산량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전력생산이 좌우된다고 한다.

보이라직장에 들어서는 첫순간 우리는 보이라의 웅장함과 거대함에 놀랐다. 수십미터의 높이와 집체같은 체적을 가진 보이라가 한줄로 나란히 서서 그 거창한 건물안을 짝 채우고있었던것이다. 어디선가 쏘는듯한 압축공기소리가 귀가 멍멍해지도록 들려오고있었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이렇듯 크고도 웅장한 작업장에 단 한명의 사

람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걸 물었더니 지도원동무는 빙그레 웃으며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기대에는 교대당 한명의 노동자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새삼스럽게 충격이 큰 현실이었다.

현장에서 우리를 맞아준 것은 보이라담당기사였다. 그는 체소한 몸에 살색이 맑은 동무였다. 류달랐던 것은 영민하게 반짝이는 두눈이었다.

새물새물 웃음을 담은 눈은 무척 삽삽하고 친근한 인상을 주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동력전사들의 투쟁소식을 듣고 싶노라는 우리의 청에 그는 또다시 반가운 웃음은 짓고 기꺼이 응해주는 것이었다.

《얼마전에 있는 일입니다.》하고 그는 말하였다. 했을 때 그의 눈빛은 그 무엇을 추억하는 듯 가늘게 찌프러지는 것이었다.

《8호보이라의 송수관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보이라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터진 개소를 찾고 보수하자면 화실을 뺑각시켜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무려 2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가서 슬라크를 꺼내고 보수하느라 2~3일이란 시간이 달아납니다. 결국 많은 전력을 잃는 셈이지요.

이럴 때였습니다. 기대가 멎은지 일곱시간만에 세포비서 홍순연동무와 8호운전공동무가 먼저 화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뒤를 이어 그곳에 달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저마끔 화실에 뛰어들어 파열기술라크를 꺼내는 작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꺼내야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실안의 온도는 높았습니다. 온몸을 지지는 듯한 연기를 뿜고 들어가는 그들의 숨얼른 모습은 마치 적의 화구로 달려가는 용사의 모습을 방불케 했습니다. 화실안의 온도가 아무리 뜨거웠지만 전력생산을 높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우리 동력전사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2~3일이 걸려야 했던 보수가 21시간만에 완성되었고 보이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전기만도 무려 수십만키로와트시에 달합니다.》

감동이 큰 이야기였다.

《그뿐이 아닙니다.》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 소리가 들리지요?》

《압축공기소리말입니까?》

우리는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인상깊던 소리여서 얼른 이렇게 말을 받았다.

《압축공기가 아니라 증기분사장치를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저 〈증기포〉라고 하지요.》

《〈증기포〉요?! 그거 이름이 그럴듯합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증기포》의 용도를 듣고는 더 웃을 수 없었다.

…지난해 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중앙기관의 중요한 협의회에서 이곳 발전소가 년초부터 생산해야 할 전력생산량을 확정해주시면서 이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주시었다고 한다. 그러시고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건설 과업의 맨 첫자리에 전력공업부문에 제기된 과업을 밝혀주시었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동력전사들은 전력생산을 더욱 높일 방도를 두고 집체적 지혜와 힘을 모았다. 이 불길은 온 발전소에 퍼져갔다. 발전소의 심장부를 맡은 보이라직장은 더욱 그러했다.

보이라에서 기본은 연소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미분탄의 질적상태에 따라서 화실안의 온도차이가 생기고 온도가 낮으면 슬라크처리문제가 걸리게 된다. 이걸 없애지 않고서는 기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그 어떤 탄이든지 몽땅 연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것은 연소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럴 때 10호담당기사 김동무와 운전공이 증기분사장치를 제기해왔다. 이 제의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얼핏 보기엔 불속에 증기를 넣는다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론리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의문은 우리도 역시 그랬었다.

《그렇겠지요.》

담당기사의 까만눈에는 친근한 그 웃음이 또다시 피어올랐다. 그는 우리를 열조작반으로 안내하며 말을 이었다.

《처음은 누구나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론리적으로 따져보면 리치가 명백해 집니다.》

하고 그는 그 리치를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우리는 열조작실에 들어섰다.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게 되는 지령대가 있고 각종 계기들

이 수없이 많은 열조작대앞에는 넥타이를 단정히 맨 기대공들이 정숙한 자세로 앉아있다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조작대앞에는 수십수백개의 각이한 계기가 있어 바늘은 저마끔 자기의 목표를 가리키고있었다. 어떤것은 끝없이 한들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것은 굳건한 기상을 보이거나 하는듯 한 곳을 가리킨채 꿈쩍 안하고있다.

《이것 보십시오.》하고 담당기사는 증기생산을 알리는 계기의 눈금을 가리켰다. 그것은 시간당 한 기대에서 생산되는 증기량이었다.

《종전에 비해 시간당 40톤이 더 나옵니다. 이 기대의 기존공칭능력이 타파된 셈이지요.》

놀라운 일이었다. 최신형의 현대적설비로 장비된 이 기대들이 우리 동력전사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부단히 갱신되어 전력생산을 높이고있다고 생각하니 이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더욱 커지는것이였다.

《그러니 〈증기포〉가 단단히 은을 내는 모양이군요?》

《그뿐만은 아닙니다. 미분탄의 생산성을 높인 다든가 송풍기, 배풍기 능력을 개선하는 등 전력생산을 높이는 방도는 여러가지가 있지요. 자 그럼 타빈직장으로 갈까요?》

타빈직장은 그옆에 있었다. 우리는 거기서도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줄기찬 모습을 목격할수 있었고 감동적인 일화들도 들을수 있었다.

지난 1월초 급수변의 축이 끊어져나갔을 때도 그들은 주저없이 온 집단이 달라붙어 보수시간을 열여섯시간이나 앞당겨 끝냈고 1차와 2차 사이 공기변보수가 제기되어 부득불 두개의 타빈을 멈춰야 할 순간에는 책임기사를 비롯한 이곳 로동계급들이 모두가 달라붙어 기대를 세우지 않고 보수를 할수 있는 기발한 안을 내놓아 그것을 성공시킴으로써 전력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였다.

《듣고보니 이곳 동력전사들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생각되는게 많습니다.》

우리는 타빈직장을 나서며 진정으로 감동되어 이렇게 말했다.

《월요, 우리야 수고랄게 있습니까? 우리가 몇으면 나라에 지장이 큼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온 나라에 활기가 넘치지요. 그때문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침마다 우리 발전소의 굴뚝을 제일 먼저 보시고는 굴뚝에서 연기가 보여야 마음이 놓

이신다고 뜨거운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 믿음을 생각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 …》

충격이 큰 그 말이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우리는 그의 체소한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이룰수 없이 귀하고도 숭고하며 깨끗한 마음의 일단을 들여다볼수 있었다.

그렇다. 이곳 동력전사들은 각자가 몇평방메터의 넓지 않은 구간에서 자기의 기대앞에 앉아있지만 쉽없이 간들거리는 계기의 눈금과 시침속에서 수천도의 고열로 활활 타오르는 보이라와 전기를 일으키는 타빈의 고회전속에서 온 나라의 숨결을 듣고있는것이였다.

참으로 이들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지 않는데가 어디 있으랴.

북방의 탄광과 광산으로부터 저 남단의 협동농장, 그리고 수도시민들의 매 가정에 들어간 난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것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걸 자각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드물지 않았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삶의 높이에 서서 충성다하려고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쏟아지는 쇠물, 증기제들, 비단폭포, 황금의 파도…

이제와서 나에겐 이 모든것이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그들 뒤에 서있는 사람- 그들은 바로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우리 동력전사들인것이다. 그들의 걸음걸음은 온 나라에 잇닿아있고 그들의 가슴속엔 조국의 숨결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이런 동력전사들이 굳건히 초소를 지켜서있기에 우리의 전력공업은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해 줄달음치는 우리 인민경제의 원동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것이며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다시 한번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고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리고야말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그들과 헤어져 가벼운 마음으로 발전소정문을 나섰다.

(본사기자)

작시법의 제요소를 잘 살리는것은 시의 산문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담보

현종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벽찬 현실은 그대로가 시이며 노래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399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실로 오늘 우리의 벽찬 현실은 그대로가 시이고 노래이며 바로 이 현실은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이 아름답게 꽃필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되고있다.

오늘 전체 인민들은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펼쳐준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있으며 들끓는 현실속에서 자기들의 생활이 감동적일수록 더욱 읊고싶고 외우고싶은 운률적인 시작품을 요구하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서는 이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여 시문학의 서정성을 풍부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의 운문으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더욱 살림으로써 시에서 산문화의 경향을 철저히 막을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시인들은 당의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시창작에서 작시법의 제요소를 더 잘 살려나가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며 자신들의 창작적기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라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고 가르치였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당의 사상은 운률적현상과 인간정서의 불가분리적호상관계를 심오히 밝혀준 빛나는 사상으로서 시창작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해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그의 언어표현에서 운률적인 형태를 띠는 사실을 수많은 체험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흥겨울 때면 불조를 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와 노래로 하여금 음악적바탕을 가지게 하는 기초로 된다.

음악에서의 선율이나 시에서의 운률이 비록 의미를 가진 언어를 가지고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일정한 사상감정을 불러 일으키는것은 선율이나 운률이 그자체로써 사람들의 정서상태를 표현해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운률이 없다는것은 그만큼 정서가 없다는것을 말해주며 운률이 없는 시는 그만큼 정서의 표현을 살려내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생활에서 느낀 체험과 정서세계를 그대로 토로해야 하는 시작품에는 운률이 살아야 그 정서도 살아나게 되며 운률이 풍부해야 그만큼 그 정서도 풍부해진다.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땅아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 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리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올길 소원했더냐
(《나의 조국》8편)

여기에는 시인이 어머니조국에 대하여 체험한 뜨거운 정서세계가 그만큼 절절하게 흐르는 운률적인 문장속에 표현되고있다.

시인은 자기 시의 매 행 끝머리에 이르면서 일정한 단어들에 힘과 높이가 있게 자기 정서의 간절한 색깔을 일층 더 살려주었으며 전체적인 시문장에서 류창한 음악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더욱 감명있게 전달하고있다.

이것은 결코 시인의 가슴속에 있는 정서적기복만으로 스스로 얻어진것이 아니며 시인이 자신의 정서적체험을 보다 절절한 흐름속에 노래하고저한 표현에서의 운률적노력에 의한것이다.

운률에 관한 문제는 시창작의 수사학인 작시법의 기본요소에 관한 문제로서 시작품의 표현형식에 속한다. 따라서 시의 운률은 시인의 정서속에 있으며 그것은 정서만 풍부하면 스스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일부 현대자유시론의 견해를 경계해야 하며 정형시의 운률은 순수 외형틀로만 보고 자유시의 운률은 순수

《내재물》로 보면서 운물을 일면적으로 고찰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물현상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시작품에도 내용과 형식이 있으며 시인의 정서적기복과 내용은 감정의 흐름이며 그것이 언어를 통해 밖으로 표현된것이 운물이다. 모든 사물현상의 내용과 형식이 불가분리적으로 통일되어있는것과 같이 시작품의 정서적기복과 운물도 불가분리적으로 통일되어있으며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내용과 형식의 견지에서 본 운물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리해는 시창작에서 정서적내용이 풍부히 갖추어진 다음에도 그의 표현형식을 운물적으로 다듬게 하는 전제로 되며 이른바 《내재물》이라는 범주에만 매달려 시의 외형적인 운물을 무시하는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운물 또는 룰조는 여러가지 종류의 비슷한 현상이 비슷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데서 인간이 감득하게 되는 미적속성이다.

고조된 내재체험세계의 표현과 언어의 운물적표현의 통일은 문학령역에서 인간이 발견한 귀중한 재부이며 그 특징은 오늘까지도 항구적인 규범으로 되고있다.

바로 시에 운물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이런 시가문학에 작용하는 항구적인 본성적규범을 심오히 밝힌 시창작의 강령적지침이며 과거의 일부 현대자유시론들이 운문이나 룰문체는 현시대 독자들의 미적취미에는 맞지 않으며 현대시의 미는 음악적인 미에 있는것이 아니라 《시각적미》에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내재물》의 개념을 절대화한 비과학적리론에 대한 결정적타격으로 된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운물적관습이 형성되지만 그 요인들은 각이하다. 시인이 높은 음악적소양을 소유하는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 창작에서 항상 운물문제에 깊은 주의를 돌리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운문시가의 운물은 바로 인간의 운물적관습에 작용하면서 자기의 사상감정을 음악적인 룰조까지 동원하여 독자에게 더욱 정서적으로 안겨주기 위한 무기이다.

시는 주로 랑송을 전제로 하여 쓰이는 문학이다. 우리 민족시가유산가운데서 많은 운문체시가를 가요라고 부른 리유의 하나도 그의 이런 가창성에 기인한다. 운문시가의 형태상특징은 바로 다른 문학종류와 같지 않는 운물적인 언어, 음악적인 표현수법에 있다.

진달래 진달래꽃

소백수 진달래꽃
이 땅은 삼천리 필곳도 많은데
그 뉘를 기다려 합수목에 피었느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모진 계절 피고 지고
하더니 소백수물이 맑던 그날 아침에
위대한 장군님 모시고 어머니 오셨다네
(《진달래》1~2련)

이와 같은 시련에는 누가 어떻게 읽어도 운물을 자아내는 음악적인 언어조직이 있으며 따라서 읽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다. 바로 그와 같은 언어조직과 시문장구성에 의하여 시는 소백수 합수목에 피어난 진달래조차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혈전만리길을 걸어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반겨맞이한듯 조국강산의 한없는 기쁨을 더욱 감동적으로 전달해주고있다.

현대자유시라고 하여 결코 그것이 운물에서 무제한 자유로울수 없으며 운물에서 아무런 규범도 없다면 그는 시가 아니다.

서정시 《진달래》는 1련과 2련의 시행조직이 비슷한 류형을 가지고있다. 특히 매 련의 첫 두행속에는 우리 민족시가의 운물적수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세번반복법》의 수법상 기교가 매우 잘 쓰이고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3~4행에 이르고 시행끝머리에 오면서 일정한 단어들에 놓고 강한 힘을 주게 됨으로써 우리의 운물적관습에 맞는 순탄한 음악적흐름을 감득한다.

오늘 시가창작에서 운물을 흘시하고 그 내용의 《지성》과 《시각적미》만을 주장하는 일련의 부르조아시문학의 실태는 시가 운물을 경시하는 경우 어떤 파국적지경에 이르게 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시와 산문은 같지 않는 두가지의 문학종류로서 같지 않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가 이른바 《지성》세계만을 추구하면서 벽찬 감동적현실을 환희에 차서 노래부르는것을 소홀히 하는 일면성에 빠진다면 그는 시로서의 사명에서 물러서는것이다. 시는 노래하는 문학종류이다. 운물은 이런 내용상특성에 의하여 필연코 생겨나지 않으면 안되는 시창작에서의 가장 중요한 작시법적요소이다. 성음의 특수한 수단으로서 작품의 사상정서적내용을 드러내는것은 운문시가에 부여된 커다란 예술적권리이며 이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것은 시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2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언어작업에서 는 시어를 잘 골라내는것과 함께 음악적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잘 짓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다.

시작품의 운률적기초는 매 시문장이 우리 인민들의 운률적관습에 맞게 음악적으로 잘 흐르고 자연스럽게 읊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시가의 운률적기초는 그 나라 민족시가의 밑바탕에 놓이고있는 운률조성의 기본원리를 의미한다.

운률적기초는 무엇보다 매 시행 또는 시행들 사이에서 그의 최저운률단위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에 의하여 조직하는가에 따라 규정되며 그것은 민족마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매개 민족의 시가들은 자기의 시가에서 최저운률단위에 쓰일 어음수단을 민족어의 어음론적특징에 기초하여 정하고 그것을 자기 민족의 운률적인 관습에 기초하여 엮음으로써 자기의 운률적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운률적기초형성에서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민족어의 어떤 어음론적특성들을 더 잘 살리며 최저운률단위의 어음수단들을 어떻게 시대에 맞게 더 발전적으로 엮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언어의 어음론과 운률적관습에서 민족성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한 그의 기초는 일관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우리 조선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말은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페이지)

우리 조선어는 고저장단과 그 억양이 뚜렷하고 발음이 다양하며 흐름이 류창한 우월한 민족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나라 말의 우월성은 우리 민족시가의 운률적기초형성에 작용하여 우리 시가에서 고유한 작시법을 낳게 하였다.

우리 나라 시가의 운률적기초를 이루는 최저운률단위에 쓰인 어음수단에는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이 강약만이 작용하거나 또한 고저나 장단, 억양만이 각각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그것으로 하여 과거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 말이 고저나 장단, 강약이 희미하다고 거꾸로 설명하였다. 특이한자와 한문을 숭상하던 봉건사대부들은 민족어에 대한 연구를 홀시하고 자기 나라 민족어의 우월한 어음론적특징을 보지 못함으로써 정

형률시를 만드는 경우에도 단순히 글자수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절수에 의한 정형률시와 병행하여 비정형률의 인민가요가 창작되고 그것이 도리어 정형률시가에 비하여 보다 세련되고 품위있는 운률을 나타낸 사실은 우리 민족어의 다양하고 풍부한 어음론적특징을 그대로 증명해준다. 엄격한 자수률을 가진 정형시에서조차 왕왕 자기의 기준형식을 위반하고 도리어 거기서 벗어난 작품이 많았으며 그것이 더 류창한 운률을 낳게 하였던 사실은 민족어의 어음론적특성을 홀시하고 자수에만 매달리던 봉건시인들의 립장을 자기스스로가 부정한것이다.

그와 같은 인민가요들은 우리 민족어의 고저, 장단, 강약, 음상징적특징을 종합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자수를 격식화하지 않더라도 좋은 운률을 나타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민족시가의 운률적기초에 많이 쓰이고있는 최저운률단위의 음절군은 2, 3, 4, 5, 6, 7 음절군들이며, 여기서도 가장 많은것은 2음절군과 3음절군, 4음절군이다. 5음절군이나 6음절군, 7음절군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2+3》, 《3+2》, 《3+3》, 《2+5》, 《5+2》, 《3+4》, 《4+3》 등으로 나눌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시가의 운률적기초는 고저, 장단, 강약 등의 특징을 내포한 일정한 음절군을 최저운률단위의 어음수단으로 하고있는 고유한 작시법이다.

다른 나라 시가들은 자기 나라 어음이 가지고있는 특징에 따라 한글자 한글자의 억양적자모를 그 어음수단으로 하였는가 하면 장음절과 단음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여 그 수단으로 삼았다.

매개 나라 시가의 운률적기초는 이와 같이 우선 그의 최저운률단위에 쓰인 어음수단의 조직이 서로 다르며 그것을 어떻게 엮어가는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시가의 운률적기초의 둘째 측면을 이루는 이 배열방법은 그 나라 인민들의 운률적관습에 의거하며 자기 민족시가의 운률을 기본상 조성시키는 바탕으로 된다.

운률적기초는 수많은 시인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운률의 다양한 현상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그의 다양성과 세련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상 운률이 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시에 작용하고있는 공통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운률조성원리를 의미한다. 왜냐 하면 다양한 운률적현상과 세련정도는 시인마다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들을 어떻게 더 잘 배합하였는가에

의하여 적지 않게 달라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가의 운률적기초와 그와 보조적수법들이 전면적으로 배합되어 이루어진 일정한 운률적현상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때문에 시인들은 자기 창작에서 우선 운률적기초형성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거기에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들을 예술적으로 배합하는 기량을 연마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적형식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닙니다. 문학예술의 민족적형식도 시대적요구와 계급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되어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3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시가의 민족적형식도 결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시대와 계급의 요구에 따라 변화발전하게 된다.

최저운률단위의 어음수단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배열된 대다수 민족어의 시가는 정형시단계와 현대자유시의 단계를 체합하였다.

우리 나라 시가에서도 현대자유시는 바로 중세기 정형률의 고식적형식을 타파하고 현시대 사람들의 풍부한 생활감정을 여러가지 음절군을 다양하게 배열하는것으로써 자유자재로 노래하는 시대 력사적인 혁신을 가져왔다.

우리 나라 시가에서 최저운률단위인 음절군을 배열하는 방법은 정형시와 자유시에서 시대적으로 실로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운률조성의 기초원리에서 보면 역시 공통적인 흔적을 많이 남기고있다. 그것은 《3.4조》, 《6.5조》, 《7.5조》 등 개념이 잘 말해주고있는바와 같이 음향가가 비슷한 두부분의 음절군의 호응, 다시말하여 균형적인 내외구대응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시론의 역사에는 두부분의 음절군의 호응을 의미하는 《3.4조》나 《4.4조》, 《6.5조》, 《7.5조》 등의 시가형식은 지적되었으나 《3.3.4조》나 《4.4.4조》 혹은 《7.7.5조》 등 세부분의 음절군으로 부른것은 없었다. 우리 나라 시가사에서만 볼수 있는 이 이름들은 시가의 운률조성의 기초를 항상 대응하는 내외 두부분 음절군에서 보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시대적인 변화는 주로 이것을 창작에 구현하는 방법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그것은 과거의 정형시인 경우에는 고식적으로, 현대자유시인 경우에는 보다 자유롭게 구현되었으나 그 원리는 많은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오늘에 와서 우리 현대자유시의 운률조성에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것은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 않을수 없다.

내 어려서/ 소치는 아이//
아버지 따라/ 들에 갔을 때//
종다리/ 종다리 울음//
피를 뺏는듯/ 진정이 어려//

어찌나/ 부러웠던지//
종다리/ 종다리 되꼴았어라/
... ..

내 어머니당에//충성을 다질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진정을 읊을가//
모대기며/ 몸부림치노라//

아! 종다리/ 온통으로 노래이냐//
노래가 그대로/ 종다리냐//
내 종다리/ 종다리 되꼴아라//
(《종다리》)

이 시의 운률적미는 물론 내외 두부분 시구들의 대응의 원리에 의해서만 온것은 아니며 거기에는 수많은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들이 쓰이고있다. 그러나 그 보조적수법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어느 시구를 빼버리거나 더 넣으면 대응이 깨져 시의 운률은 파괴된다. 그것은 대응하는 내외구 다시말하여 바깥구들과 안구들이 각각 운률조성의 최저단위를 서로 절반씩 담당함으로써 사람의 두박자 호흡물에 자연스럽게 올라 흐르게 하는 우리의 운률적관습에서 커다란 물의를 조성시키기때문이다.

서사시 《백두산》은 특히 바깥구부분과 안구부분이 힘있게 맞부딪치도록 대응시키는 능숙한 기교를 살림으로써 시전체가 그 시상에 맞는 탄력성을 가지게 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동방의/ 줄기줄기를//
선죽인양/ 한줄에 걸어쥐고//
만리창공에/ 백발을 휘날리며//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 나라 풍상의 나날을/ 날날이 굵어//
천산성악아/ 백두산아//

이러한 대응관계에서 오는 현대자유시의 두부분 음절군들의 배열은 같은 음절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음들의 고저장단강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록된 비슷한 음향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있다. 이 음향가의 균형으로 하여 현대자유시는 정형률시가의 자수률격식을 마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류창한 운률을 조성시킬수 있게 되었으며 시인들이 민족어의 어음론적특징에 더욱 깊은 주의를 돌릴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시작품에서 대응하는 내외시구의 개념은 의미상의 시구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운률조직상의 시구를 의미하는것이다. 례하여 《어쩌면 저렇게/ 진정을 읊을가//》, 《이 나라 풍상의 나날을/ 날날이 굵어//》에서와 같이 그 시행속에는 의미적 시구로서는 그것이 둘 또는 셋이나 들어가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응의 원리는 짧은 두 시행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현대자유시에서 대응하는 내외시구의 조직양상과 그에서 울려오는 운률적인 느낌은 실로 다양하고 무한하다.

락동강/ 푸른 물결//
굽이 돌아/ 7백리//
흘러흘러/ 7백리//
령남의 하늘도/ 결전이 벌어져//
몇날/ 몇밤이런가//
(《포화소리 드높은 7백리락동강에》 1련)

여기서 우리는 그 내외구대응의 다른 양상과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좋은 운률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시에 흐르는 대응관계에 더 높은 운률적요구를 제기할수도 있다. 그것은 읽는 사람에 따라 시의 3행이 호응할 상대방이 없는 외토리시행으로 느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5행의 음향가가 량적으로 부족하여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운률적으로 거슬리게 안겨올수 있기 때문이다.

락동강/ 푸른 물결//
굽이 돌아/ 7백리//
락동강/ 푸른 물결//
흘러흘러/ 7백리//
령남의 하늘도/ 결전이 벌어져//
가슴태운 그 시각/ 몇날 몇밤이런가//

이렇게 그 운률을 완성시켰다고 하여 우리는 그의 서정이 다른 정서로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것이다.

우리 민족의 시창작에서 운률조성의 기본원리를 이상과 같이 한것은 우리 인민의 운률적관습에 기초한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 바와 같이 본래 우리 인민은 숨가쁘게 까불거리거나 맥빠지게 느린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외구대응의 특성은 우리 시의 운률형성에서 숨가쁘지 않고 순탄하며 까불거나 번덕스럽지 않고 평이하다. 인간의 호흡률이 두박자라는것을 고려할 때 그 기초원리는 인간에게 가장 자

연스러운 안도감을 주는 시문장조직방법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이 내외구대응의 원리가 살아있는 시를 읽으면 기본적으로 운률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그것이 잘 구현되지 못하면 호흡률에서 부정맥을 감득하면서 시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한다.

그런데 사람의 운률적관습은 그의 음악적, 시문학적 소양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작품을 읽고도 운률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률적기초를 대응하는 두부분의 내외구호응에서 찾은 시작품들은 사람마다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차이와 요구를 적게 해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가운률의 민족적특성을 구현하였기때문이다.

바로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 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민족시가를 4언시 혹은 5언시, 7언시 등으로 부르고 《장단격》, 《단단장격》 등으로 부르지만 우리는 《3.4조》, 《4.4조》, 《6.5조》, 《7.5조》 등으로 불러 그 운률형성에서 두부분의 음절군(내외구)의 대응관계를 시가형태의 이름에 밝혀놓았던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조선시가의 력사에 2구체, 4구체, 6구체, 8구체, 10구체 등 우수체시가형태만 있는것은 우리 시가의 운률적기초가 두부분의 음절군들이 대치하여 예술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균형의 법칙을 구현해온 사실을 반증해주는것이라고 한것도 따지고보면 이상과 같은 원리를 말하자고 한것일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들은 외국의 시작품을 읽는 경우에도 우리에게 형성되어있는 이런 운률적관습에 의거하여 될수록 그것을 내외구대응의 특성에 맞게 읽으려고 노력한다.

이상과 같이 운률적기초는 민족시가의 바탕에 놓인 가장 기본적인 운률형성의 원리를 의미한다. 시인들은 이런 기본원리를 자기 시창작에서 그 정서적색채에 맞게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구현하는것이 필요하다. 그 다양성은 외토리시구나 짝을 잃은 음절군을 가지지 않는한 무한대할것이다.

시란 보통문장을 행으로 끊어놓았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시의 운률은 시적감정을 받아안는데서 작용하는 사상미학적속성이므로 문장을 두로막으로 대응시켜놓았다고 하여 그의 운률조성이 스스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우리 시가작시법에서의 이 내외구대응의 원리는 결코 시행을로막쳐서 짝을 지어 놓았다고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며 정서가 흐르지 않는 시구나 시행을 형식상으로만 맞세워놓았다고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그의 대응에서 오는 음악적인 미는 어디까지나 사상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감득하는 사상미학적감수과정이며 그의 류창한 흐름 속에서 고상한 정서가 안겨지는가운데 나타나는 시예술의 속성으로 되어야 한다.

3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쉬운 말을 골라 써도 운률을 타고 흐르지 못하면 시문장이 까다로와진다고 가르치었다.

시창작에서 시가의 운률적기초를 옳게 구현하는것은 시의 운률을 기본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시의 운률을 류창하게 흘러가게 할수 없다.

시의 운률이 다만 그의 운률적기초의 구현에만 국한되고 거기에 다양한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들을 잘 배합하지 않는다면 그 시작품은 옳기에 류창할수 없으며 운률의 다양성도 적어질것이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창작에서 그의 운률적기초를 잘 구현하는 동시에 거기에 여러가지 보조적수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시문장을 더 잘 흐르게 하고 혁명하는 시대에 맞는 기백있고 고상하며 발랄한 새로운 운률도 개척해나가며 자기의 운률적개성도 뚜렷이 살려나가야 한다.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이란 운률적기초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혀 작품의 사상정서적내용을 더욱 돋구어주면서 시의 운률을 종국적으로 완성시켜주는 수법이다.

우리는 운률적기초의 구현자체에서도 그의 다양성을 말할수 있지만 특히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에 의한 완성된 운률적현상에서 무한한 다양성을 발양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시가는 그 운률조성의 세련되고 다종다양한 보조적수법들에서 자기 시가사의 우월성을 자랑하고있다.

운률이란 그자체가 비슷한 시구가 비슷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데서 생기는 현상이기때문에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에서도 반복법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절절한 정서세계를 토로하는 서정시에서 반복법이 빈약하다면 그것은 벌써 서정자체의 절박감이 부족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시가에는 거기에 련속적반복, 교차적반복, 자음반복, 시행반복, 머리반복, 시행끝반복, 《세번반복법》 등 수많은 다양한 수법들이 있다.

서사시 《백두산》은 그의 운률조성에서 자기의 심각하고 격동적인 내용에 알맞게 류달리

눈에 띄는 거센소리, 된소리 등 자음반복을 많이 쓴 작품이다.

《첩첩 층암이 창공을 치뿔고요》
《치명의 철화를 왜적에게 내뿜을 때》
《다닥치며 뛰치며 부서지며》

그런가 하면 시는 반대로 자기의 흐뭇한 서정적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유향자음의 반복에 의한 운률조성수법도 많이 쓰고있다.

《허나 기나긴 겨울밤은 한글의 밤》
《장백의 중중심쳐 홍산골》
《봄이면 봄마다 어김도 없이》

서사시 《백두산》에는 수많은 시구, 시행의 반복이 있어 그의 서정을 더 심화시켜주는 류창한 운률이 조성되고있다.

《눈보라... 눈보라...》
《넘어넘어 또 넘어도》
《고개뒤에 또 고개-》
《떼목이 내린다 떼목이 내린다》
《안개 내린다-》
산촌에 저녁안개 내린다》
《나의 량심이고 나의 의지인》
나의 신념이고 나의 희망인》
《자유의 나라!》
독립의 나라!
인민의 나라!》
《내 뿌리와 같이 깊으게》
내 바위와 같이 튼튼케
내 절정과 같이 높으게
내 천지와 같이 빛나게》

이런 표현들은 실로 그 서정을 더욱 절절하게 안겨주는 운률적표현들이다.

반복법에서도 《세번반복법》은 우리 민족의 시가사에만 있는 기교적인 수법으로서 그것은 한행속에서도 조성되며 두행 또는 몇개 행에 걸쳐 조성되기도 한다. 그의 기교는 처음에 두번의 련속적반복법을 취한 다음 가운데에 다른 시어를 가져왔다가 다시 끝에 와서 처음 시어를 반복리용하는것이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혁명가요 《총동원가》)
《왔고나 왔고나 혁명이 왔고나》
(혁명가요 《총동원가》)
《다달았네 다달았네 온 천지에》
무산혁명시기가 다달았네》
(혁명가요 《결사전가》)
《인민주권을 세우자 붉은주권을 세우자》

로동자 농민의 피값에 인민주권을 세우자》
 (혁명가요 《인민주권가》)
 《떡우리라 떡우리라
 배를 무어 떡우리라》
 (서사시 《백두산》)

이와 같은 반복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흐트러지던 운률도 지체없이 수습하면서 운률조성에서 매우 직효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운률조성수법이다.

뒤바꿈법은 시 운률의 보조적수법에서 매우 널리 쓰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법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언어표현에서는 그가 격동적일 때 흔히 말을 뒤바꾸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가창작에서는 바로 이러한 뒤바꿈법을 잘 리용해야 한다.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혁명가요 《유격대 행진곡》)
 《여지없이 부서내자 부르조아사회를
 날날이 박멸하자 제국주의아성을》
 (혁명가요 《결사전가》)
 《나는 사랑한다네, 북방의 산상 이런
 겨울을》
 (서정시 《북방의 겨울》)
 《배고물에 갈라지는 물이랑처럼
 진정할 날이 있었던가, 지난날에사,》
 (서정시 《벽동계선장》)

운률을 살리는 보조적수법들에서 수사학적 방조수단들은 우리 시창작에서 무시할수 없는 주요한 수단으로 된다. 그것은 다양한 음절수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유시에서의 내외구 대응의 기초원리를 더욱 고르로운 음향가의 균형에 의하여 세련시키자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방조수단이기 때문이다.

《소리더하기》, 《소리끌기》, 《부름말》, 《생략》, 《함축》, 《략음》, 《감탄》, 《다접속》, 《점층법》, 《병렬법》, 《대구법》, 《무언》 등은 그런 수단들에 속한다.

의성의태어적방조수단들은 우리 나라 민족시가의 운률조성을 위한 보조적수법에서 매우 발달한 수단의 하나이다.

난데없는 뻘국소리 높았다-
 뻘국- 뻘국-
 잠잠하던 솔밭도 기쁘게 화답한다
 뻘국-뻘국-
 (서사시 《백두산》)

우리 민족시가에 많은 이런 의성의태어들은 시의 내용표현에 생동성을 부여해주는 동시에 그의 음악적률조도 한층 돋구어준다.

이외에도 우리 민족시가에서의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에는 특유한 음상징적수법들도 적지 않다.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들은 일반적으로 한 작품에 여러가지가 동시에 쓰이며 하나의 수법이 두가지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것도 적지 않다. 그들은 모두 기본적인 운률적기초를 보충 풍부화해주면서 자기 시의 사상정서적인 내용에 알맞는 룰조와 양상을 형성시키고 완성시키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운률조성의 모든 수법들은 현대 자유시창작에서 특별히 큰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그것은 모두가 자유률의 산문화를 극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들은 시의 사상정서적내용과의 통일속에서 써야 하며 그 자체를 위하여 씌으로써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작품의 품위를 낮추며 현대서정시를 과거의 민요나 동요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법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작품의 사상정서를 더 심화시키고 작품의 품위를 높일수 있도록 로속하게 써야 한다. 우리 현대시창작정형은 운률조성에서 그의 보조적수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리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 ×

시인들은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을 체험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할뿐아니라 시작품의 서정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시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시를 더 형상적으로 쓰며 시의 내용을 직선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를 설명하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시의 산문화를 막고 작시법의 제요소를 더 잘 살려나가는것도 시인들이 이와 같은 창작적자세를 견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 시인들은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발랄한 운률을 가진 시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할것이다.

대답

허여극

전종일 내리던 곳은비는 멎었으나 저녁부터 광풍이 일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자 성깔진 바람은 먹장같은 떼구름을 휘몰아다가 선불맞은 짐승처럼 사납게 갈채치며 아우성을 질러댔다.

다박술이 우거진 술골막바지에 외파로 들어앉은 허술한 토굴막은 광란하는 암흑속에 휘말려들어 금시 찌그러질것 같았다.

최갑출로인은 어둑컴컴한 움막속에 들어앉아 쿨렁쿨렁 기침을 해가면서 불안한 이 밤을 지새우고있었다. 가마목에는 올해에 열두살난 혁이가 흠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새우처럼 꼬부리고 잠든듯이 누워있다.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밝은 부엌문이 삐거덕거리고 문풍지가 스산하게 붕붕 울었다. 이따금 연유저장고쪽에서 함석조각이 뿡강땡강 아츠러운 소리를 질러댔다. 한밤중 기승스레 울부짖는 바람소리는 가뜰이나 산란한 로인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마구 형클어놓았다.

연유저장고는 반토굴막에서 얼마쯤 떨어진 안침진 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그의 일가는 이미 전쟁전부터 여기 술골에서 연유탱크들을 관리해왔다. 그래서 이고장사람들은 그의 집안을 흔히 《술골지기네》라 불러왔고 그자신은 《술골아바이》로 통하고있었다. 그런데 《술골집》은 얼마전 폭격에 형체없이 불타버리고 군대로 간 남편을 대신하여 연유고를 맡아보던 머느리마저 연유탱크로 번져가는 불길을 막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 로인도 그날 무너지는 서까래에 허리를 다쳤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고있다.

그런데 오늘새벽 적들이 이고장에 기여들었다. 혁이가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괴뢰군장교 몇놈이 낮에 승용차를 타고와 연유고를 돌아보고 가더니 곧 예닐곱명의 병졸들이 끌어들어 아예 거기에 도사리고있다 한다.

연유탱크들에는 기름이 저장되어있는데 그것이 몽땅 놈들손에 들어가고말았다. 아들 머느리로부터 저 나 어린 손자애에 이르기까지 온 식구가 목숨처럼 귀중히 지켜오던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놈들한테 고스란히 넘겨주다니...

우에서 무슨 지시가 있기를 기다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것이였다. 그러나 연유탱크를 폭파할 임무를 받고 군당에서 파견된 젊은이가 이리로 오던 도중 불행하게도 오늘새벽 포격에 숨졌다 한다. 이웃에 있는 한 녀인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것은 벌써 적들이 이고장에 기여든 뒤였다. 왜 진작 손쓰지 못했던가! 그자신 어차피 적들이 강점하는 순간에는 연유고를 불살라버릴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것을 알고있지 않았던가! 하지만 연유고와 운명을 같이 해온 그로서는 머느리가 며칠전에 화상까지 입으면서 희생을 무릅쓰고 구원한 연유고를 차마 체손으로 불사할수 없었다. 비록 때늦기는 하지만 성한 몸이라면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하지만 문밖출입도 제대로 할수 없는 처지이니 마음만 앞섰지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담...)

그는 감각이 마비되어 통나무처럼 뻣뻣해진 정강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신음소리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괴롭게 일그러진 그의 주름진 볼편이 저도모르게 실룩거렸다. 잠든줄 알았던 혁이가 이불을 살며시 밀어젖히고 시름겹게 묻는다.

《할아버지 또 허리가 아파요?》

《아니 괜찮다. 너 왜 상기 안자니?》

《잠이 오지 않아요.》

그 애는 한숨쉬인 소리로 쓸쓸하게 대꾸했다. 아마 저 귀여운 어린것도 마음이 어수선한 모양이다.

《혁이야, 범이 펍 깊었다. 이불을 꼭 뒤집어쓰고 자거라.》

로인은 애뜻한 정이 치받쳐 손자를 굽어보며 측은히 말했다.

《할아버지도 안자면서 뭐...할아버지 주무시라요. 예?》

혁이는 마치 응석을 부리듯 로인의 손을 잡아끌었다.

《오냐. 오냐, 나도 이제 늙겠다.》

로인은 혁이의 머리칼을 쓸어주며 눈을 슴뻑거렸다. 밖에서는 또 한바탕 미친바람이 휘몰아쳤다. 금시 지붕이 날려갈듯 이영짚새에서 썩썩 바람소리가 일고 천정에서 흙부스레기들이 부실부실 떨어졌다. 움막뒤에서 《우지끈 푹!》 하고 나

무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소름이 끼치게 울려왔다. 썩-썩-, 획-획- 기승스레 사품치는 광풍속에 온 골짜기가 고통스레 아우성치는것 같았다. 음침한 움막속에도 찬바람이 스며들어 집안이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할아버지, 저게 무슨 소리예요?》

갑작스레 혁이가 후닥닥 몸을 일으키며 겁먹은 소리를 했다.

《삭정이가 부러지는 소리란다.》

《아니, 아니, 그것 말구요?》

《문풍지 우는 소리말이나?》

《아니래두요, 가만, 가만 제세요.》

혁이는 눈을 말끄러미 울려뜨고 바깥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맹수처럼 울부짖는 바람소리와 외에는 다른 기척을 느낄수 없었다.

《방금 차소리가 부르릉 하던데요.》

혁이가 불안스레 중얼거렸다.

《뭐, 차소리? 한밤중에 이 외진 산촌에 웬 차가 다니겠니?》

《셋 할아버진 아시지두 못하면서... 놈들이 어찌는지 알아요? 유조차를 들이대구 기름을 몽땅 실어간대요. 연유를 말이에요.》

《아니, 너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니?》

《놈들이 지절어대는 소리를 엿들었지요 뭐. 발바리차를 타고온놈들이말예요!》

《으-口》

로인은 입술을 사려물었다. 어린것의 말이라고 무심히 스쳐들들 소리가 아니었다.

(죽일놈들같으니라구. 그게 어떤 기름인데 실어가!)

그는 분기가 울컥 치밀어올라 홀로 속으로 욕했다.

《할아버지, 밖에 나가 살펴보구 오겠어요.》

혁이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섰다. 로인은 그한테로 책 고개를 돌렸다.

《뭐, 살펴보겠다구?》

《놈들이 기름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이녀석 움쩍 말구 가만 누워있어!》

로인은 혁이의 팔소매를 움켜잡고 나직하나 엄하게 욕질러놓았다.

《씨-》

혁이는 울가망이 되어 그 자리에 풀썩 퍼더앉았다. 거칠게 숨을 쉰썩거리는 그 애의 물기어린 눈망울이 어둑속에서 린광처럼 번쩍거렸다. 로인은 마치 전류에 감전된듯 가슴이 찌르르 저렸다. 금시 발버둥이라도 칠듯이 울상을 하고있는 어린

것의 심정이 그대로 온몸에 옮겨오면서 눈곱이 척척이 젖어들었다.

혁이는 올해에 인민학교 4학년생이다.

남달리 영특하고 총명한 그 애는 총기가 괜찮아서 공부는 늘 첫자리를 차지하곤하지만 성미가 여간 살차지 않았다.

언제인가 한번은 까치둥지를 터느라고 아찔하게 높은 뽕뿌라나무 옷초리에 까마득히 바라올라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일도 있었으며 또 한번은 소낙비가 억수로 퍼붓는 여름밤에 군사놀이를 한다면서 저희포대들을 산으로 끌고가 동굴속에서 밤을 새워 온 마을에 소동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이 말썽 많은 철부지때문에 로인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후퇴를 앞두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고 제어미마저 없으니 그 애는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싸돌아치면서 영 집에 붙어있지 않았다.

요새 그 애는 기동을 제대로 못하는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연유고를 맡아본다면서 술한 애들을 거느리고 제법 주인행세를 해왔었다. 이를테면 애들을 시켜 연유고주변에 경비도 세우고 간혹 기름받으러 오는 차가 있으면 직접 기름을 내주기도 하고 로인한테 운전수들을 데리고 와 인수증을 받아내기도 했다. 로인은 애들의 그런 소행이 기특하기도 했으나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못내 걱정스러웠다. 아예 그런 장난을 그만두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했으나 애들은 도리어 로인을 안심시키려고 참새처럼 재잘대면서 귀엽게 떠들어댔다. 정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지팽이에 의지하여 문밖으로 한발자국 나서기만 해도 애들은 벌떼처럼 옷자락에 달라붙어 막 무가내로 앞을 막아나섰다.

로인의 시름겨운 지청구같은것은 눈썹만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애들이었다.

두말할것도 없이 그 애들의 앞장에 서서 대장구실을 하는것은 혁이었다. 로인한테 들리는 운전수들은 저저마다 똑똑한 손자를 두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번은 젊은 운전수가 차를 수리하느라고 기름에 덮어진 손을 휘발유에 씻다가 혁이한테 들켜 진땀을 뺀은 일까지 있다 한다.

비록 휘여잡을수 없으리만큼 장난이 드세찬 애이기는 하지만 연유고를 목숨처럼 귀중히 보살피며 기름 한방울이라도 허실할세라 아끼며 관리해오던 제부모들의 직심스런 성품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받았는지도 몰랐다. 그러니 이 밤 혁이가 놈들이 기름을 가져갈것을 알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심정을 어찌 무심히 대할수 있겠는가!

로인은 눈을 간조롭게 쪼프렸다. 그의 눈앞에는 기름을 처신고 연유고 구내를 빠져나가는 놈들의 몰골이 보이는듯싶었다. 원썬들은 그렇게 기름을 실어다가 술한 놈들을 차에 싣고 틀림없이 아들이 피흘리며 싸우고있을 그 어느 고지로 밀려갈것이었다. 로인은 눈섭이 꼳꼳해졌다. 아니다. 여기에 《술골집》이 살아있고 전선으로 아들을 내보낸 《술골령감》이 숨이 붙어있는 한 단 한방울의 기름도 놈들한테 넘겨줘선 안된다! 종일 곱씹고 되풀이해가면서 종시 용단을 내리지 못했던 그 무슨 생각이 또다시 마음속에 끓어올랐다.

(그렇다. 주저없이 연유고를 불살라버려야 해!)

로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조국의 명령처럼 엄숙하게 느껴졌다. 비록 몸이 성치못해 기여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기어이 자신의 결심을 단행하고말리라 강심을 먹었다. 일단 결심을 가다듬자 다소 마음이 진정되는듯싶었다.

그는 구석에 놓여있는 궤짝속에 헌 누데기를 꺼내놓고 궤짝과 벽짖에 건사해두었던 석유병을 손더듬해 찾아보았다.

석유병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혁이한테로 눈길을 던졌다.

《너 여기 있던 석유병을 못봤니?》

《석유병이요?》

혁이는 찢금해서 얼결에 되물었다.

《그래 석유병말이다. 왜 이 구석에 뒤통게 없어졌구나.》

《저어 …》

혁이는 갑자기 당황해하며 대답을 어름어름 망설이고있었다.

너 꺼낸게로구나? 어따 뒀니? 얼핏 그것을 갖다다구.》

《그건… 저어… 갑자기 그건 왜 찾나요?》

《이녀석, 누가- 너더러 그걸 상관하랬니? 뉘큼 가져오지 못할가?》

로인은 벌떡 증을 냈다. 혁이는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썩 한숨을 몰아쉬었다.

《석유를 몽땅 쏟아버렸는데요 뭐…》

이윽고 그는 툭아진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로인은 그만 아득해졌다.

《뭘 쏟쳤어?!》

《…………》

《이런 변이라구야. 너 또 일을 저질러놓았구나. 그건 뭇하러 꺼내가지구… 엉?》

로인은 꾸중을 하다 말고 억이 막혀 기침만 쿨렁쿨렁 깃었다. 저 애는 왜 매양 이 모양인가! 오늘 아침에도 그 애는 마을에 내려가 술골로 밀려드는 미군놈들을 제눈으로 보고 와서 뭇하러 종알거렸는데 로인은 그때 그의 목에 두른 붉은넥타이를 보고 그만 눈을 홑뜨고말았다. 아무리 철딱서니 없기로서니 적들이 옥실대는 대낮에 무슨 변을 치르자고 버젓이 넥타이를 두르고 다닌단말인가! 로인은 질려 한바탕 된 꾸중을 했는데 또 석유병은 뭇하러 꺼냈는가! 그는 손자를 못마땅한 눈길로 흘려보다가 한숨쉬인 소리로 꾸념했다.

《어휴 저게 도대체 언제 철이 들겠는지 쫓쫓…》

하지만 혁이는 미륵처럼 굳어진채 입을 봉하고있었다. 로인은 잠시 침묵끝에 갈앉은 목소리로 애타게 분부했다.

《애, 너 부엌에 내려가 나무꼬챙이를 한대 가져다주렴. 그리고 부엌당반우에 붓나무껍질이 있을게다. 그것하구 신발장에서 내가 신던 낡은 고무신두 한짝 가져온!》

《…?!》

혁이는 그의 심중을 헤아려보려는듯 로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굳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됐다. 이제 누워 자거라!》

로인은 혁이가 들고 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받아서 무릎옆에 놓고 애의 팔을 끄당겨 눌러앉혔다. 혁이는 이윽도록 아무말없이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가 이불을 덮고 자리에 누웠다. 눈치 역은 애가 꼬치꼬치 물으면 어찌라 했는데 로인에겐 못내 다행이었다.

이윽고 그는 반진고리속에서 가위를 찾아들고 고무신짝 테두리를 썩썩썩 잘라내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다. 로인은 퍼그나 알심을 들여 불방망이 두개를 만들어놓고 담배를 또 다시 붙여물었다. 떠날 차비는 마련되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적들 몰래 어떻게 연유고 구내로 들어갈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그닥 어려울상싶지 않았다. 울타리에 둘러친 쇠살창이 군데군데 이빠진 구석이 없지 않아서 그리로 사철 메짐승들이 드문히 구내에 게바라들곤했었다. 언젠가 한번은 혁이가 거기에 웅노를 놓아 여우가 걸려든 일까지 있었다. 하늘이 흐리고 날씨까지 사나와 행동하기에 오히려 좋았다. 곧 길을 떠나야만 했다. 그는 땅을 짚고 힘겹게 자리를 옮겨앉아 움푹 한쪽굽에 놓아둔 지팡이를 집었다. 지팡이 없이는 단 한걸음도 나다닐수 없는 몸이었다.

그러나 막상 집을 나설 생각을 하니 살아서는 다시 이 움막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서글픈 느낌이 새삼스러워지면서 어딘가 마음이 비장해졌다.

그는 지팡이를 무릎우에 올려놓고 다심한 눈길로 손자를 굽어보았다. 혁이는 턱밑까지 이불을 눌러쓰고 모재비로 돌아누워 움푹 앉고있었다. 잠이 든것 같았다. (원썬들이 도사리고있는 이 살벌한 땅에 저 어린것을 남겨두고 어떻게 간담...) 애듯한 정이 치받쳐올라 무슨 말이고 정답게 해주고싶었다. 그러나 잠든 애를 공연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곤경에 빠질가 두려웠다.

(아서라, 차라리 슬그머니 몰래 떠나야지.)

혁이를 점도록 굽어보면서 로인은 황소숨을 쉴새 없었다.

불원간에 인민군대가 다시 나올테니 머느리가 병고치고 돌아올동안 이웃에 찾아가 피신해있으라고 몇자 적어놓고 떠나는편이 나을상싶었다. 그는 기척을 낼세라 조심스레 성냥을 그었다. 등잔에 불을 달아놓고 무심히 손자를 돌아보았다. 순간 그는 자기를 말끄러미 쳐다보는 새별같은 눈길과 마주치고말았다. 로인은 흠칫했다.

《너 왜 아직도 안자니?》

《... ..》

혁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앉았다. 로인을 쳐다보는 어린것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속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것 같았다. 로인은 저으기 당황해졌다. 손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그럴듯한 말로 달래놓고 슬쩍 밖으로 나가야 할지 도무지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웠다. 짐짓 잠자는 시늉을 하자니 무한정 시간을 끌것 같고 한편 애를 구슬려봤자 아무 보람이 없을것이였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맞다들고말았다. 그런대로 자는 흉내라도 내볼가 했는데 혁이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간 그 애의 손끝에서 검시레한 천조각이 너풀거렸다. 로인은 의심쩍게 애를 바라보았다.

《너 어디로 가니?》

《오줌 누러 가요.》

혁이는 천을 피춤에 급히 찢어넣고 서둘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근데 피춤에 건사한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요.》

그 애는 신발을 껴면서 시듯하게 대꾸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훌쩍 밖으로 사라지고말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여전히 갈개쳤다. 질풍이 트락에서 락업을 휩쓸어 부엌문에 한바탕 뿌려던지고 가리나무더미를 무너트리며 숲속으로 몰아가 나무숲을 후려쳤다. 이윽도록 혁이는 들어오지 않았다.

아까 그 애가 연유고를 살펴보고 오겠노라 하던 말이 로인의 머리에 언뜻 떠올랐다.

(혹시 그리로 간것이 아닐가?)

그는 불안에 휩싸였다.

《혁이야-》

밖을 향해 소리쳐보았다. 대답이 없었다. 좀 더 큰소리로 다시 불러보았다. 나무숲을 휩쓰는 바람소리만이 기승스레 울부짖고있을따름 여전히 감감 응답이 없었다. 암만 해도 일이 심상치 않았다. 석유병이 종적을 감춘 일이며 온밤 잠못들고 궁싹거리던 일이며 천조각을 피춤에 감춰가지고 도망치듯 밖으로 사라지던 일이며 모든것이 어딘가 수상쩍었다.

(이 애가 그 무슨 엉뚱한 궁리를 하고...?)

불길한 예감이 갈마들면서 로인은 가슴이 얼어들었다. 정녕 그 물덤벙물덤벙하는 철부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이 알랴! 그는 입술이 바질바질 타들었다. 더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있을수 없었다

로인은 후들후들 떨리는 몸을 지팡이에 싣고 가까스로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켕기면서 금시 숨이 끊어질것 같았다.

그는 비칭거렸다. 그러나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는 입술을 앙다물고 비칠비칠 부엌으로 내려서다가 허리가 풀썩하는바람에 통나무 쓰러지듯 엎어지고말았다.

모진 아픔이 뼈를 갈아내듯 온몸에 퍼져 정신이 아찔해졌다. 다시 일어서려고 허우적거리면서 그는 저도 몰래 목메인 소리를 내질렀다.

《혁이야! 》

그는 지팡이를 찾아질 경황이 없이 손으로 벽을 어리더듬다가 간신히 문설주를 움켜잡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는 혈떡혈떡 가쁜숨을 몰아쉬면서 부엌문을 손으로 와락 내밀었다. 드세찬 바람이 열린 문을 들부실듯 후려치면서 문고리를 잡고있는 그의 몸뚱아리를 잡아채듯 사정없이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몸의 균형을 잃고 자루처럼 앞마당에 나딩굴고말았다.

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어둑컴컴한 골바닥에서 시꺼먼 불기둥이 솟구쳐올랐다.

팡! 파르릉! 파팡! ...

귀째지게 요란한 굉음이 어둠을 들부시며 연신 터졌다. 온 골안이 삽시에 무시무시한 불바다로 변했다.

로인은 깜짝 놀라 움쭉 고개를 들었다. 길길이 솟구치는 삼단같은 불길의 용트림을 하듯이 소용돌이치면서 구름낀 밤하늘을 불사르고있었다. 그 속에서 폭음이 하늘땅을 뒤흔들며 귀가 멍멍하도록 줄창 울려왔다. 로인은 한순간 모든 시름을 잊고말았다. 종일 가슴을 무겁게 하던, 온밤 잠못들고 모대겨오던 그 일, 연유고가 끝내 하늘로 날아난 것이었다. 저 폭음을 들으면서, 저 불길을 보면서 원수들은 뱃을 잃고 허둥거리리라!

그러나 이런 통쾌감은 잠간 가슴속에 섬광처럼 비겼을뿐 곧 불길한 의혹이 거먹구름처럼 마음속에 엄습해왔다.

과연 누가 이 일을 거사했던말인가? 혁이인가? 아니면 어느 판 사람이 과업을 받고와서?... 로인은 온몸이 화들화들 떨렸다. 그의 눈앞에는 무섭게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갈기갈기 채가 되어 날리는 혁이의 모습이 어리여왔다. 그것은 무서운 환각이었다. 하지만 로인에게는 그것이 한낱 환영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로인은 눈을 꼭 감았다.

가슴속에서 불뭉치같은것이 뜨겁게 피어올라 목구멍을 꼭 틀어막는것 같았다.

《으흐흑... 네가, 네가 어찌면...》

그는 별안간 울음섞인 소리로 흐느끼면서 주먹을 부르쥐고 땅을 두드렸다...

얼마후 적들이 움막에 달려들어 로인을 붙잡아 일켰다. 놈들은 무턱대고 그가 불을 질렀다고 억박질렸다. 집을 수색하던 몇놈이 불방망이 두개를 찾아냈고 굴뚝모퉁이에서 빈 석유병 한개를 얻어 들고 나타나자 놈들은 더욱 악이 받쳐 날뛰었다. 발로 차고 때리고 총탁으로 마구 짓조기는 바람에 로인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로인이 다시 정신을 차린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갈증이 났다. 목에서 겨불내가 팍팍 일고 가슴이 마구 타드는것 같았다. 온몸이 불에 덴것처럼 따금따금 쓰리고 무거운 쇠장에 깔린듯이 고통스러웠다. 처음 한동안은 눈앞의 모든것이 몽롱하더니 차츰 혼미하던 의식이 맑아지면서 그는 자기가 연유저장고의 비품창고에 갇혔음을 알았다. 널판자로 벽을 붙인 창고안에는 고무호수통 구리며 비자루며 그밖에 기름묻은 비품들이 널려있었다. 널짚으로 눈부신 아침해발이 은실처럼 실실이 흘러들고있었다.

적들은 한동안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죽음을 면할수 없음을 알았다. 그것은 두려울것이 없었으나 혁이를 잃은것이 애통하였다. 왜 제때에 눈치채고 그 애를 붙잡지 못했던가? 그는 널짚으로 스며드는 해살을 바라보며 비통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연유고 구내쪽에서 이따금 웬놈이 짹짹 호통을 질러대기도 했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것 같았다.

소란하던 바깥이 잠잠해졌다.

낮쪽에 마마자국이 승승한 피뢰군장교 한놈이 사병 한놈은 거느리고 창고에 나타났다. 몸집이 꽤 실박하고 우악스레 생긴 곰보는 거만하게 뒤집을 지고 서서 로인을 한동안 매섭게 쏘아보더니 거들먹거리면서 앞으로 다가와 아무 소리없이 신발 한짝을 슬며시 내밀었다. 진흙이 어지럽게 발발린 사내애의 겹점운동화였다.

로인은 어망결에 신발을 덮치듯이 나부채들고 눈을 홑떴다. 그것은 너무나 눈익어온 손자의 신이었다. 올해여름 6.6절명절날 소년단군련합단체 모임에 뿔쳐가는 그 애에게 로인이 직접 사 신긴 신이었다. 어미가 지어준 명절옷에 제애비가 사준 새 붉은넥타이를 목에 두르고 거기에 이 신까지 받쳐신고 너무 좋아 까치결음을 치면서 방안을 빙빙 돌아치던 일이 어제런듯 선히 떠올랐다. 그날 혁이는 길목에 나가서 바래주는 자기에게 바른손을 머리위에 높이 추켜올리고 소년단원의 인사까지 보내면서 어리광부리듯하지 않았던가! 그 재롱스럼던 애가 신발 한짝 남겨두고 숨졌단 말인가!

가슴이 젖어들어 손이 떨렸다.

《령감, 어때? 이게 손자녀석의 신이지?》하고 곰보박지장교놈이 움츠맞게 웃으면서 로인을 넋지시 쳐다보았다. 그놈은 구태여 대답을 들을것도 없다는듯 그 말 한마디를 던져놓고 신을 도로 뺏어갔다.

이윽고 로인은 놈들한테 끌려 밖으로 나왔다.

해는 동녘 산마루에 높이 걸려있었다.

날씨가 언제 그렇게 험곳였던가싶도록 하늘이 말쑥했다. 로인은 한동안 눈이 부셔 현기증을 느꼈다. 그닥 멀지 않은곳에 술한 사람들이 슬픔과 동정과 련민에 찬 눈길로 묵묵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모두가 이웃에서 가까이 지내던 낯익은 마을사람들이었다. 로인은 창고출입문 문설주에 기대서서 가까스로 몸을 가누고 연유고 구내를 한바퀴 눈더듬해보았다. 형체없이 찌그러진

연유탕크들이 여기저기 엉성하게 나딩굴고있었다.

무서운 화재가 휩쓸었던 그 주변의 모든것이 몽땅 솟으로 변하고말았다. 쌀랑한 대기속에는 아직도 매캐하고 알싸한 그을음냄새와 기름탄 냄새가 짙게 서려있어 숨을 쉴 때마다 코를 찔렀다. 과연 이 엄청난 일을 《술골집》혁이가, 나 어린 손자애가 해냈단말인가! 성미 살차고 장난이 심한, 그래서 늘 늙은것의 마음을 애타게 하던 그 애가 이런 장한 일을 했다는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로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 답알침을 삼키면서 물거어진 두눈만 슝씩거렸다.

별안간 사람들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못눈길이 일제히 정문쪽으로 쏠렸다.

로인도 무심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문 앞 길목에 혁이가 《발바리》라고 하던 풍막을 친 찢차 한대가 서있는데 꼭 베짖이처럼 생긴 빼빼 마른 미제침략군 장교 한놈이 창고에 나타났던 곰보와 함께 웬 소년을 끌고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그 순간 로인은 소스라치면서 눈을 홑떴다. 죽은줄로만 알고있던 혁이가 타박타박 앞에 서서 오고 있지 않느냐! 로인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환각이 아닌가도싶었고 꿈이 아닌가도싶었다.

아니, 꿈도 환각도 아니였다. 그 애는 의심할나위없이 혁이였다. 운동화 한짝을 손에 들고 맨발로 걸어오는 그 애의 옷에는 도깨비바늘이며 엉덩퀴며 도꼬마리씨앗들이 다닥다닥하였다. 이슬에 휘줄근히 젖은 옷이며 가랑잎이 붙어있는 푸시시한 머리며 어딘가 꺼칠한 그의 물골로 보아 밤새껏 숲속에 숨어있다가 놈들 손에 잡힌것이 틀림없었다. 기적처럼 살아있는 손자를 보자 로인은 걱정이 북받쳐 솟구치는 눈물을 막을길 없었다.

《으흐흐… 혁… 혁이야아-!》

그는 웃는것도 아니요 우는것도 아닌 목메인 소리로 떠듬거리면서 손자를 향하여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 순간 혁이도 그를 알아보고 흠칫 몸을 떨며 무춤하더니 《할아버지이-》하고 뉘없이 부르짖으며 허둥지둥 그한테로 달려오고있었다. 피뢰근 장교놈이 와락 달려들어 덜미를 움켜잡고 애를 태치듯이 휘둘러놓았다. 혁이는 곰보놈을 뿌리치려고 감때사납게 모지름을 썼다. 악에 반친 장교놈이 애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애는 정신이 아찔한듯 두볼을 움켜잡고 비칭거렸다. 로인은 눈에서 불이 펄펄 일었다. 어디

서 그런 힘이 용솟는것인지 그는 후닥닥 뛰쳐일어나 분노에 치를 떨며 무섭게 고함쳤다.

《이놈아, 철없는 애는 왜 때려! 엉? 왜 손찌검을 하느냐말이다!》

그는 그놈을 당장 찢어죽일듯 험상궂게 상관을 쏘아보면서 허겁지겁 앞으로 달려나갔다. 곰보놈은 찢끔 놀라 뒤걸음치면서 엉겁결에 권총을 뽑아들었다.

《이놈의 두상 죽고싶어?》

그놈은 눈알을 독살스레 굴리면서 무슨 일을 치를듯이 잔인하게 으르렁댔다.

로인은 겁날것이 없었다. 손자를 살릴수만 있다면 죽어도 아깝잖을 목숨이였다.

《이놈아 그래 어쩔테냐? 자, 쏴테면 싸라. 죄없는 애를 건드리지 말구 나를 쏴란말이다.》

《그래 불은 누가 질렀는가? 앙!》

《내가 질렀다. 내가, 내가, 내가!》

로인은 가슴을 버젓이 내밀고 총부리앞으로 서슴없이 다가섰다. 소리소리 지르는 격한 목청이 찢렁찌렁 끝안에 메아리로 울렸다. 그 험악한 순간에 혁이가 얼굴이 파아랗게 질려 온몸으로 로인을 막아나섰다.

《아니, 아니야요. 불은… 불은… 내가… 내가, 질렀어요!》

로인은 그만 아연해져서 팔굽으로 손자애를 와락 뿌리쳤다.

《이것아! 너 무슨 소리?… 환장을 하지 않았니?》

그러나 혁이는 또다시 옷자락에 매달리며 피터지게 뭐라고 웨쳐대는것이였다. 로인은 그만 목구멍이 짹 메여 혀가 굳어지고말았다. 한 피줄로 이어진 혈육의 정이 불물처럼 심장에서 끓어올랐다. 손자만은 어떻게 살려보고싶었건만 천진하고 순진한 그 애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말았다.

하긴 놈들이 혁이가 불질렀다는 움직일수 없는 자료를 쥐고있는 이상 아무리 뻔뻔다 해도 보람이 없을것은 명백하였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떤단말인가! 로인은 손자애를 부둥켜안고 잠시 말 못하고 몸만 떨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제침략군 장교놈이 베짖이걸음으로 뚜벅뚜벅 다가왔다.

그놈은 제법 류창한 조선말로 로인을 향하여 지껄여댔다.

《령감 손자애를 살리고싶거든 솔직히 말하시오. 누가 저 애더러 불을 지르라고 시켰습니까?》

로인은 손자를 두팔로 부둥킨채 그놈을 역겹게 쏘아보다가 눈살을 찌프리며 고개를 외면했다.

《말하십시오. 령감이 시켰지요?》

베짱이같은 그놈은 알만하다는듯 능청스레 웃었다. 로인은 대답대신 실눈을 지었다. 그놈의 말대로 자기가 시킨 일이라면 오히려 뻗뻗하고 의젓할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분명 이 애는 이웃 녀인이 아침에 찾아와 군에서 파견된 젊은이가 숨지면서 남겼다는 군당의 지시를 전해줄 때 그 말을 엿듣고 미리 차비를 해놓은 다음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린듯싶었다. 그런줄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손자를 집안에 불박아두려고 장밤 헛되이 애쓰지 않았던가! 로인은 모두숨을 들이키면서 빗장을 지른듯 입을 꼭 다물었다. 그의 살눈섭이 바르르 떨렸다. 그가 굳이 입을 열지 않자 미제침략군 장교놈은 파란 눈알을 혁이한테 던졌다.

《네가 대답해봐라. 할아버지가 시켰지?》

《헉!》

혁이는 그놈을 아니꼽게 쏘아보며 외마디로 코방귀를 끼었다. 미제침략군 장교놈은 눈웃음을 지으면서 허리를 꼬부렸다. 그놈은 불어우같은 노란 상판대기를 혁이의 코앞에 바싹 들이대고 짐짓 곰살궂게 거둬 물었다.

《그럼 누가 시켰지?》

로인은 불안스레 손자를 굽어보며 혁이의 팔굽을 몰래 움켜잡았다. 고지식한 애가 무슨 소리를 해서 언질을 잡히지나 않을가싶어 가슴이 죄여들었다. 그러나 혁이는 대답이 없었다. 미제침략군 장교놈은 알릴듯말듯 눈살을 찌프렸다.

《술직히 말해봐라. 어머니가 시키던, 담임선생이 시키던? 아니면 세포위원장이?...》

《헛...》 혁이는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피식 웃었다. 그것은 적의가 어린 모멸찬 뽕소였다. 미제침략군 장교놈은 언짢은 기색으로 허리를 폈다.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피뢰군 장교놈이 혁이의 팔을 와락 잡아채며 야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이새끼야! 바른대로 안볼테냐? 누가 시켰어? 양! 누가 시키던가말이다!》

혁이는 낮빛이 해쓱해져서 곰보놈의 손을 활짝 뿌리치고 옆으로 비켜서서 총알처럼 내쏘았다.

《놓으라요! 씨 시키기는 도대체 누가 시켰다구 이래요?》

《그럼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단말이나?》

혁이는 야무지게 입술을 감쳐물고 로인을 힐끗 결눈질해보더니 큰숨을 몰아쉬며 의젓하게 대답했다.

《아무렴, 누구도 시킨 사람 없어요!》

《무슨 허튼 소리야! 거짓말 말아!》

곰보놈이 먹따는 소리를 내질렀다. 혁이는 놈들을 아니꼽게 쏘아보며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다.

《흥 거짓말이라구?》

그 애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피침을 들추면서 놈들 앞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놈들은 엉겁결에 뒤걸음쳤다.

《이놈들아! 믿어지지 않거든 똑똑히 보아라. 자,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말이다!》

그 애는 꼴안이 울리도록 야무지게 소리치며 하늘높이 바른팔을 버쩍 쳐들었다. 모두 눈이 둥그라졌다. 머리위에 추켜든 그의 손끝에서 빨간 천이 불길처럼 펄럭이고있었다. 그것은 그 애가 늘 소중히 목에 두르고 다니던 붉은넥타이였다.

아버이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소년단원의 맹세》를 선서다진 그날부터 언제 어느때 어디서나 푸는 법을 모르던 붉은넥타이, 적들이 밀려들던 어제아침까지도 버릇처럼 앞가슴에 드리우고 나다니던 소년단원의 상징인 붉은넥타이가 지금 놈들의 눈앞에서 기발처럼, 화불처럼 나뭇기는것이였다. 참으로 그것은 천만마디 말로써는 다할수 없는 어린것의 온 심장의 대답이였다.

그렇다! 결코 그 애는 한낱 철부지가 아니였다., 저 붉은넥타이에 깃들어있는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 아버지장군님의 충직한 전사로 항상 준비된 나 어린 전사였다. 하지만 애들이 목에 두른 저 붉은넥타이와 그 애들이 주고받는 인사말-《항상준비!》라는 뜻깊은 그 말을 평소에 무시로 보고 듣고 하면서도 어린것의 심장속에 커가고있는 웅승깊은 세계를 언제 한번 헤아려본 일이 있었던가! 과연 저 애들의 넋을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 감히 엿매일수 있단말인가! 이런 느낌이 새삼스레 떠올라 로인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그는 손자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모두숨을 크게 툭아올렸다.

혁이가 추켜든 소년단넥타이는 눈부신 해빛속에 한결 선명하게 진한 색조로 빛나고있었다. 주변의 모든것이, 다박술 우거진 칙칙한 골짜기도, 가을빛이 실어가는 단풍든 산발들도 그 붉디붉은 색깔에 어리어 타오르는 불길속에 휩싸인듯하였다.

원썬들은 질겁해서 눈알이 뒤집혔다.

낮빛이 창백해진 놈들을 바라보는 소년의 꽃술같은 귀여운 입술에 순진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다시 보는 평양

정화흠

아, 평양
걸음마다 멈춰지는 발걸음 재촉하며
나는 평양거리를 걷는다

3년전은 옛날이구나
여기가 어데이며
저기가 어데인지
지도를 펼쳐도 알수 없구나

정녕 꿈만 같아라
동쪽을 바라봐도
서쪽을 바라봐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아찔한 건물들
끝없이 뻗어가는 넓고넓은 거리들

하늘에 닿는 저 산원은 언제 섰는가
벌써 아기 안은 녀인들
구름 비낀 창가에서 웃고있구나

이게 정말 어제날의 보통강가란말인가
분수의 무지개속에 화려한 창광원이
높이 솟아
사람마다 반기며 문을 열었구나

바라볼수록 황홀하고
생각할수록 전설같아라
땅속에서 솟아오른 아아한 산발인양
인민대학습당 일떠서는 공사장의

불야성에 놀랐는데
이 아침엔 벌써 푸른 기와가
지붕마다 씩워졌구나

아, 평양이여
유구한 세월과 력사로 빛나건만
순간의 쉬임도 늙음도 모르는 도시여
자욱마다 새로움에 놀라고
걸음마다 창조로 가슴 울렁이는
조국의 수도여

먼길을 떠나온 행적도 잊은채
나는 걸어간다
마치 아이들과도 같이
웃고 떠드는 청춘들과 같이
내 반백의 머리도 잊은채

아, 위대한 수령님 우리러보시고
언제나 젊음으로 넘치는
언제나 청춘으로 불타는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수도여

나는 평양의 거리를 걷는다
래일은 또 얼마나 찬란하랴
오늘이 이렇듯 눈부시고 장엄하거니
다만 놀랍기만 하구나
끝없는 미래에 펼쳐지고 펼쳐질
그 모습은

이 길을 걸어 스물다섯해

김윤호

백두의 화불로 하여
새삶을 찾아 뿔뿔하였건만
길은 험악하여 진창이었던가
밝혀주는 빛을 찾지 못해
어두운 오솔길이었던가
나의 어제날의 그 길은

길을 찾아, 그 길을 찾아
길은 수풀속을 헤매이던 지친 몸
그래도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있으려
해빛 밝게 비쳐줄
그 길을 찾아

헤매는 어둠길이 그리도 멀었기에
앞을 가로막는
사대와 허무의 숨막히는 구름이
너무도 무거웠기에

따사로왔어라 5월의 그 아침은
이 길, 나의 길을 찾은 기쁨으로
달리고싶고 날고싶은 이내 마음
아아, 영광에 겨웠어라
행복에 겨웠어라
5월의 그 아침은

따사롭게 비쳐주는 사랑의 해빛
영광의 앞길을 밝혀주는 아버지 손길
그 사랑, 그 은혜에
불타는 충성의 한마음 가슴에 안고
건고걸은 골목길은
몇천몇만리였던가

이 길을 걸어 스물다섯해
가파로운 벼랑길도 많았어라 이 땅에는
웃자락을 찢어대는

가시덤불도 술했어라 이고장에는
내 나라 아닌 이역땅이었기에

길은 비록 험산이고 준령이었건만
스산한 바람 헤쳐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의 빛발로
걸음은 걸음마다
영광으로 아로새겼고
달리는 이 길
승리만이 차례졌나니

억누르는 눈보라로
지붕은 비록 무거웠건만
창문너머 흐르는 등불은 따스고
울려퍼지는 노래소리
행복에 차넘쳤어라

세계 해외교포운동의
독창적인 그 사상으로
풍파를 박차고 굴함 모르고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달리고 달려온 이 길이어
승리에 승리를 겹쳐온
스물다섯해의 자랑찬 로정이어

이 길을 걸어 스물다섯해
그늘 없이 베풀어지는 그 사랑에
끝없이 차례지는 그 영광에
가슴설레이며 눈물 흘리며
건고 달려온 영광의 이 길이어

아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부르심따라 걸어온
나의 이 길이어!

누구를 위한 장벽이나

조성관

누구를 위한 장벽이나
무엇을 위한 장벽이나
조국의 한 허리를 가로질러 선
연연 600 리 장벽은

한겨레의 말소리조차
넘나들지 말라고
한피줄 이은 부모형제들
얼굴조차 넘보지 말라고
철근으로 다져 콘크리트로 쌓아올린
저 장벽

가로막힌 미국제 철조망우에
억울히 억울히 흘러간
빼앗긴 세월이 절통한데
이제 다시 겹쌓아 높인
아, 천부당 만부당 국경일수 없는
저 《국경선》은...

연연 5 천년을 이어
한강토우에 진토된
조상의 유골도 소스라쳐 일어서라
연연 천만년을 이어갈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후손들도 소리모아 단죄하라

누구를 위한 장벽이나
무엇을 위한 장벽이나
조국의 동서를 가로막아선
철근콘크리트장벽은-

미친 눈에도 부끄러워지더냐
장벽 없이는
세상의 눈을 막아줄 울타리 없이는
미국상전의 란동이

일신의 부귀와 권세를 위한
군사장패의 칼부림이

미친 눈에도 끔찍스러워지더냐
장벽 없이는
도살장의 울타리 없이는
선지피 강물처럼 흐르던
남녘의 참상이...

무참히 죽어가는
원한의 비명이 새여날가보아
지옥도 무색할
최악의 정체가 드러날가보아
청천백일하에서는
한순간도 이어갈수 없는
암흑의 왕국 《유신》의 장벽-

천겁을 만겁을 겹쌓으라 하라
악취 풍기는
죄행을 감추지 못하리
천척을 만척을 더 높이라 하라
하늘에 치당은
통일의 열망을 막지 못하리

원한에 사무친
인민의 피눈물에 삭으리
최악의 울타리
연연 600 리 장벽은
마주 불러 애끓는
부모형제들의 목소리에 무너지리

천부당 만부당 국경일수 없는
《국경선》은
물먹은 토담벽파도 같이
해빛을 받은 얼음덩이와도 같이-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쵸아소설문학의 반동적본질

최언경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군사파쑈도당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 하여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 그리고 갖가지 부르쵸아문예사조들이 판을 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8페이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조상전래의 미풍량속과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있으며 극단한 부르쵸아적자유주의와 개인리기주의를 설교하며 인간중요사상을 고취하는 썩어빠진 퇴폐적인 문화가 홍수처럼 밀려들어 인민들의 민족주의식과 혁명정신을 좀먹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인민들속에 숭미사상과 《반공》사상을 고취하며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영구강점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정당화하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다.

오늘 미일제국주의자들이 부르쵸아반동문화를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쵸아문학의 반동성과 그 해독성을 똑똑히 알고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된다.

1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 하여 실존주의, 프로이트주의, 모더니즘 등의 갖가지 부르쵸아문예사조들과 악명 높은 《반공》문학이 류포되고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쵸아문예사조들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려면 우선 그를 사상미학적으로 안받침하고있는 《미학적견해》, 《문예리론》의 본질을 밝가놓아야 한다.

오늘 남조선의 반동적어용문예리론가들과 평론가들은 표면상 《순수문학》을 전면에 표방해나오고있다.

물론 《순수문학》은 오늘에 와서 비로소 처음 생겨난것이 아니며 또 그 반동적본질이 달라진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미 력사의 버림을 받은지 오랜 손때 묻은 부르쵸아반동문예리론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의 반동평론가들과 작가들이 《순수문학》을 새삼스럽게 표방해나서는것은 더욱더 로골화되어가는 저들의 반동적본질을 숨기려는데 그 진목적이 있다.

정치적반동의 공세와 때를 같이 하는 문학의 극단한 반동화는 언제나 《순수문학》이라는 위장물을 필요로 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강점밑에 군사파쑈통치가 더욱더 강화됨에 따라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의 계급적모순은 극도에 이르렀다.

《순수문학》은 오랜 친일어용문인이며 부르쵸아사환군의 전형적인물인 김동리를 중심으로 하여 파쑈독재정권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는 유산층의 기식자들에 의하여 기승스럽게 고창되였다.

그러면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순수문학》의 반동적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학의 사회계급적성격을 집요하게 거부한다는데 있다.

계급사회에서 더구나 오늘 남조선과 같이 계급적대립과 모순이 극도에 달한 사회에서 계급을 떠난 문학이란 있을수 없으며 《무계급성》, 《순수문학》에 대한 주장은 극단한 부르쵸아계급성에 대한 교활하게 위장되고 은폐된 옹호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순수문학》의 앞장에 서있는 한 반동평론가는 《문학이 〈누구편〉에 서야만 하나.》고 하면서 문학이 만약 《누구의 편》에 선다면 그것은 《경향문학》이나 《목적주의문학》에 불과하며 진정한 인간의 문학이라고 할수 있는 《본격문학》에서 리탈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가 주장하는 소위 《본격문학》이란 계급성을 떠난 그 어떤 《영구성》과 《보편성》에 기초하고있는 《순수문학》을 의미한다.

그자신이 스스로 《억울한자, 가난한자가 부와 권력에 짓눌리는 현실의 일각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학이 그들편에서고 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문학의 계급성을 거부해나서

는 바로 여기에 《순수문학》의 반동적인 진면모가 있다.

《순수문학》의 제창자들은 문학의 계급적성격을 거부하는데로부터 계급투쟁에 복무하는 문학의 사회적사명과 인식교양적기능을 완전히 부인해나서고있다. 여기에 또한 《순수문학》의 반동적본질이 있다.

그들은 《문학엔 〈임무〉가 있을수 없다.》, 《도구화된 문학은 문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순수문학》의 한 반동평론가는 《…〈누구 편에 서서〉, 〈무엇을 위하여〉 따위, 문학을 그러한 목적의식의 도구로 만들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것이다.》라고 말했으며 그에 발을 맞추어 다른 한 반동평론가는 《…문학이 과연 어떤 〈임무〉를 띠어야 하는가 하는것부터 의심한다.》고 चे치고있다.

문학이 사회와 인간을 위해 복무하는 숭고한 사명을 그 어떤 문학의 《도구화》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르조아적레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자들은 문학과 예술은 다른 무엇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는것이다.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객관적현실을 반영하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인 문학은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교양적기능을 수행한다.

이리하여 문학은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할뿐아니라 그 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계급투쟁의 무기로 복무하게 된다.

문학을 위한 문학, 계급투쟁에 복무하지 않는 문학이란 있을수 없다.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거부하는것은 순 부르조아적기만이다.

부르조아어용문인들은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돈주머니를 불리워주기 위한 기업의 도구로, 유흥과 방탕의 수단으로, 광범한 피착취근로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상적무기로 복무하는 부르조아문학의 반인민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학의 인식교양적기능과 역할을 거부하는것이다.

인도주의(휴매니즘)에 대하여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순수문학》의 제창자들이 남조선사회의 참상을 폭로비판한 문학작품들과 그런 작품을 옹호한 평론들을 가리켜 사회주의사실주의라고 공격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문학의 사상성과 정치성을 부인하며 반동적인 남조선사회현실을 폭로비판하는것을 극력 반대해나서는 여기에 또한 《순수문학》의 가장 중요한 반동적본질이 있다.

《순수문학》의 제창자들은 문학의 사상성과 정치성을 거부한다.

한 반동평론가는 문학이 《개인문제, 생사문제, 신의 문제, 인생의 영원성문제 등 형이상학적인 것》을 주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성》과 《공리성》은 하나의 배경이나 소재의 바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반동평론가들은 《인간》이니, 《민족》이니 하는 이름으로 문학의 사회적기능과 인식교양적의의를 주장하는것은 문학을 오도하는 길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인 영구성과 공간적인 보편성을 가진 세계적인 명작들은 모두가 다 사회성과 정치성을 떠나 운명과 회의, 《심령의 존엄성》, 《인간성의 부조리》 등 개인적인 인간문제나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취급하였다고 문예사를 외곡하고있다.

이 부르조아어용문인들이 이처럼 문학의 《사회성》과 《공리성》을 반대하여나서는 진의도는 악덕과 모순으로 가득차있는 오늘의 남조선사회현실에 대한 폭로비판을 거부하고 그를 미화분식하여 합리화하려는데 있다.

사실상 그들이 남조선사회현실을 어느 정도나마 부패, 부조리로 차있는 암담하고 절망적인것으로 묘사한 진보적경향의 작품들을 가리켜 현실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악랄하게 비방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의 사상미학적기초를 이루고있는 《순수문학》은 문학의 계급적성격과 계급투쟁에 복무하는 무기로서의 문학의 인식교양적기능을 거부하여 현실의 참다운 반영을 부정하면서 부정, 부패와 악덕으로 가득차있는 남조선사회를 미화분식하고 합리화하는데 복무하고 있다.

2

반동적인 《순수문학》에 사상미학적기초를 두고있는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문학은 오늘 실로 악랄해지고있는 군사파쑈통치에 완전히 예속된 어용문학으로서 그 《반공》의 반동적색조가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을뿐아니라 극도의 타락과 부패성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소설문학에서는 악명높은 《반공》문학과 함께 실존주의, 프로이드주의, 모더니즘 등 반동적부르조아문학작품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조아소설문학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반공》문학에서 가장 극악하게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반공》문학의 성행은 미제식민지통치의 위기와 유신파쑈독재체제의 위기를 반영한것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독재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강화되자 이것을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면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반공》의식의 고취에서 찾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의 반동적인 소설문학은 이러한 정치적반동에 합세하여 《반공》의 길로 미친듯이 줄달음치고있다.

남조선의 《반공》문학은 《반공》의 간판밑에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그 앞잡이들의 유신파쑈통치제도를 합리화하며 북과 남의 대립과 반목을 고취하고 새 전쟁도발을 부추김으로써 민족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도당의 음흉한 정치적목적과 그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매국배족적인 반동문학이다.

남조선에서의 《반공》문학의 반동적본질은 우선 있지도 않는 사실을 허위날조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자들을 악의에 차서 터무니없이 비방중상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반공》의 이러한 경향은 부르조아사환군의 전형적대표자로서의 작가의 반동적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는 장편소설 《불꽃》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소설은 일제때 학도병으로 동북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민학살만행을 감행하다가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 기여들어 중학교 교원으로 은신해있으면서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반대해 악랄하게 책동하다가 월남도주한 극악한 반동분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있다. 작가는 이러한 주인공을 통하여 자유의 《불꽃》이 되어 공산주의자들과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반공》사상을 추구하고있다.

우리는 이 한편의 소설을 두고도 결으로는 《순수문학》과 《본격문학》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반동작가들이 그 얼마나 《반공》선전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가를 뚜렷이 엿볼수 있다.

남조선소설문학에서의 《반공》문학의 반동적본질은 특히 제놈들이 도발한 소위 《6. 25동란》에 대한 주제에 매여달려 공산주의자들을 외곡중상하는데서 더욱 로골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장편소설 《북과 남》을 비롯하여 단편소설 《울려고 내가 왔던가》, 《구명》등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이러한 《반공》작품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우리 인민에게 강요된 모든 불행과 고통의 책임이 마치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는듯이 진실을 외곡하고있다.

이리하여 이런 작품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공화국북반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적대감과 전쟁의식을 고취하며 있지도 않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정책을 추구하는데 북무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반공》문학의 반동성은 또한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발을 맞추어 민족의 영구분열을 레찬하는 소위 《분단문학》을 들고나오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오늘 미제의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인민들의 양양된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제와 그 앞잡이인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정책에 매여달리고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분열주의적책동과 매국배족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인민앞에는 국토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영원히 끝장내고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느냐 아니면 《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열하느냐 하는 생사판가름의 문제가 나서게 되었다.

오늘 민족적량심이 있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사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그러나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도당의 충실한 노예로 전락된 남조선반동문학은 시대에 역행하여 민족의 한결같은 숙원이며 념원인 통일의 길이 아니라 천추를 두고 용납못할 민족반역의 길, 영구분열의 길로 제정신없이 내달리고있다.

소위 《분단문학》의 고창자들은 분단문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수 없고 대국의 힘에 의해서나 해결될수 있는 문제로 영구분단은 불가피하다는것을 주장하고있다.

중편소설 《분수령》이 이러한 반동적인 《분단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이 반동적인 소설가는 작품에서 두 동창생이 만난 이야기를 쓰면서 남의 국수집 중머리를 하던 가난한 사람은 북으로 가고 잘사는자는 카빙총을 메고 남으로 가는것으로 그리고있다.

하나의 분수령에서 두 동창생이 남과 북으로 영원히 갈라져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소설은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열을 극복할수 없는 비극으로 그림으로써 통일에 대한 인민의 지향을 거세하고 사람들에게 민족의 영구분열사상을 고취하고있다.

이 작가는 그밖에 소설 《오발탄》에서도 《반공》광신자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으며 특히 최근년간에는 다시 장편소설 《당원의 미소》에서 남조선파쑈악당의 민족분열책동에 발맞추어 해방직전부터 근래에 이르는 30여년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였다.

작품의 모든 인물과 정황은 다 작가에 의하여 조작되고 날조된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까지도 이 소설을 읽고 《이것은 민족적념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고 한다.

이밖에도 소설 《자유의 가교》, 《통일적소묘》 등도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며 민족의 영구분열을 고취하는 남조선군사파썸도당의 《반공》나발을 그대로 고창한 작품들이다.

우리는 미제의 《두개 조선》 책동에 추종하여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영구분열을 서슴없이 표방하는 이러한 매국배족적인 반동문학의 본질을 낱알이 발가내야 할것이다.

《반공》문학과 함께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조아소설문학의 반동성은 또한 전대미문의 생지옥으로, 인간도살장으로 변한 남조선사회를 《복지사회》로 미화분식하고 합리화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제의 강점하에 군사파썸당들이 판을 치고있는 오늘의 남조선사회는 대종적살육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말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었다.

미제는 36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왔다.

남조선의 매국배족적인 력대독재자들을 비호하여온 미제는 오늘도 이전 독재자의 파썸화정책을 답습하고있는 남조선의 새로운 군사파썸독재자를 극력 비호하고있다.

남조선의 현군사파썸독재자 전두환역도가 감행하고있는 폭압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파썸독재자들을 훨씬 뛰어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군사파썸독재자들이 실시하고있는 전대미문의 반동적인 통치는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온 세상사람들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충실한 사환군으로 변한 남조선의 반동적소설문학은 인간생지옥으로 화한 남조선사회를 《복지사회》로 미화분식하고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전형적인 사회현실을 《평등사회》, 《자유세계》인듯이 합리화해나서고있다.

이러한 반동적경향은 특히 소위 《산업화시대의 문학》을 운운하는데서 더욱 로골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산업화시대의 문학》을 레찬하는자들은 마치 남조선에서 산업혁명이라도 일어나 근대화가 실현됨으로써 산업사회, 복지사회가 이루어지거나 도 한듯이 허위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전염병처럼 만연되고있는 실업과 빈공의 참된 원인이 반동적인 식민지통치제도가 아니라 마치도 기술기계문명에 있는듯이 은폐하려는 어리석은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이 실시하고있는 《중화학공업육성정책》, 《수출입국정책》, 《수출진흥정책》, 《외자도입》 등 《근대화》의 명목밑에 감행되고있는 모든 경제정책들은 다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을 심화시키고 인민생활을 더는 헤여날수 없는 멸락의 구렁텅이에도 더욱 깊숙이 몰아넣는 가장 반동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러한 반동적인 경제정책의 후과로 오늘 남조선땅은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 외래독점자본의 략탈무대로 전변되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고용로동자로, 채무노예로 전락되고있는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썸당들은 그 어떤 《반공》선전으로써도 저들의 이러한 반동적본질을 합리화할수 없으며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동경하여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썸통치체제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투쟁을 막을수 없으며 그들을 기만할수 없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조아소설문학은 그 반동성과 허위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배격과 분노를 자아내고있을뿐이다.

오늘 남조선소설문학에서는 《반공》문학과 함께 실존주의, 프로이트주의, 모더니즘 등 갖가지 부르조아반동문학들이 황행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소설문학을 지배하고있는 반동적인 부르조아문예사조들가운데서 주류를 이루고있는것은 실존주의문학을 바탕으로 한 섹정주의문학이다.

자본주의사회제도의 쇠퇴몰락과정을 체험한 부르조아인테리의 불안과 공포의 기분을 반영하고있는 실존주의는 현대의 가장 반동적인 문예사조의 하나로서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불안의 철학》, 《죽음의 철학》인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하고있는 실존주의문학의 반동성은 고독과 불안, 허무와 절망, 죽음과 공포 등 극단한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를 설교하는데 있다.

실존주의문학의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는 우선 《불안》과 《고독》, 《절망》에 대한 고취에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의 반동소설 《요한시집》의 주인공은 《산다는것은 죄짓는다는것이다. 내가 여기에 앉아있기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앉아있지 못하는것이다. 그들을 밀어떨어버리고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것이다. 그래서 언제 그들에게 밀려날지 모른다.》고 하면서 《불안》의식을 고취하고있다.

남조선 반동작가들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반동적인 식민지통치체도에 있다는것을 숨기려하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실존주의문학의 반동성이 있다.

실존주의문학은 또한 이러한 《불안》과 《절망》을 언제나 《죽음》과 련결시키고 그것을 인간존오사상과 결합시키고있다.

단편소설 《암살자》는 극단한 인간존오사상을 고취하면서 죽음을 설교한 대표적인 반동작품의 하나이다.

실존주의문학의 반동성은 또한 현실생활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서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 계급투쟁과는 관계없이 세태잡사에 매달려 염세주의를 설교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현실로부터의 유리와 사회정치적문제로부터 신변잡사로서의 도피는 남조선소설문학의 주류를 이루면서 그 부패성과 타락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중편소설 《화투기》는 남조선의 한다하는 작가들이 하는일이 이집저집 밀려다니면서 화투나 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정경을 그대로 펼쳐 보이고있다. 이 주인공들은 인민대중의 양양되는 반파썸민주화투쟁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어진 초라한 운명 그대로 살아가는것이 《나》다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개인의 신변안전이나 도모하면 그뿐이라는 극단한 리기주의자들이며 타락분자들이다.

이러한 문학이 낳는것은 인생의 《무의미성》, 인생의 《부조리》, 인간활동의 《무목적성》으로부터 오는 절망과 고독, 불안과 허무뿐이다.

이러한 문학의 주인공들의 거의가 죽음의 길이 아니면 정신착란자로, 《산 송장들》로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반동적소설가들은 자기들의 문학의 기본특징이 삶에 대한 두려움과 피로움이며 거기서 생겨나는 《인간의 원초적인 한》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고있다.

그 한은 때로는 죽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광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체념의 형태로도 나타난다는것이다.

그자들은 인간의 한은 세계와 인생의 《부조리》, 현대인이 벗어날수 없는 《극한상황》에 원인한다고 본다.

그러한 《극한상황》, 《절대적상황》은 피할수도 없고 돌파할수도 없으며 변혁할수도 없는것이어서 《극한상황》속에 처하여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죽음에로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것이다.

이리하여 이러한 《극한상황》속에 놓여있는 인간은 강요된 불행속에서 이렇게도 할수 없고 저렇게도 할수 없어서 삶의 목적도 리상도 없는

인간으로, 불구화되고 기형화된 인간이하의 패덕한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소설문학에서 사람들이 얻은것이란 절망과 불안, 고독과 인생의 허무뿐이다.

이와 같이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전진한 사고를 마비시키고 그들을 절망과 타락으로 이끌어간다는데 바로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색정문학의 반동성과 그 해독성이 있는것이다.

사실상 절망과 불안에 대한 설교를 일삼고있는 남조선의 반동적소설가들은 전쟁이나 정변과 같은 《거대한 력사적소용돌이에 비추어볼 때 인간이란 보잘것 없는 하나의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동적인 사상을 자기 문학의 기초로 삼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쥬아소설문학의 반동성은 또한 프로이드주의에서 나타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프로이드의 반동적인 부르쥬아심리학에 기초하고있는 프로이드주의는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작용을 거부하고 색정주의를 고취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고 부화타락하게 만든다.

소설 《장미빛 사진첩》은 프로이드주의문학의 이러한 반동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은 인간을 동물적본능의 화신으로 그리면서 극도의 부화타락과 패륜패덕을 고취하고있다. 심지어 소설은 죽은 친구의 안해와 치정관계를 맺는 주인공의 입을 통하여 《륜리에, 규범에, 관습, 체면,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인간생활은 훨씬 자유》로울것이라고 떠벌이였다.

남조선의 색정주의문학은 이처럼 자주적인 사회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고 사람을 동물과 같은 저속한 성적본능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문학이 담당해야 할 기본분야라고 지껄이고있다.

색정주의자들이 떠드는 이러한 꾀변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부화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쥬아소설문학의 반동성은 현대부르쥬아형식주의문예사조인 모더니즘문학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소위 《현대적인것》을 표방해나선 현대의 퇴폐적인 부르쥬아형식주의문예사조를 총괄하는 모더니즘은 문학에서의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거부하고 《순수감각》, 《순수기교》, 《순수한 예술적형식》을 추구한다.

이러한 모더니즘문학이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에 널리 퍼짐으로써 남조선반동문학의 퇴폐성은 더욱 심각화되고있다.

모더니즘문학은 애매모호한 상징적표현과 리해하기 어려운 비유법, 문법규범까지 무시하는 어휘들의 회롱 등으로 내용의 공허성과 난해성을

조장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흐리멍텅하게 만들고있다.

이러한 극단한 형식주의는 《초현실주의》를 부르짖는 주지주의시문학에 의해서뿐아니라 소설문학에서도 흑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의 반동소설가들은 인간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거부하면서 객관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무의식》의 세계를 《내적독백》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소설작품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일반화를 란쪽하게 위반하고있다.

남조선소설문학에서는 특히 《반소설(앙페로만)》 제창자들에 의하여 소설형식의 기형성과 과육성이 극도로 고취되고있다.

그들은 인간이나 인간을 둘러싼 세계는 어떤 이야기처럼 짜여져있는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따라서 인간이나 인간생활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것은 거짓이라고 하면서 소설도 일관한 줄거리, 정연하게 연결된 인간심리의 움직임 《조작》해내여서는 안된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들은 또한 등장인물들의 사고와 행동을 정연한 시간적연관이 없이 뒤죽박죽으로 무질서하게 엮는것이 현대의 시대적요구에 맞는 문학으로 된다고 하면서 소설이란 《소설》을 제멋대로 만들어내고있다.

중편소설 《백지의 기록》은 《의식의 흐름》의 수법을 도입하여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주인공의 머리에 떠오르는 착잡한 생각들을 무질서하게 기록하고있다.

《의식의 흐름》문학, 《반소설》문학의 이러한 실태는 오늘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문학이 그 내용에 있어서뿐만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그 얼마나 퇴폐와 몰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여가고있는가를 잘 말하여준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소설문학에서는 《반공》문학과 각종의 부르조아문예사조들이 범람하여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타락과 절망에 몰아넣는 사상적도구로서 실로 정치적 반동과 합세하여 용납할수 없는 범죄의 길로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파썸적인 《유신》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열기하여 용감히 싸움으로써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원썬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특히 지난해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 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인민들의 영웅적봉기는 남조선의 파썸통치지반을 크게

뒤 흔들어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썸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처럼 남조선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는것과 함께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과 지향을 반영하여 진보적문학도 일정한 진출을 보하였다.

여기서 주되는것은 주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참상, 빈궁상을 소재로 하면서 부정, 부패로 가득차있는 남조선사회의 모순과 부패상을 발가놓고 있는것이다.

레를 들어 어느 한 소설의 주인공은 농촌을 류랑걸식하던 끝에 서울로 왔으나 사기협잡에 걸려가산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다. 이때 한 억대부자집에서 잃어버린 자기네 아이를 찾아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내붙인다. 주인공은 자기 집 아이 모습이 그 부자집 아이사진과 비슷한것을 리용하여 자기 아이를 대신 가져다주고 돈 60만원을 받는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찰나에 매복경찰이 나타나서 부자집아이를 랍치해갔던 놈이라는 죄를 씌워 경찰에 끌고가 돈 60만원을 도로 빼앗는것이다.

소설은 바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사기와 협잡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 법과 경찰이 돈에 매워있는 남조선사회의 부패상과 반동성을 신랄히 고발하고있다.

그러나 이처럼 남조선사회의 부패상과 비참상을 일정하게 폭로비판하고있는 진보적인 작품의 경우에도 옳바른 투쟁의 길을 가리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긍정인물로 내세우고있는 주인공들조차 기형아, 우매아로 그리는 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적소설문학은 남조선사회현실을 일정하게 폭로하고있는 이런 작품들외에 반미주체의 작품도 창작하고있으며 특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썸민주화투쟁에 합류해 들어가는 경향도 일정하게 보이고있다.

최근 노동자들의 투쟁이 양양되고 노동운동이 민주화투쟁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작가들이 민주화투쟁에 합류해들여가고있으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옹호하여 파썸독재를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고있는 작가들도 있다.

이 모든 진보적문학은 아직 많은 제한성과 약점을 내포하고있으나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민대중의 투쟁과 더불어 새로운 비약의 길, 혁명문학의 길로 나아가게 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조아문학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을 똑똑히 알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것이다.

풍어의 기쁨은 어장에, 포구에 넘친다

-신포수산업소 제 2 선단 101 호선을 타고-

서진명

1. 예가 정녕 바다인가

웅글은 파도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별 많은 하늘이 그대로 잿아든듯한 검푸른 바다 한복판을 헤가르며 기세좋게 달려가는 101호선.

지금은 밤, 가락맞게 들려오는 기관소리도, 옷자락을 부여잡는 바람소리도, 배전을 치는 파도소리도 이 밤따라 더더욱 유정스런 감회를 불러일으키는 밤이다.

밤바다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흔들리는 갑판을 딛고 나는 101호선이 헤가르는 밤바다, 어둠속에 잠긴 바다길을 더듬어본다.

벌써 몇번째 추운데 대기실로 들어가자고 세포비서가 재촉했으나 왜 그런지 나는 갑판에서 떠나고싶지 않아 그냥 서있다. 돌아보면 명멸하는 불빛으로 바래우던 어항도시도 시야에서 아득히 멀어지고 썩- 처절씩 파도치는 저앞에는 끝간데 모를 검푸른 바다가 어둠의 장막속에 잠겨있다.

동해어장으로 밀려드는 살오른 고기떼가 그대로 날개가 돋쳐 물에 오른듯 물고기반이칸마다에 넘쳐나는 《물고기바다》 그 《물고기바다》를 더 풍족하게 하려 자정 넘어 잡아온 고기를 부리우기 바쁘게 또다시 새날의 전투에 들어서서는 101호선 어로공들과 함께 나는 동승의 길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업을 발전시켜 수산물생산을 높이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101호선의 어로공들은 어로전사된 크나큰 영예를 안고 달리는 갑판우에서 또다시 새날의 전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갑판장은 그물보망과 권양기축함 점검에 여념이 없고 어로공들은 선수와 선미에서 벌림관부분 볼트를 조이고있다.

조명등불빛에 드러난 그들의 적동색 얼굴마다에는 더많은 고기를 퍼낼 어장을 앞에 두고 만단의 전투준비를 다그치는 전투원들의 담찬 기개가 어려있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어구와 기대정비를 끝낸 어로공들과 함께 대기실로 들어가니 방 한가운데 놓인 전기난로가 열기를 내뿜고있다.

대기실에는 《ㄷ》자형으로 의자가 벽쪽으로 치우쳐 놓여있는데 한쪽에는 허리를 펼수 있게 널마루가 깔려있었다.

성애가 돋친 방수옷을 옷걸개에 건 어로공들은 나를 먼저 난로앞에 내세워주고서야 의자에 빙 둘러앉는것이였다.

손님이라고 각별히 위해주는 배사람들의 진정을 대하니 난로불의 화기만이 아닌 어로공들의 뜨거운 마음이 나의 온몸을 더 훈훈하게 덥혀주는것 같았다.

출입문 맞은편 벽에는 월간고기잡이 계획대실적이 걸려있는데 거기선 매월 200%이상 초과한 자랑찬 수자가 나의 눈길을 끌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6차 대회에서 펼쳐주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의 하나인 500만톤수산물고지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러는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안고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 수천톤의 물고기를 더 퍼올림으로써 지난해만 해도 1만 2천여톤의 물고기를 잡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둔 101호선어로공들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련일 만선의 개가를 올리고있었던것이다.

《어제 신문엔 1선단동무들의 성과가 소개됐더구만.》

세포비서동무가 화제를 꺼내자 담배를 피우고있던 어로공들이 겨끝매기로 자기들이 보고 들은 소식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한 동무가 사업소 배들의 하루 고기잡이실적을 원금으로 렬거하자 다른 한 동무는 이웃 수산업소들의 고기잡이실적을 말했고 또 다른 동무는

수산부적으로 작년 이맘때에 비해 물고기를 얼마나 더 잡았는가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수자까지 꺼내며 떠들었다. 이때 《파르릉》하는 소리가 크지 않은 대기실을 흔들었다. 나는 의아한 눈길로 대기실안을 휘둘러보았다 내가 앉은 뒤벽에 매달려있는 신호종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종소리는 다급하게 울렸다. 그러자 어로공들은 약속이나 한듯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방수옷을 입는 것이었다.

《어제 기록을 갱신해보시오.》

좁전에 신문이야기로 서두를 떼던 세포비서동무가 법석 떠드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하는 말이었다. 그것이 격식 없는 그의 경계선동이었다. 어로공들은 갑판으로 밀려나갔다.

(어장에 도착한 모양이구나.)

나는 울렁이는 마음을 안고 어로공들과 함께 갑판으로 나왔다. 파도는 더욱 세차게 울부짖고 맴돌 바람이 불편을 여며낼듯 불어왔다. 앞서가는 어로공들의 뒤를 따라 뒤뚱거리는 갑판을 걷던 나는 《차렷!》 하는 소리를 듣고 무춤 멈춰섰다. 어느새 어로공들은 갑판우에 한줄로 정렬해섰다. 동해의 웅감한 어로공이 된 심정이라 할가. 이 사실은 나를 무척 승엄한 생각에 잠기게 했다.

갑판장이 한걸음 나서 조타실을 향해 병사식령례를 하며 《선장동무! 작업준비가 끝났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자기위치로!》 하는 로력영웅 박수석선장의 목소리가 뒤미처 울렸다. 어로공들은 삽시에 자기 초소로 흩어져갔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밤바다우에 솟아난 무수한 불빛에 눈길이 갔다. 하나의 거창한 도시를 그대로 방불케 하는 휘황한 불의 바다, 붉고 푸르고 누런 가지각색 등이 끝없이 명멸하는 밤바다의 그 황홀한 정경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지, 그 불빛은 나의 가슴을 통채로 사로잡았다. 아, 정녕 예가 바다인가. 앞을 보면 옆에서, 옆을 보면 뒤에서 나를 유혹하는 저 불빛, 휘황한 밤바다, 붉고 푸른 색등들과 탐색선과 지휘선임을 알리는듯 한 곳에 련달아 내리켄 붉은 무리등들, 선미와 선수를 밝히는 백색등들과 마스트에 높이 커단 작업등들, 그 무수한 불빛들이 출렁이는 물결속에 거창한 대리석기둥마냥 몸을 잠그고 오묘하게 드리워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요구성이 강한 화가가 자기 그림을 고쳐그리듯 파도를 불러 그 불

빛다리들을 하늘가높이 받들어올렸다가는 오색령롱한 빛을 뿌리며 물속깊이 천갈래만갈래 부서뜨리기도 한다. 그야말로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는 신묘하고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예가 정녕 바다인가?! 나는 저도 몰래 다시금 이런 탄성을 지르고야말았다.

포구를 떠나 근 한시간나마 어장을 찾아 달려왔다는 생각을 잊는다면, 밤하늘가로 날아예는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곳이 포구에서 멀리 떨어진 어장임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선장의 신호에 따라 기관소리가 멎고 배가 닻을 내리자 한곳에 멈춰섰다,

《투망》 하는 선장의 목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권양기가 우르릉거리며 그물을 들어올리고 그물이 물속깊이 자취를 감추자 단삭이 뒤따라 들어간다. 물사품을 일구며 선수와 선미의 현축을 통해 벌림판이 물속에 잠겨들자 배는 서둘러 항로를 잡고 예망하기 시작했다. 나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앞뒤좌우에서 움직이는 불의 바다, 수백채의 고층건물들이 바다에 솟아난듯싶은 《바다도시》를 둘러보고 또 둘러보며 나는 한동안 달리는 배전에 서있었다.

2. 불의 바다와 탐지기에 나타난 고기떼

나는 얼마후 불밝은 바다의 전경이 환히 내다보이는 조타실을 찾았다. 휘황한 밤바다의 정경에 심취된 나의 마음은 알바가 아니라는듯 조타실에 있는 두사람, 부두에서 이미 통성한 선장과 부선장은 저마다 제맡은 직무에 골몰해있었다. 선장 박수석동무는 탐지기의 기록지를 지켜보고 있고 부선장 엄병호동무는 조타에 한손을 얹은채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에게 눈웃음을 지어보이고는 곧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동해 선장결의로 다가가 탐지기의 기록판을 들여다보았다. 좁쌀알모양의 무수한 반점들이 기록판에 짝 들어찼다. 선장을 담배를 꺼내 나에게 권하며 《배를 처음 타보십니까?》 하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시무룩이 웃으며 《이제 다 고기떼지요.》 하며 그 좁쌀알같은 반점을 가리켰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배가 고기떼우로 떠다니는 셈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잠시도 실틈을 주지 않는답니다.》

마치 나에게가 아니라 탐지기에 나타난 고기떼와 말하는 듯 기록판에 눈을 준 영웅선장은 웃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그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밝은 웃음이었다. 순간 나는 선장의 모습을 새로운 감동을 안고 바라보았다. 선장의 레사로운 말마디와 눈웃음이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것이었다.

하루 2회 만선의 기쁨을 안고 밤깊어 부두에 닻을 내렸던 이들, 이들의 가슴에 안고 사는 그 충성심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새벽 1시경, 콘베아바가지로 어창의 고기를 퍼내고 있는 101호선의 갑판에서 내가 박수석선장을 처음 만났을 때였다.

몇 시간 후에 다시 출항하는가고 묻자 그는 《몇 시간이라니요?》 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당장 떠난다는 것이었다.

《당장이요?》

《왜 놀랍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엄동의 설한속에서도 몸소 우리 부두를 찾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한 시간만이라도 부두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그때도 선장은 저렇게 웃고 있었던 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만족하게 바라보신 부두의 하륙장에 언제나 풍어의 기쁨이 차넘치게 하려는 그 마음, 어찌 이것이 영웅선장 혼자만의 심정이었으랴.

하기에 어로공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서둘러 닻을 올렸고 포구를 떠나 고기떼 육식대는 어장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실로 모든 것이 내가 어리둥절할 정도로 치차처럼 맞물려 하나같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어느 한 고리도 휘는 데가 없이 또 한회 만선의 개가를 올릴 그 시각으로 줄달음치는 이 배길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가.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조타실너머 앞을 내다보았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선체를 드러낸 배들

이 여전히 신비스런 각가지 색등들로 밤바다를 이채롭게 장식하며 명멸하고 있다.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닻을 잃고 바라보던 그 불빛이었다. 그저 신비롭고 황홀하기만 하던 그 불빛이었다. 하지만 그 불빛보다 더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기록판을 들여다보던 영웅선장의 눈빛이었다.

그렇다, 그 눈빛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부두에 더 많은 물고기를 퍼올릴 결의로 충만된 우리 어로전사들의 충성의 마음의 일단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밤바다정경 - 과연 무엇이 더 아름다운가.

어장에 펼쳐진 불의 바다인가, 아니면 탐지기를 지켜보는 선장의 그 눈빛인가. 한배에 몸은 실 있어도 불야성을 이룬 밤바다의 황홀경에 취해 선장을 비롯한 어로공들의 속깊은 마음을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3. 해도 만선의 기쁨속에

《그물이 찬 것 같구만.》

탐지기 앞에서 조타 앞으로 다가서며 선장이 말하자 부선장도 동감이라는 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드디어 예망시간이 끝나고 그물을 취올릴 시간이 된 것이다. 고대하던 시각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근두근 뛴다. 시작하였다. 그림과 영화의 화면에서나 보아온 펄펄 뛰는 물고기를 퍼올리는 작업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다.

선장이 대기실에 있는 어로공들을 부르는 신호 단추를 누르자 나도 급히 조타실문을 열고 갑판 위로 뛰어나갔다. 투망때와 같이 갑판에 정렬한 어로공들이 선장의 호각신호에 따라 전투위치를 차지하자 권양기가 우르릉거리며 돌기 시작하였다.

《이크 권양기가 숨차하는 걸 보니 그물이 터지겠는 것 같소.》 로라에 끌줄을 감아붙이던 권양기공이 한 말이였다. 그러자 어로공들의 얼굴마다 기쁨의 미소가 피어났다. 나도 그들을 따라웃었다.

얼마후 불빛 어린 선미와 선수 곁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철썩!)

그 무슨 큰 물고기가 물위로 뛰어올랐다가 물속으로 자빠지는것 같은 소리가 났다. 나는 옆에선 어로공의 말을 듣고서야 현축가까이 매달려오르는 거뒸한 물체가 그물의 벌림판임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날렵한 솜씨로 쇠줄걸개를 벌림판에 걸자 다른 손이 껌싸게 끌줄을 벗겨놓고 단삭을 권양기에 감아놓았다.

권양기는 다시 돌고 배는 서서히 반원형을 그리며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어로공들의 눈길이 물속에서 끌려나와 권양기에 감기는 단삭이며, 그물이 드러날 수면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있었다. 바람을 맞받아 물결이 흐르는 방향으로 배를 서서히 세우는 순간 《평》하는 무엇인가 폭발하는 소리가 나고 키를 넘는 물기둥이 솟구쳐올랐다. 이 시각을 기다렸다는듯 끼룩끼룩 울어예며 갈매기들이 하얗게 모여들었다. 키를 넘게 솟아난것은 물기둥만이 아님을 갈매기들도 잘 알고있는것이였다. 그물에 위썩한 또 하나의 자그마한 바다에는 은빛 비늘을 서로 맞부딪치며 우글거리는 고기떼가 물과 범벅이 되어 부글부글 끓었다.

《조임줄을 감아붙여라!》

흥이 난 목소리가 울리자 권양기며 기중기가 분주히 돌아가며 부꺼리로 그물안의 고기를 선창으로 쏟아붓는다. 웃음이 피어나고 삽시에 선창에는 펄펄뛰는 물고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진다

조명등의 잔광을 받아 은빛고기폭포가 붉은빛을 띠는가 하면 푸른 빛으로 빛나며 연방 쏟아져 내린다.

다채로운 빛을 발산하며 어창으로 쏟아져내리는 고기폭포는 나의 넋을 대번에 빼앗아가고말았다. 밤바다를 밝히는 그 무수한 불빛도 무색하게 만든 고기폭포였다.

나는 졸전에 선장동무가 무엇때문에 탐지기에 나타난 반점들을 보며 그토록 밝은 웃음을 눈가에 지었던가를 늦게나마 깨달을수 있게 되었다.

한기망에 80톤의 고기를 퍼낸 어로공들의 얼굴마다에는 노상 웃음이 가셔질줄 모르고있었다.

고기를 푸느라 갑판에서 40분, 방수복에는 하얗게 성애가 얼어붙었어도 만선의 기쁨으로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던지 알수가 없다. 만선한 101호선이 선수를 포구로 향했을 때 수평선 한끝이 불그레 타오르더니 넘실거리는 파도우로 불덩이같은 해가 불쑥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두세번 만선기를 올리는 멧에 바뀌우는 밤과 낮조차 잊고 사는 어로공들에게 또 하루 풍어의 새날을 알리는 아침해! 바다와 물으로 부채살처럼 퍼져가는 해빛에 담아 온 조국땅에 풍어의 소식을 전해주려는듯 배고동소리가 봉-하고 우렁차게 울린다. 기쁨의 소식을 담고 이 아침 만선을 알리는 자랑찬 전파도 포구로 날고 어로공들의 길동무인 갈매기들은 춤을 추며 따라서고 있다.

마치 이 바다의 새들도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으로 배에 가득, 포구에 가득, 온 조국땅에 물 좋은 생선이 차넘치게 하려는 어로공들의 마음을 이 땅 한끝까지 전해주려는듯싶었다.

구전민요

칠척장검 갈아들고 떠나가신 님은
정방산 애술이 락락장송 되여도
에헤야 데헤야 왜적을 치고야 돌아온다오.

님 가신 고개우에 붉게 핀 진달래는
산 넘어 재 넘어 꽃바람 타고서

정방산성가

에헤야 데헤야 날 찾아온 님소식이라도

신재령 나무리 울버풍년 들어라
정방의 산성으로 군량미 보내잔다
에헤야 데헤야 사랑의 군량미 보내잔다.